

도농복합형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적용



도농복합형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적용

AURI-범죄예방-2016-1

도농복합형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적용

지은이 손동필 류수연 김민지
펴낸곳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출판등록 제569호-3850000251002008000005호
인쇄 2016년 12월 26일
발행 2016년 12월 31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전화 044-417-9600 **팩스** 044-417-9608

 <http://www.auri.re.kr>
가격 20,000원
ISBN 979-11-5659-127-6

※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Contents

I. 범죄예방 환경조성 지원사업의 개요	1
1. 범죄예방 환경조성 지원사업의 배경	3
2. 범죄예방 환경조성 지원사업의 목적	11
3. 2016년 범죄예방 환경조성 지원사업	12
<hr/>	
II. 도농복합형 범죄예방 환경조성 지원사업	15
1. 도농복합지역의 사회적 배경	17
2. 도농복합지역의 개념 및 현황	21
3. 도농복합지역의 특성	25
4. 도농복합지역에서의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례 및 시사점	37
<hr/>	
III. 도농복합지역에서의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적용	55
1. 사업 대상지 선정 및 지원 과정	57
2. 대상지 현황분석	64
3. 범죄취약공간 분석 및 우선개선구간 선정	82
4. 기본방향 및 전략	109
5. 맞춤형 범죄예방 환경조성방안	112
<hr/>	
IV. 성과와 향후 과제	143
1. 도농복합형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의 성과	145
2. 도농복합형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의 향후 과제	160
<hr/>	
참고문헌	163

표목차

[표 1-1] 국내 CPTED 관련 가이드라인 및 인증제의 적용대상	9
[표 2-1] 1~3차 개편을 통해 출범한 도농복합 40개시	22
[표 2-2] 도농복합시 행정구역 개편과정	23
[표 2-3] 도농복합시 현황	24
[표 2-4] 도시범죄에 관한 선행연구	26
[표 2-5] 농촌범죄에 관한 선행연구	27
[표 2-6] 도농복합도시, 도시, 농촌지역의 인구 10만 명당 5대범죄발생건수 평균 비교	31
[표 2-7] 도농복합의 특성(사회·정서적 측면)	32
[표 2-8] 도농복합의 특성(생활서비스 측면)	33
[표 2-9] 도농복합의 특성(경제적 측면)	34
[표 2-10] 미래토지이용계획 목표의 일부	38
[표 2-11] 도시, 교외, 농촌지역의 특성 구분	39
[표 2-12] 커뮤니티 차원의 주거 특성 구분	40
[표 2-13] 지역차원의 주거 특성 구분	41
[표 2-14] 조명의 위치에 따른 모형 계획안	45
[표 2-15] 농촌 범죄예방을 위한 세부방안 내용	53
[표 3-1] 2016년 대상지 선정기준	57
[표 3-2] 연도별 인구통계	58
[표 3-3] 세종특별자치시 도농복합지역 인구밀도	59
[표 3-4] 부강리~15리 인구규모(2015년 기준)	64
[표 3-5] 연도별 인구규모	64
[표 3-6] 부강리 농가비중(2015년 기준)	65
[표 3-7] 부강리 인구 이동률	65
[표 3-8] 인구연령분포	65
[표 3-9] 고령자수	66
[표 3-10]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수	66
[표 3-11] 외국인수	66
[표 3-12] 세종시 부강면 부강리 범죄발생현황(2011.01.01.~2016.06.30.)	75
[표 3-13] 장소별 범죄발생현황	75
[표 3-14] 2030 세종도시기본계획 중 CPTED 관련내용	77

[표 3-15] 부강역 일원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기본구상	78
[표 3-16] 부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중 CPTED 관련내용	79
[표 3-17] 주민 설문조사 항목 및 내용	96
[표 3-18] 외국인 대상 지역사회 프로그램(예시)	132
[표 3-19] 주민 교류 활성화 프로그램(예시)	133
[표 3-20] 서울시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 사례(일부 발췌)	134
[표 3-21] 부강리내 공원조성계획 현황	136
[표 3-22] 어린이공원 연계계획	137
[표 3-23] 근린공원 연계계획	137
[표 3-24] 단계별 추진 계획	139
[표 4-1] 주민 설문조사 항목 및 내용	149

그림목차

[그림 1-1] 5년 전과 비교한 사회의 안전상태 변화와 5년 후 사회의 안전상태 변화에 대한 조사결과	4
[그림 1-2] CPTED 개념	5
[그림 1-3] 쿨데삭 비교- 국내 사례(위) 영국 사례(아래)	7
[그림 1-4] 주요범죄 발생 장소	8
[그림 1-5] 한국과 유럽의 공동주택 구조	10
[그림 1-6] 국내와 유럽의 가로환경	10
[그림 1-7] 범죄예방 환경조성 지원사업의 목적	11
[그림 1-8] 범죄예방 환경조성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13
[그림 2-1] 농촌마을의 다양한 미래상	18
[그림 2-2] 증가하는 귀농가구	19
[그림 2-3] 증가하는 귀촌가구	20
[그림 2-4] 도시와 농촌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조사	28
[그림 2-5] 농촌의 범죄안전에 대한 조사 결과	29
[그림 2-6] 농촌지역 총 범죄의 공간적 분포(2005년)	30
[그림 2-7] 도농복합도시, 도시, 농촌지역의 인구 10만 명당 5대범죄 발생건수 평균 비교	31
[그림 2-8] 힐스보로우 위치	37
[그림 2-9] 일본 이와테현 오노무라	43
[그림 2-10] 오노무라 제1기 조명계획안	44
[그림 2-11] 계획안 스케치	45
[그림 2-12] 사업 후의 오노무라 모습	45
[그림 2-13] 미국 미네소타주, 크로스(Cross Wing) 왕군에 위치한 브레이너드	46
[그림 2-14] 베타 브레이너드(Better Brainerd)의 8개 프로젝트별 구역	47
[그림 2-15] Mill Park의 수목 정리 전·후	48
[그림 2-16] Mill Park의 수목 조성 예정지(야구장 펜스 뒤편)	49
[그림 2-17] 3번가 가로수 식재	49
[그림 2-18] H도로 사업 전후 비교	50
[그림 2-19] 1번가 사업 전후 비교	50
[그림 2-20] 5번가 사업 전후 비교	51
[그림 2-21] C도로 교차로 부분 횡단보도 설치	51

[그림 2-22] C도로상에 보도 설치 전후 비교	51
[그림 2-23] Rural Crime Prevention 브로슈어	52
[그림 3-1] 부강리 범죄 발생건수	59
[그림 3-2] 사업대상지 선정 과정	60
[그림 3-3] 건축도시공간연구소·세종시청·세종경찰서간 MOU 체결(2016.06.22)	61
[그림 3-4]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 사업설명회(2016.07.04)	62
[그림 3-5] 사업에 관한 간담회 (2016.08.10)	62
[그림 3-6] 사업예산계획 및 일정 논의를 위한 실무자 협의(2016.08.17)	62
[그림 3-7] 나대지 및 공·폐가 협조 요청 및 의견 수렴을 위한 업무협의(2016.10.14)	62
[그림 3-8]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	62
[그림 3-9] 사업지원 과정	63
[그림 3-10] 부강리 위치	67
[그림 3-11] 부강리 전도 및 사업대상지 위치	67
[그림 3-12] 용도지역현황	68
[그림 3-13] 주요 도로 현황	69
[그림 3-14] 주요 보행동선 현황	69
[그림 3-15] 교차로 현황	70
[그림 3-16] 건축물 노후도	70
[그림 3-17] 건축물 층수	70
[그림 3-18] 건축물 용도	71
[그림 3-19] 건폐율	71
[그림 3-20] 용적률	71
[그림 3-21] 교육시설	72
[그림 3-22] 부강초등학교	72
[그림 3-23] 부강중학교	72
[그림 3-24] 국제어린이집 및 인근 학원	72
[그림 3-25] 부용어린이집	72
[그림 3-26] 관공서 및 운동시설	73
[그림 3-27] 부강게이트볼장	73

그림목차

[그림 3-28] 부강파출소	73
[그림 3-29] 대상지내 방범시설물 사진	74
[그림 3-30] 대상지내 방범시설물 설치 현황	74
[그림 3-31] 대상지내 범죄 발생 위치	76
[그림 3-32] (1구역) 주거시설의 모호한 경계	82
[그림 3-33] (1구역) 수목관리가 미흡한 구간	83
[그림 3-34] (1구역) 방치된 공·폐가 및 컨테이너	83
[그림 3-35] (1구역) 야간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구간	84
[그림 3-36] (2구역) 수목관리가 미흡한 텃밭 및 공터	85
[그림 3-37] 공사예정지역 및 조립식 건물	86
[그림 3-38] 우거진 수목 및 방치된 공·폐가	86
[그림 3-39] 야간 시야 확보가 어려운 보행로	87
[그림 3-40] 세종 부강리 VAE 분석 결과: 시분위 분포	91
[그림 3-41] WLVAE 분석 결과: 시각적 접근성(VA) 분포	92
[그림 3-42] WLVAE 분석 결과: 시각적 노출(VE) 분포	92
[그림 3-43] VGA 분석 결과: 통합도	93
[그림 3-44] 기존 CCTV 감시범위 분석 결과	94
[그림 3-45] 기존 가로등 범위 분석 결과	95
[그림 3-46] 이웃과의 유대를 느끼고 실천하는 정도	97
[그림 3-47] 주변 위험 및 위급한 상황에 대한 개입	97
[그림 3-48] 근린환경에 대한 평가	98
[그림 3-49] 근린환경에 대한 평가	99
[그림 3-50] 범죄로부터의 안전감(左), 두려움 유발 장소(右)	100
[그림 3-51] 예상되는 범죄 상황에 대한 두려움 정도	101
[그림 3-52] 거주지역 내 범죄 피해 경험	101
[그림 3-53] 주택 내 범죄 피해 경험	102
[그림 3-54] 경찰관 도보순찰 목적 경험(좌측부터 낮/밤)	102
[그림 3-55] 경찰서 및 지구대 신고 경험	103
[그림 3-56] 지역 안전을 위해 필요한 범죄 예방 대책	103
[그림 3-57] 마을 안전 지도	105

[그림 3-58] 범죄취약지역 현황도	107
[그림 3-59] 우선개선구역	108
[그림 3-60] 범죄예방 조성사업의 기본방향	109
[그림 3-61] 도농복합형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의 전략	111
[그림 3-62] 경관을 저해하고 은신공간을 생성하는 부강역 인근 공·폐가	112
[그림 3-63] 마을광장 사례 이미지	112
[그림 3-64] 부강신대길 주변 방치되어 있는 공가 및 조립식 건물	112
[그림 3-65] 수풀로 인해 시야가 차단되는 나대지	113
[그림 3-66] 텃밭 예시	113
[그림 3-67] 주차장으로 일부 이용되고 있는 나대지	113
[그림 3-68] 나눔 주차장 예시	113
[그림 3-69] 부강역 앞 지저분한 철제 가림막	114
[그림 3-70] 마을 안내판 예시	114
[그림 3-71] 외부로부터의 침입에 취약한 주택 경계	114
[그림 3-72] 유지보수 및 벽면 도색이 필요한 담장	115
[그림 3-73] 임시로 출입을 통제한 공·폐가	115
[그림 3-74] 전략에 따라 1구간에 적용된 기법	116
[그림 3-75] 바닥조명 예시	120
[그림 3-76] 난간 조명 예시	120
[그림 3-77] 전략에 따라 2구간에 적용된 기법	120
[그림 3-78] 방치된 조립식 건물 및 컨테이너	123
[그림 3-79] 어린이 도서관 예시	123
[그림 3-80] 공터 내 방치된 컨테이너	123
[그림 3-81] 국제어린이집 뒤편의 철제 가림막	124
[그림 3-82] 철제 가림막 개선 예시	124
[그림 3-83] 출입통제장치가 필요한 기존 주택지의 공·폐가	125
[그림 3-84] 전략에 따른 3구간에 적용된 기법	125
[그림 3-85] 농작물 절도 예방 순찰 사례	129
[그림 3-86] 주민주도의 조경 정리 활동 사례	129

[그림 3-87] 텃밭작물 축제 사례(마포구)	129
[그림 3-88] 구간별 담당자 지정 사례	129
[그림 3-89] 안산시 주말농장 사례	130
[그림 3-90] 부강리 자전거순찰대	130
[그림 3-91] 중·장기 계획의 기본방향 및 전략	131
[그림 3-92] 계획의 범위	132
[그림 3-93] 커뮤니티 활성화 활동 예시	133
[그림 3-94] 나대지 현황 및 활용 계획	135
[그림 3-95] 도시계획도로 신설에 따른 변화가 예상되는 주요 가로	135
[그림 3-96] 방법시설이 부실한 주거시설의 창호	137
[그림 3-97] 중·장기 계획 종합	138
[그림 3-98] 전략별, 우선개선구간별 기본계획	140
[그림 4-1] CCTV 시공	145
[그림 4-2] 보안등 시공	146
[그림 4-3] 철제가림막 철거 및 목재가림막 설치	146
[그림 4-4] 보안등+고보조명 시공	147
[그림 4-5] 시설물 시공 위치	148
[그림 4-6] 이웃과의 유대를 느끼고 실천하는 정도	150
[그림 4-7] 주변 위험 및 위급한 상황에 대한 개입	151
[그림 4-8] 근린환경에 대한 평가	152
[그림 4-9] 주변 환경에 대한 평가	153
[그림 4-10] 범죄로부터의 안전감(左), 두려움 유발 장소(右)	154
[그림 4-11] 예상되는 범죄상황에 대한 두려움 정도	156
[그림 4-12] 거주지역/주택 내 범죄피해 경험	156
[그림 4-13] 경찰관 도보순찰 목격 경험	157
[그림 4-14] 경찰서 및 지구대 신고 경험	157
[그림 4-15] 지역안전을 위해 필요한 범죄예방대책	158

도농복합형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적용

I

범죄예방 환경조성 지원사업의 개요

I. 범죄예방 환경조성 지원사업의 개요

1. 범죄예방 환경조성 지원사업의 배경

1) 범죄예방의 필요성 및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중요성

■ 증가하는 범죄 불안감 및 범죄예방의 필요성

• 강력범죄의 지속적 증가

-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각종 강력범죄로 국민의 불안감 고조

- 대검찰청의 2015 범죄분석에 따르면, 강력범죄(흉악)*의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는 2005년 40.0건(19,496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에는 66.5건(34,126건)으로 최고치 기록

※ 검찰에서는 전체 범죄를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로 구분하고 형법범죄를 다시 강력범죄(흉악), 강력범죄(폭력), 재산범죄 등으로 구분
(출처 : 대검찰청(2015), 2015 범죄분석)

- 지난 10년 간 강력범죄(흉악)의 증가율은 66.2%로, 재산범죄(34.9%), 강력범죄(폭력)(-19.0%) 등 형법범죄의 주요 범죄군 중 가장 높은 증가 추세

※ 강력범죄(흉악) 중 살인, 강도, 방화범죄는 지난 10년 동안 감소추세인 반면에, 성폭력범죄는 2.5배나 증가하여 강력범죄(흉악)의 증가는 성폭력범죄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대검찰청(2015), 2015 범죄분석, p.13)

• 사회적 약자 대상의 각종 범죄 증가 추세

- 강력범죄뿐만 아니라 아동,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범죄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

- 2014년 발생범죄를 기준으로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을 포함하는 강력범죄(흉악) 피해자의 84.7%가 여성

-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지난 10년 동안 69.4% 증가하였고, 13세~20세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는 279.8%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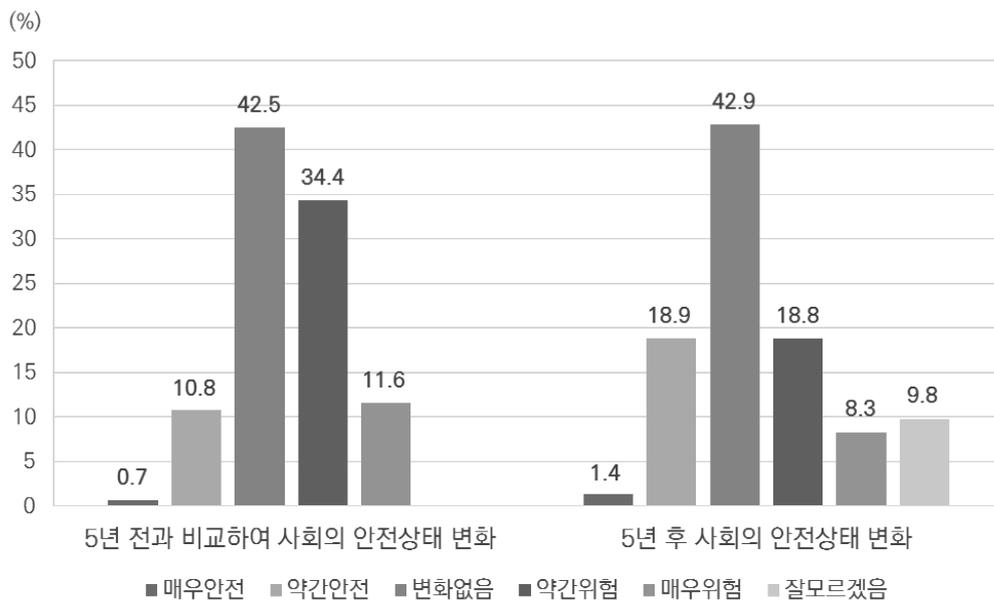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을 의미하나, 발생통계원표에서 피해자 연령구분이 16세~20세로 되어있어 불가피하게 청소년에 19세와 20세 포함 (출처 : 대검찰청(2015), 2015 범죄분석, p.78)

- 61세 이상 노인이 범죄피해자인 범죄발생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05년 76,176건에서 2014년 138,056건으로 지난 10년 동안 81.2% 증가

※ 대검찰청의 2006년, 2015년 범죄분석에서 피해자 성별·연령 통계표를 참고하여 작성

• 범죄예방 대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

- 연이은 강력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발생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 증대
- 2014년 통계청이 만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5년 전과 비교하여 사회의 안전상태 변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응답자의 11.5%만 안전해졌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46%가 위험해졌다고 응답
- 또한 5년 후 사회의 안전상태 변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안전할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자는 전체의 20.3%에 불과
- 이처럼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 필요



[그림 1-1] 5년 전과 비교한 사회의 안전상태 변화와 5년 후 사회의 안전상태 변화에 대한 조사결과
 ※출처: 통계청(2014), 사회의 안전상태 변화, 2014년 사회조사 보고서 참고 재작성

■ 범죄예방의 패러다임 전환

• 발생한 범죄에 대한 사후적 처벌보다 범죄발생의 사전예방으로 패러다임 전환

- 최근 형사정책은 사후처벌 위주의 징벌적 정책에서 사전예방을 통한 범죄발생 억제로 범죄대처 패러다임 전환
- 범죄 기회를 제공하는 환경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 목적으로 범죄예방 환경개선 관련사업 시작

■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의 국내 도입

• 2000년대 이후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에 대한 관심 증가

- 2000년을 기점으로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관한 사회적·학문적 관심이 증가
- 2005년 경찰청의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시작으로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관련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2년 서울시의 범죄예방 백신디자인 프로젝트인 염리동 소금길 사업이 사회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관련 사업이 확대

•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의 관련 사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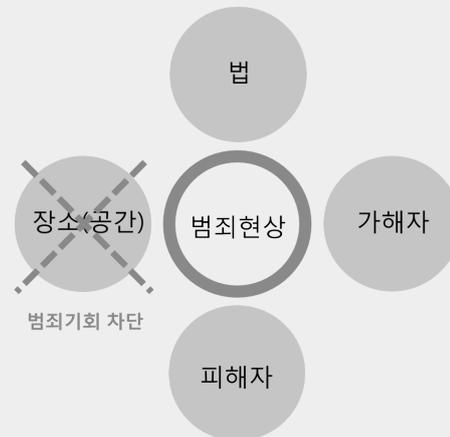
- (범죄예방 환경개선 관련 시범사업 증가) 법무부·국민안전처 등의 중앙부처와 서울시·부산시 등의 지자체에서 약 250여 개의 관련 시범사업 시행 중

※ 법무부의 '범죄예방활동 예산'은 2011년 452억 원, 2012년 514억 원, 2013년 614억 원, 2014년 683억 원으로 증가 (출처: 법무부)

※ 경찰청의 '범죄예방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예산'은 2011년 201억 원, 2012년 473억 원, 2013년 550억 원, 2014년 608억 원으로 증가 (출처: 사이버경찰청)

※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란 범죄를 발생시키는 요인 중 하나인 장소(공간)에 대한 방어적 디자인을 통하여 범죄기회를 줄이고 범죄발생 두려움을 저감시키기 위해 고안된 범죄예방기법¹⁾
- CPTED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특정지역의 환경적 패턴과 국지적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환경적인 영향요인들을 개선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는 대안이 필요
- 또한 도시개발 및 건축 행위가 끝난 이후에 CPTED기법을 적용하면 많은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획단계부터 CPTED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²⁾



[그림 1-2] CPTED 개념

1) 경찰청(2006),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방안, p.14

2) 서울특별시(2013), 주민중심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가이드라인 p.6

CPTED의 기본원리

구분	관련 제도 및 프로그램	
자연감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침입자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설계 개념으로, 공간 및 시설배치와 디자인을 통해서 잠정적인 범죄자와 피해자를 감시범위에 두는 것을 의미함 범죄자가 감시가 있는 곳에서는 범죄를 저지르기 어렵다는 가정에 기초한 것으로, 범죄자에게 검거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범죄를 억제시키고,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킴 	 <p>시아확보를 고려한 수목정리</p>
접근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적으로 잠재적인 범죄자의 접근을 막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전략으로, 무분별한 진출입을 차단하여 범죄 목표물에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어 범죄행위 및 시도를 차단하는 설계개념을 의미함 울타리, 출입구, 조명, 조경 등의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의 접근을 통제함 	 <p>공·폐가 출입방지시설 설치</p>
영역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역성이란 지역주민들이 시설이나 공간을 사용하고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으로, 주로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을 구별하고 대지의 경계선을 나타냄 이를 위해서 울타리, 담장, 표지판, 정원 가꾸기, 조경, 도로포장 등과 같이 물리적 방안을 사용하여 소유권을 가시적으로 표현함 	 <p>표지판 및 벽면도색 사례</p>
활동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이나 상황을 조성하고 그 장소를 활발히 사용하도록 유도 및 자극함으로써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활발한 사용을 통한 자연스러운 감시를 강화하여 범죄위험을 감소시키는 원리를 의미함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공원, 산책로, 벤치 등으로 조성함으로써 자연적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가족단위, 청소년, 노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놀이시설 및 휴게시설을 계획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임 	 <p>주민텃밭 조성 사례</p>
유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깨진 유리창 이론'에서 나온 개념으로, 구조물, 시설물 등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처음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의미함 주변 환경에 대한 소유권이나 책임의식 등을 통해서 범죄자의 행위는 위축시키면서도 거주자들에게는 주변에 대한 관심과 준법의식을 고취시키는 사용자 참여에 기반을 둔 범죄예방 개념 이 개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대상지역이 주민들에 의해서 잘 관리되고 있음을 범죄자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거나 공간과 시설을 쉽게 인식하고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함 	

※ 출처: 법무부(2015),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표준 매뉴얼, pp.27-28

2) 국내 CPTED 사업의 한계 및 한국형 CPTED 연구의 필요성

■ 한국의 공간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관련 사업 및 가이드라인의 한계

- 해외사례의 답습이 아닌 한국의 공간구조를 고려한 사업의 및 가이드라인이 중요
- 한국과 외국의 주거공간, 가로공간 등 공간구조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관련 사업 및 가이드라인은 해외사례를 답습하는 경우가 다수
- 예로 막다른 길을 의미하는 ‘쿨데삭(Cul De Sac)’³⁾은 넓은 도로폭과 개방된 창문을 통해 충분한 시야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 기반하여 해외 사례나 가이드라인에서 안전한 도로구조로 제안
- 반면 국내의 경우 높은 담장과 좁은 도로폭으로 인해 가시거리 확보가 어려우며 지역에 따라 위험공간으로 분류하므로 국내 가로공간에 적용시 이와 같은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



[그림 1-3] 쿨데삭 비교- 국내 사례(위) 영국 사례(아래)

3) 쿨데삭(Cul De Sac): 1920년대 미국 레브먼 계획시 통과교통을 배제하기 위해 최초로 도입된 도로로 주로 미국이나 유럽 주택단지내 조성된 막다른 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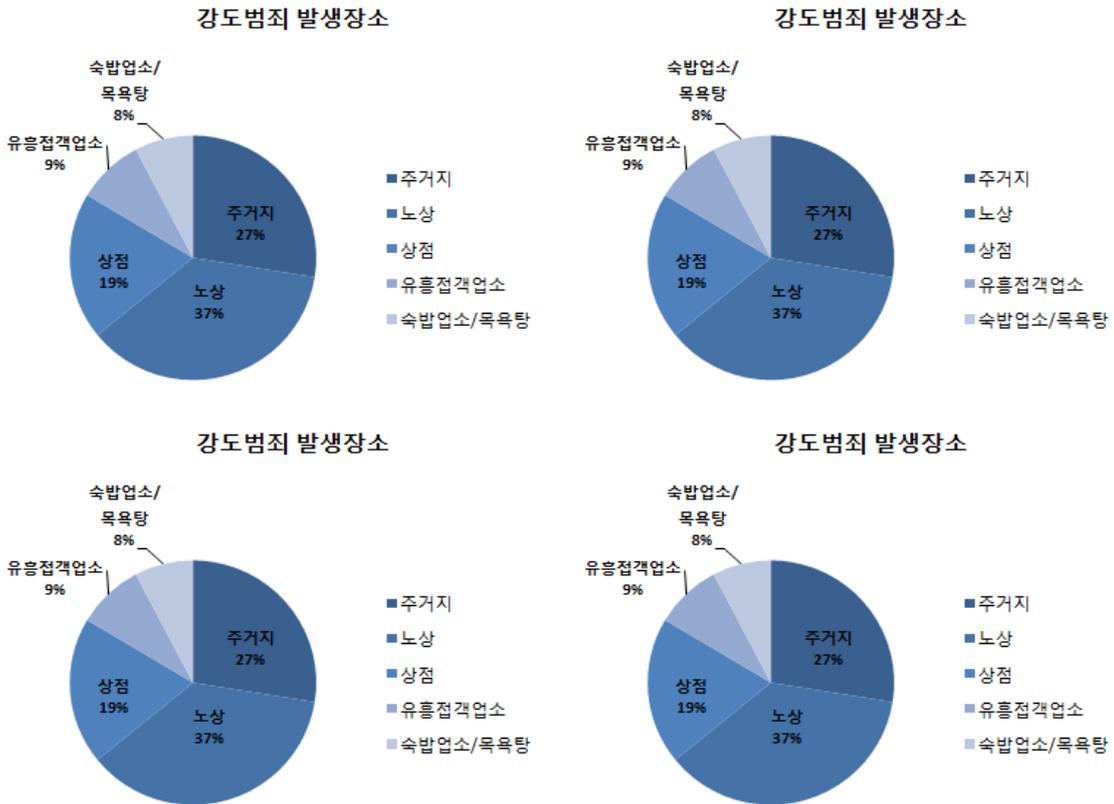
다양한 공간 및 지역 유형에 대한 고려 부족

• 다양한 공간 및 지역특성과 범죄유형과의 관계에 대한 고려 미흡

- 범죄는 장소 유형, 건축물 용도에 따라 범죄빈도, 범죄 유형 등 범죄특성이 상이하하며, 이는 그 장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향 및 특성과 건물 및 공간의 구조적 차이에 의해 발생

- 대다수 범죄는 노상>거주지 순으로 많이 발생하지만 범죄유형에 따라 발생장소와 발생비율이 상이

※ 강도는 노상>거주지>상점>유흥접객업소 순, 성폭력은 주거지>노상>교통수단>숙박업소/목욕탕 순, 폭력상해는 노상>거주지>유흥접객업소 순, 절도는 노상>거주지>상점>유흥접객업소>사무실 순으로 많이 발생



[그림 1-4] 주요범죄 발생 장소

※출처: 출처: 대검찰청(2015), 2015 범죄분석 참고 재구성

* 정확한 범죄발생 장소를 알 수 없는 '기타'를 제외한 장소를 백분율로 재계산하여 표기

- 하지만 대다수의 국내 CPTED 관련 사업, 가이드라인, 인증제와 같은 정책들은 주로 주거시설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상업·업무시설 등에 대해 다루더라도 주거시설에 관한 내용의 비중이 월등히 높음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의 경우 공동주택에 관한 기준이 25개, 단독·다세대에 관한 기준이 6개임

[표 1-1] 국내 CPTED 관련 가이드라인 및 인증제의 적용대상

구분	제목	적용대상				
		주거시설		상업 시설	업무 시설	기타
		단독 · 다세대	공동주택			
고시	범죄예방 건축기준	○	○	○	○	○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등)
가이드 라인	실무자를 위한 환경설계 가이드북	○	○	○		
	건축물의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	○	○	○	○	○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등)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가이드라인	○				
	부산광역시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	○	○			
	서울시 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 범죄예방 환경설계 (CPTED)지침	○	○	○		
	경찰청의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지침	○	○			○(공원)
인증제	한국셉테드학회 CPTED인증		○			
	서울시 범죄예방 우수건물 인증제	○ (30세대이상 도시형생활주택)				

- 따라서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범죄유형과 건물용도, 공간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범죄예방 대책이 필요

■ 한국형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연구의 필요성

• 한국의 인구 · 사회적, 물리적 특성에 적합한 연구 필요

- 한국과 외국의 도시공간구조와 사회적 차이를 고려한 사업 추진 및 가이드라인 개발이 중요
- 해외 사례나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기법들은 해당 국가의 환경에 적합한 기법으로 이를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공간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

• 생활양식, 역사적 · 사회적 특성에 따른 한국과 외국의 공간구조 차이고려 필요

- 도시공간은 토지이용, 가로, 건축물이나 가로시설물이 형성하는 3차원적인 패턴인 물리적 패턴과 도시의 상징성, 문화성, 역사성에 해당하는 비물리적 패턴에 의해 형성되므로, 모든 도시는 각 지역마다 특유의 분위기와 패턴을 가지며 차별성을 보임⁴⁾
- 도시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양식, 경제적 수준, 도시의 역사적 · 사회적 · 경제적 발전과정에서 따라 변화하므로, 한국과 외국의 건축 · 도시공간은 구조적으로 상이

4) 이세준, 이석정(2009), 가로공간 형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의 연구, 한국도시계획학회지. v(10), pp.165-166

※ 한국과 외국의 주거공간구조 차이

- 주거생활양식에 따라 한국과 외국의 주거단지구조, 주택내부구조 등 주거공간구조에 차이 존재
- 예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효율적·기능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주거적인 삶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으로 등장한 공동주택은 나라와 문화권에 따라 구조가 상이
- 한국의 공동주택은 남향배치를 선호하고 일조권을 중요시하는 특성상 판상형·단지형 아파트 단지와 전면폭이 긴 건물구조가 많으며, 유럽은 가로에 따라 배치되고 주위 환경을 고려한 블록형 집합주택이 주로 형성됨



국내 단지형 공동주택



유럽 블록형 공동주택

[그림 1-5] 한국과 유럽의 공동주택 구조

※출처: 하지영(2011), 도시블록(urban block)에서 시작하는 우리시대의 집합주택,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9,17

※ 한국과 외국의 가로공간구조 차이

- 가로공간의 구조 또한 주거공간구조와 유사하게 생활양식, 역사적 발전과정 등에 따라 차이를 보임
- 유럽의 가로는 보행자, 자동차, 자전거의 통행이 함께 이루어지면서도 안전·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한편, 국내의 경우에는 차량 중심의 가로환경이 우선 계획된 후에 보행로를 조성하고 있어 보행환경에 많은 차이를 보임



국내 가로환경



리스본 가로환경

[그림 1-6] 국내와 유럽의 가로환경

※출처: 2016년 보행안전 국제세미나 자료집, pp.146-147

5) 블록형 집합주택은 가로에 따른 연속적 배치를 보이는 연도형 집합주택의 특성과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중정을 포함한 중정형 집합주택의 특성을 모두 포함하여 외부적으로는 도시공간구조에 대응하고 내부적으로는 위요된 공간을 형성하는 도시집합주택을 의미 (하지영(2011), 도시블록(urban block)에서 시작하는 우리시대의 집합주택,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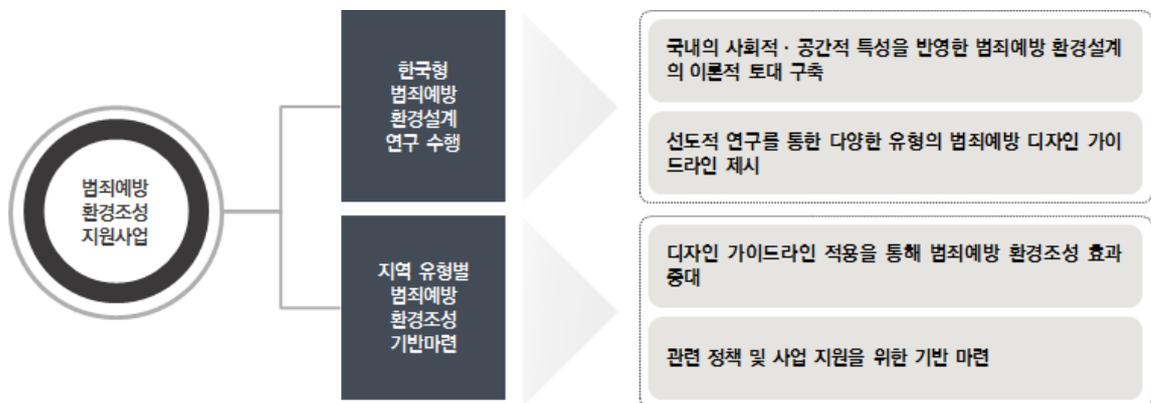
2. 범죄예방 환경조성 지원사업의 목적

■ 국내 환경에 적합한 한국형 범죄예방 환경설계 연구 수행

- 국내의 사회적 · 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이론적 토대 구축
 - 국내 고유의 공간유형 및 건축물 특성과 범죄발생특성을 함께 연구하여 한국형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방향을 정립하고 이론적 기반 구축
- 선도적 연구를 통한 다양한 유형의 범죄예방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
 -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해 사회 및 공간구조, 범죄의 변화양상을 반영하여 연구를 발전시켜 다양한 유형의 범죄예방 환경설계 디자인 기법 제시

■ 지역유형별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을 통한 범죄예방 환경조성 기반 마련

-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을 통해 범죄예방 환경조성 효과 증대
 - 지역 고유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지역유형별 모델정립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성과를 확산하여 범죄예방 환경조성 효과 증대
- 관련 정책 및 사업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 및 사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그림 1-7] 범죄예방 환경조성 지원사업의 목적

3. 2016년 범죄예방 환경조성 지원사업

1) 도농복합형 범죄예방 환경조성 지원사업의 필요성

■ 2016년 범죄예방 환경조성 지원사업의 중점개선 지역유형

• 도시공간 위주로 추진된 기존의 범죄예방 환경조성 관련 사업

- 기존 범죄예방 환경조성 관련사업과 정책은 주로 도시 내 낙후된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었으며, 이후 학교시설, 재래시장, 원룸밀집지역 등 다양한 공간특성을 고려한 사업이 시행되었지만 대부분 도시 내의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됨

※ 지자체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 및 부산시 위주로 관련 사업이 전개되고 있으며, 대다수의 도농복합시가 포함되어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범죄예방 환경조성 관련 사업이 활발하지 않음

• 해외의 범죄예방 환경조성 관련 정책

-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등에서는 농촌지역의 고령화, 인구공동화, 청소년 구직기회의 한계, 교통 및 생활 인프라의 한계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범죄예방 정책 개발 중집

• 도농복합지역의 범죄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부족

- 도시와 농촌의 복합적인 지역특성으로 인해 범죄 및 사고에 취약하고, 빠른 도시화로 여러 범죄문제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도농복합시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부족
- 도농복합지역은 도시와 농촌이 통합될 때 농촌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지 못한 채 계획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
-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주거환경 및 생활편의시설이 열악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한 도시지역으로의 이동현상의 영향으로 인해 농촌지역의 인구는 감소하지만 반대로 도시지역의 인구는 증가하므로 인구 공동화 현상과 인구과밀 문제 발생
- 또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교통체계 구축 및 낙후지역의 개발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도농복합지역 주민들의 안전성 우려
- 도농복합지역의 복잡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도농복합지역 맞춤형 범죄예방 환경조성이 필요함

2) 도농복합형 범죄예방 환경조성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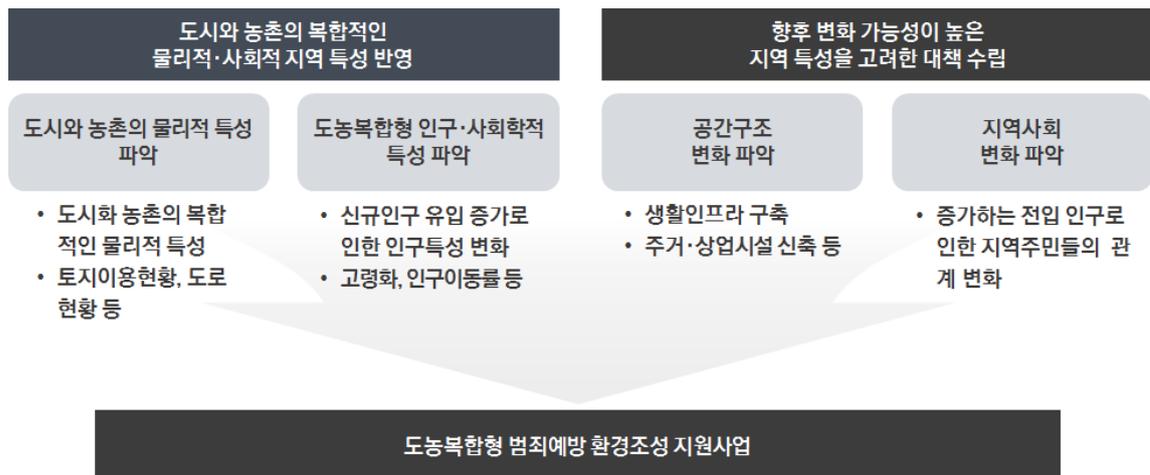
■ 도농복합형 범죄예방 환경조성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 도시와 농촌의 복합적인 물리적·사회적 지역 특성 반영

-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농복합지역의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①도시와 농촌의 복합적인 물리적 특성과 ②신규인구 유입 증가 및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특성 고려가 중요
-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주거환경 및 생활편의시설이 열악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한 도시지역으로의 이동현상의 영향으로 인해 농촌지역의 인구는 감소하고, 반대로 도시지역의 인구는 증가하므로 이와 같은 인구문제의 해결 및 농촌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계획에 따라 도농복합지역만의 특성을 살린 환경개선이 필요함

• 향후 변화 가능성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대책 수립

- 도농복합지역은 증가하는 인구수요와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 인프라 구축, 주거·상업시설 신축 등 공간구조의 변화, 높은 신규 인구 유입 및 고령화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관계 변화 가능성이 높은 지역
- 이러한 물리적·사회적 변화 가능성을 예측·반영하여 도농복합지역만의 맞춤형 범죄예방 환경조성이 필요



[그림 1-8] 범죄예방 환경조성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도농복합형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적용

II

도농복합형 범죄예방 환경조성 지원사업

II. 도농복합형 범죄예방 환경조성 지원사업

1. 도농복합지역의 사회적 배경

■ ‘도시화 국가시대’ 도래

- 세계 도시화율은 2008년 50%에서 2030년 60%, 2050년 70%로 지속적으로 증가
 - UN의 통계에 따르면 1950년 전 세계 도시인구가 7.3억 명에 불과했으나, 50여년 만에 약 3.5배가 증가하여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게 되었고, 2010년에는 34.7억 명, 2030년경에는 전체 인구의 60%이상인 49.1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지식기반 사회로의 전환 속에서 중국, 인도 등 신흥국가의 성장이 도시화를 가속
 - 중국의 도시인구는 1950년 0.7억 명에서 2005년에는 5.3억 명으로 7.4배나 늘었고, 특히 최근 10년 동안은 도시 인구가 연 1500만 명씩 증가
- 한국은 2020년 이후 ‘전 국토의 도시지역화’ 예상
 - 우리나라는 인구증가 둔화와 도시인구 비중의 지속적인 증가 등으로 인해 2020년 이후에는 도시와 농촌의 구분의 의미가 거의 상실되는 ‘전 국토의 도시지역화’(95%의 도시율)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농촌인구는 2005년 약 480만 명에서 급속히 감소하고, 대도시 지역에 비해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으로써 기초단위 농촌정주체계의 와해와 함께 도시 또는 도시적 생활권으로 급속히 흡수될 것으로 전망

■ 러바니제이션(Rurbanization) 현상의 보편화

- 러바니제이션(Rurbanization) 의미
 - ‘러반(Rurban)’이란 용어는 ‘농촌(rural)’과 ‘도시(urban)’의 합성어이며, 러바니제이션(Rurbanization)은 도시적 환경과 농촌적 자연환경이 혼재하고, 도시생활인과 농촌생활인이 뒤섞여 살고 있는 상황을 표현하는 용어
 - 도시민들이 점차 농촌으로 거주지를 이전함에 따라 도시문화, 주택건축양식, 생활양식 등이 농촌의 전통문화 및 양식과 혼재되어 어우러진다는 것을 의미

6) 김선희 외(2010), 그랜드비전 2050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미래변화 전망 분석, 국토연구원, p.26

7) 김선희 외(2010), 전계서, p.27

8) 김정호 외(2010), 농업·농촌 2030/2050 비전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145

• 러바니제이션(Rurbanization) 현상의 보편화

- 근래 들어 러바니제이션은 도시성과 농촌성이 공존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역사회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 전통적 의미의 농촌마을은 해체되는 반면 문화예술 창작공간, 여행목적지, 고급화된 전원주택단지 등으로 다변화 될 것으로 예상
- 국내에서도 농촌으로 유입되는 가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러바니제이션 현상이 보편화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농통합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 계획 필요



[그림 2-1] 농촌마을의 다양한 미래상

※출처: 김정호 외(2010), 농업·농촌 2030/2050 비전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p.151

■ 귀농·귀촌⁹⁾의 확대

• 귀농·귀촌의 특성

- 최근 귀농·귀촌 가구의 증가는 전원생활 가치 추구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베이비부머 세대¹⁰⁾의 은퇴 증가 등으로 일시적 트렌드가 아닌 지속적 현상으로 정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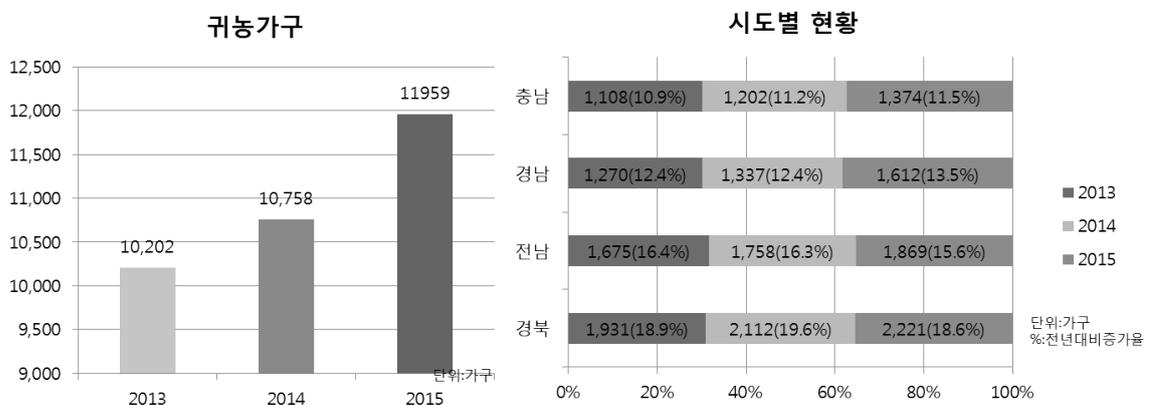
9) 귀농: 농촌 이외 지역에서 농촌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지역 구성원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전업 혹은 겸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 귀촌: 지역구성원의 일원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농업 이외 직종에 종사하며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는 생활양식

10) 한국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한국전쟁 이후 출산율이 급증하였던 1955~1963년에 출생한 696만명을 지칭

- 김창현(2011)에 따르면 대도시 거주 베이비부머 중 66.3%가 은퇴 후 농촌으로의 이주 의향이 있으며, 구체적인 이주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전체 응답자의 13.9%를 점유¹¹⁾
- 성주인(2012)에 따르면 도시민 중 63.7%가 농·어촌으로의 이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귀농·귀촌 가구의 정착지 선택 이유는 '고향이거나 연고가 있어서'(30.8%), '오염이 적고 자연환경이 아름다워서'(21.9%), '토지가격이 저렴해서'(10.8%) 등으로 나타난 것을 통해서도 향후 귀농·귀촌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¹²⁾
- 농업·농촌으로의 이주와 정착은 농촌인구감소,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인구이동은 농촌 지역의 인구, 사회, 경제적 등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침

• 귀농·귀촌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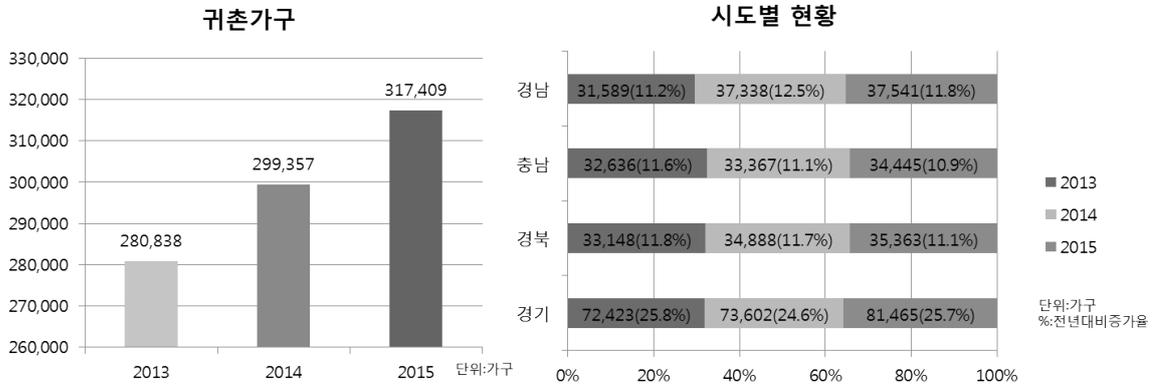
- 농림수산식품부(2012)¹³⁾에 따르면, 2004년 이후 귀농·귀촌 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 최근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귀농·귀촌 통계¹⁴⁾에 따르면, 귀농가구의 경우 2013년 10,202가구에서 2014년 10,758가구, 2015년 11,959가구로 점차적으로 증가
- 시도별 귀농가구의 경우 경북, 전남, 경남, 충남의 순으로 증가하였으며, 2015년 기준으로 전년대비 각각 18.6%, 15.6%, 13.5%, 11.5%로 증가 추세



[그림 2-2] 증가하는 귀농가구

- 귀촌가구가 2013년 280,838가구에서 2014년 299,357가구로 6.6%증가 하였으며, 2015년에는 317,409 가구로 전년대비 6.0%증가
- 시도별 귀촌가구도 경기, 경남, 경북, 충남의 순으로 증가하였으며, 2015년 기준으로 전년대비 각각 25.7%, 11.8%, 11.1%, 10.9%로 증가 추세

11) 김창현, 변필성(2011),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농촌활성화 전략 연구, 국토연구원
 12) 성주인, 김성아(2012), 도시민의 귀농·귀촌 실태와 정책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 농림수산식품부(2012), 귀농인구 집계
 14) 귀농귀촌종합센터, <http://www.returnfarm.com>



[그림 2-3] 증가하는 귀촌가구

도농복합지역의 확산

• 도농복합적 지역의 확장

- 향후 우리나라 국토의 상당비율이 도시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정 몇몇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는 현재와 같은 도시지역은 감소하고 국토 전체로 인구가 분산되는 지역 특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
- 또한 높아지는 도시민들의 농어촌 이주 의향과 귀농·귀촌가구의 증가 비율은 농촌지역의 확장 및 도시화가 예상되어 농촌과 도시로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지역은 감소될 것으로 전망
- 따라서 도시민의 거주지 이전은 도시문화와 농촌문화의 혼재를 발생시킬 것이며, 도시와 농촌의 지리적·사회적 구분이 무의미해져 산업, 생활양식, 문화, 환경, 경관 등에서 복합적인 특성을 지닌 도농복합지역의 확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 앞으로도 인구증가 둔화, 교통통신 발달, 국민의 가치관 변화에 따른 거주지 교외화 현상, 귀농·귀촌에 의한 역도시화가 가속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사회적·물리적 특성이 혼재된 지역에 맞는 개발과 환경조성이 필요

2. 도농복합지역의 개념 및 현황

■ 도농복합지역의 정의

• 도농복합 용어의 의미

- 도농복합, 도농혼합, 도농통합 등 여러 가지 유사한 용어가 혼용되고 있고 구체적인 의미나 강조점이 다소 상이
- 보편적으로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공동화 현상 등 농촌지역의 쇠락을 극복하고자 근본적인 사회, 경제, 정치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농촌과 도시를 유기적으로 연계·통합하여 서로의 기능을 보완한다는 의미¹⁵⁾를 가지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의미로서 ‘도농복합지역’이라는 용어 사용
-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설치에 관한 법률(1994)」에 따르는 법제상 ‘도농복합시’ 또는 ‘도농통합시’의 사전적 정의는 행정 구역 개편으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통합된 형태의 시 의미

※ 군(郡)이 시(市)로 승격하는 경우, 군에서 도시화된 읍(邑)의 리(里)가 동(洞)으로 바뀌며, 일반적으로 시내 동 지역이 시청 소재지가 되어 시의 도심 역할 수행

■ 출범배경

• 행정구역 개편

- 1990년대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도시와 농촌이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양자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정책 기저를 가지고 행정구역을 ‘시’와 ‘군’으로 구분하여 공공정책 수립 및 행정서비스 제공

※ 행정구역 개편 시, 광역단위에서는 도에서 광역시를, 기초단위에서는 군단위의 읍을 시로 분리 승격

- 도시-농촌의 행정적 분리는 급격한 산업화 및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불가피했던 거점식 공간개발과 도시기능 확충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정책 토대가 되었으나 성장의 중심에 있던 도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농촌지역)에서는 자생능력의 저하, 재정적 격차, 형평성 악화 등 상대적 결핍과 지역적 불균형을 경험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¹⁶⁾

• 도농통합정책 시행

- 80년대 후반부터 농촌의 안정성 및 경쟁력 회복, 행정효율성 확보를 위해 새로운 행정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도시와 농촌이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의 도농통합정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 1990년대 중후반에 본격적으로 도농통합정책을 시행

15) 정기방, 강정운(2006), 전계서, p.92

16) 배인명·이명석·최재승(2000); 오영석·이근수(2006); 윤기찬·장한나(2008)

■ 전개과정

• 1단계 : 출현

- 1994년 3월부터 1994년 8월, 6개월에 걸쳐 진행된 1차 개편에서 총 47개 시와 43개 군을 복합권유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33개 시와 32개 군에서 복합에 찬성하여 1995년 1월 1일 33개 도농복합시 출범

※ 시군복합권유대상지역 선정기준으로 역사적 동질성, 동일 생활권, 지형적 여건, 지역균형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였으며, 통합결과 인구가 50만명 이상이 되는 도시는 대도시문제 발생을 우려하여 통합대상에서 제외

• 2단계 : 조정

- 1994년 8월부터 12월, 5개월에 걸쳐 진행된 2차 개편에서는 광역시 지역 확장과 자치구의 분구, 자치단체 간 경계조정 및 1차 개편에서 무산된 지역의 통합을 재추진

• 3단계 : 추가

- 1995년 3월부터 5월, 3개월에 걸쳐 진행된 3차 개편에서는 시군 및 자치구 간 경계조정 및 추가 시군 복합 추진
- 1~3차 개편을 통해 출범한 40개의 도농복합시를 시군 복합 이전 전국의 총 68개시와 비교했을 때 평균 인구는 1.1배, 평균면적은 8배의 차이를 보임¹⁷⁾

[표 2-1] 1~3차 개편을 통해 출범한 도농복합 40개시

	평균인구	평균면적
도농복합 이전	20만8천명	738km ²
도농복합 이후	18만2천명 (▼1.1배)	90km ² (▼8배)

17) 정기방·강정운(2006), 「한국 도농복합정책의 규모경제 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v18(4), p.96

[표 2-2] 도농복합시 행정구역 개편과정

단계	개편기간	행정구역 개편 내용
1차 개편	1994.3 ~199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5년 1월 1일 33개 도농복합시 설치 * 33개 도농복합시: (경기)남양주시, (강원)춘천시/원주시/강릉시/삼척시, (충북)충주시/제천시, (충남)공주시/보령시/아산시/서산시, (전북)군산시/정읍시/남원시/김제시, (전남)순천시/나주시, (경북)포항시/경주시/김천시/안동시/구미시/영주시/영천시/상주시/문경시/경산시, (경남)창원시/마산시/진주시/통영시/밀양시/거제시
2차 개편	1994.8 ~1994.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남도 광양시 등 2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5년 1월 1일 2개 도농복합시 설치 * 경남지역 반발 하에 울산광역시 설치는 보류되어 울산시·울산군을 통합하였으며 1차 통합에 무산된 지역 중에서는 동광양시·광양군을 통합 •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9개 자치구 설치 및 특별시·광역시·도 간 관할구역변경 등에 관한 법률」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5년 3월 1일 읍·면·군의 광역시 편입 * 경남 양산군 기장읍·장안읍·일광면·정관면·철마면이 부산광역시, 경북 달성군이 대구광역시, 경기 강화군·용진군이 인천광역시에 편입
3차 개편	1995.3 ~199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평택시 등 5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5년 5월 10일 5개 도농복합시 설치 * 5개 도농복합시: 경기도 송탄시/평택시 평택군, 충남 천안시 천안군, 전북 이리시 익산군, 경남 삼천포시 사천군, 경남 김해시 김해군

※ 출처 : 정기방·강정운(2006), 「한국 도농복합정책의 규모경제 성과에 관한 연구」, p.96 참고 재작성

도농복합의 기준 및 현황

• 도농복합형태의 시 기준

- 지방자치법 제7조2항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해당할 경우,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지정 가능

※ 지방자치법

제7조(시·읍의 설치기준 등)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15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③~④ 생략

• 도농복합지역의 현황

- 1995년 1월 1일 33개의 도농복합시가 출범한 이후 2013년 9월 여주시, 2014년 7월 청주시가 출범하면서 56개의 도농복합시가 생겨났으며, 현재 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여 전국에 61개의 도농복합형태의 시 존재

[표 2-3] 도농복합시 현황

지역	도농복합시	대상	지역	도농복합시	대상	
광역자치단체	영남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 양산군 일부 + 진해시 일부	전라북도	계룡시	논산시 두마면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 달성군		당진시	당진군
		울산광역시	울산시 + 울주군		군산시	군산시 + 옥구군
	경기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 강화군 + 옹진군(대부면 제외) + 김포군 검단면		김제시	김제시 + 김제군
충청		세종특별자치시	연기군 + 공주시 일부 + 청원군 부용면 일부		남원시	남원시 + 남원군
	기초자치단체	경기도	남양주시		미금시 + 남양주군	전라남도
평택시			송탄시 + 평택시 + 평택군	광양시	동광양시 + 광양군	
용인시			용인군	나주시	나주시 + 나주군	
이천시			이천군	여수시	여수시 + 여천시 + 여천군	
파주시			파주군	경상북도	포항시	
안성시			안성군		구미시	구미시 + 선산군
김포시			김포군		경산시	경산시 + 경산군
광주시			광주군		경주시	경주시 + 경주군
화성시			화성군		김천시	김천시 + 금릉군
포천시			포천군		문경시	점촌시 + 문경군
양주시			양주군		상주시	상주시 + 상주군
여주시			여주군		안동시	안동시 + 안동군
강원도		강릉시	강릉시 + 명주군	영주시	영주시 + 영풍군	
		춘천시	춘천시 + 춘천군	영천시	영천시 + 영천군	
		원주시	원주시 + 원주군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시 + 거제군
		삼척시	삼척시 + 삼척군		밀양시	밀양시 + 밀양군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시 + 증원군		진주시	진주시 + 진양군
		제천시	제천시 + 제천군		통영시	총무시 + 통영군
	청주시	청주시 + 청원군	김해시		김해시 + 김해군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시 + 공주군	사천시		삼천포시 + 사천군	
	보령시	대천시 + 보령군	양산시		양산군	
	서산시	서산시 + 서산군	창원시		창원시 + 마산시 + 진해시	
	아산시	온양시 + 아산군	행정시	제주시	제주시 + 북제주군	
	천안시	천안시 + 천안군		서귀포시	서귀포시 + 남제주군	
	논산시	논산군				

3. 도농복합지역의 특성

1) 도농복합지역의 일반적 특성

■ 도농복합에 대한 논의

• 일반적 논의

- 도농복합이 필요했던 가장 큰 이유는 도농분리형 시 승격으로 방만해진 행정기구와 인력을 축소하고 공공서비스 공급의 규모경제를 실현하여 지방정부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도농통합이 반드시 행정비용과 공공서비스 생산비용 절감을 통하여 정부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고는 할 수 없음¹⁸⁾
- 도농복합(City-County Consolidation)의 역사가 70년이 넘는 미국에서는 아직도 도농통합의 규모경제와 효율성 향상효과에 대한 찬반논의와 검증작업이 계속되고 있음¹⁹⁾
- 우리나라에서 도농복합이 실시되어 복합시가 운영된 지 20년이 지났는데 복합의 효과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평가가 없었으며, 운영성과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논문으로 다루어져 옴
- 도농복합은 도농분리의 이원적 개념에서 벗어나 도농을 하나의 유기체로 파악하고 도농의 공존적 발전을 도모하지만, 도농복합의 지역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이외에도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함

• 긍정적 측면의 논의

- 도농복합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국내연구에서는 도농복합 전후의 인구변화를 통해 도농복합이 지역 간 격차를 감소하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하였고²⁰⁾, 도농복합 이후 주민생활권(정주체계)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였으며²¹⁾, 행정비용의 절감을 통한 행정능률의 제고²²⁾와 공공서비스 생산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줌²³⁾
- 또한, 외부효과를 내부화함으로써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도시와 농촌 간에 균형 있는 발전을 가져올 수 있으며²⁴⁾, 주민생활의 편의, 광역행정의 효율적 수행²⁵⁾ 등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논의하고 있음

18) 김재홍(2000), 도농통합 행정구역 개편이 지방정부의 효율성 변화에 미친 영향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9(2), p.48
 19) 김재홍(2000), 전개서, p.47
 20) 홍준현(2005), 시·군 통합이 지역 내 및 지역 간 균형성장에 미친 효과,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1), p.321
 21) 박희정(1994);임성일(1994);한원택(1995)
 22) 최양부, 윤원근(1988), 도·농 통합적 시·군행정구역의 설정방안, 지방행정연구, 8(2), p.87-88
 23) 박희정(1994);이규환(1994);전석홍(1994);권선택(1994);김주숙·김은영(2003)
 24) 박희정(1994);이병철(1994);임성일(1994);장태욱(1994);홍준현·이상윤(2003)
 25) 최진수(2001), 시·군 통합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도시서비스 공급부문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10(1), p.55

• 부정적 측면의 논의

- 도시와 농촌주민들의 이질적인 행정서비스 욕구가 도시행정 중심의 업무처리로 농촌지역이 소외될 가능성이 높고 기초자치단체의 규모가 확대되어 주민의 행정접근성이 떨어지며²⁶⁾, 농촌지역의 낮은 이익대표기능을 고려할 때 균형개발을 위한 자원배분과정이 도시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음²⁷⁾
- 주로 도농 간의 주도권다툼이나 지역 간의 이질성, 이질적인 이해관계양상들이 문제가 되어 나타나는 부정적인 측면들이 대부분임

2) 농촌지역의 범죄 특성

■ 도시 및 농촌지역 범죄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 농촌 및 도농복합지역의 범죄에 관한 연구

- 1990년대부터 도시화에 따른 범죄특성에 관한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2000년대부터는 도시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에 대한 연구가 범죄학뿐만 아니라 도시학 분야에서도 등장

[표 2-4] 도시범죄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주요내용(특성)
엄기문(1990)	도시환경 및 타인과의 접촉과정에서 상호작용을 하고 범죄를 배우게 됨
최영일(1992)	도시화에 따른 범죄적인 특징
정기섭(1998)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의 범죄적 경향
정봉휘(1998)	도시사회의 모순이 생산하는 범죄는 더욱 증가될 전망
박현호(2004)	CCTV 활용 방법에 따라서 도시의 범죄예방에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음
장동국(2004)	공간구문 기법에 근거하여 도시구조의 공간적 특성을 활용한 도시범죄예방을 위한 건축 설계
류중석(2004)	도시의 범죄예방을 위한 장기적인 환경개선 프로그램 마련 및 설계지침 법제화
김동근(2007)	토지이용행태분석을 통해 도시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접근한 도시범죄예방을 위한 대책
문태현(2009)	실증적인 자료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도시의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조성

※출처: 허경미(2011), 농촌범죄학적 관점에서의 농촌범죄와 도시범죄의 비교, 한국경찰연구, p.155 참고 재작성

26) 김주숙, 김은영(2003), 특집:한국 농촌의 미래: 도·농 복합시 농촌주민의 갈등요인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구미, 익산, 안성시를 중심으로-, 한국농촌사회학회, 13(1), p.918

27) 오영석, 이근수(2006), 삶의 질 관점에서 본 도농통합의 형평성 효과:경주시 사례,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0(4), p.162

- 이후, 기존의 도시범죄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농촌범죄를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농촌범죄학²⁸⁾이 등장하였고,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등에서는 농촌범죄학계를 중심으로 농촌범죄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
- 농촌지역의 구조 및 가정, 사회환경 등의 변화가 농촌범죄의 적극적인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농촌범죄의 발생률도 도시에 비견된다는 연구들도 등장²⁹⁾
- 농촌범죄와 도시범죄 특성은 두 지역의 지리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의 차이로 인해 상이하지만, 농촌범죄와 도시범죄간 특성비교 및 유발요인에 대한 비교연구는 미흡

[표 2-5] 농촌범죄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주요내용(특성)
Mapheus Smith(1937)	도시에 가까워질수록 범죄발생률의 차이를 보임 -> 도시와 농촌의 범죄차이를 밝힘
Marshall Jones(1939)	메사추세츠 농촌지역에서 발생한 범죄는 대부분 이주자 및 외지인들의 행위
Fischer(1980)	인구수가 적은 지역이 커져갈수록 폭력범죄 및 살인범죄의 발생률도 높아져,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범죄발생률도 함께 높아진다는 비례성을 확인
Williams(2001)	(1980~1997)도시사회 청소년범죄 발생률은 감소한 반면, 농촌사회 청소년범죄 발생률은 오히려 높아짐
Ivry(2008)	미국 대도시의 범죄문제에 대한 연구결과로 축적된 것이므로 사회적, 정치적, 지리적, 문화적 환경이 다른 농촌지역의 범죄문제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
Donnermeyer, Dekeseredy(2008)	농촌범죄의 발생 원인에 대한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연구의 필요성
Pruitt(2009)	농촌의 목가적인 환경 및 동경, 도시보다는 안전할 것이라는 도시민들의 이상적인 희망 등으로 농촌지역의 주민들의 의식, 문화 등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가 오늘날의 농촌사회의 범죄현상
Bridgell(2009)	커뮤니티가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범죄발생률은 높아진다고 주장
허경미(2011)	살인, 강동, 강간, 폭력, 절도 등의 5대 범죄에 대한 농촌과 도시의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추이를 통해 농촌이 서울을 제외한 도시보다도 발생률이 더 높음
김현중(2011)	농촌지역에 범죄다발지역이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낙후된 농촌지역일수록 범죄가 발생할 확률이 높음

※출처: 허경미(2011), 농촌범죄학적 관점에서의 농촌범죄와 도시범죄의 비교, 한국경찰연구, pp.150 참고 재작성

■ 농촌지역의 범죄불안감

• 범죄불안감의 위험성

- 범죄문제란 크게 범죄발생 자체에 관한 문제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로 대별해서 생각할 수 있으며, 범죄발생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범죄로 인한 두려움임³⁰⁾

28) 기존의 사회학 또는 범죄학전 이론 및 연구경향에 대한 반발로 새롭게 범죄학의 연구과제로 등장하기 시작한 페미니즘 및 포스트모더니즘 등과 같이 주류 사회학에서 소외되었던 영역들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는 비판적 범죄학이라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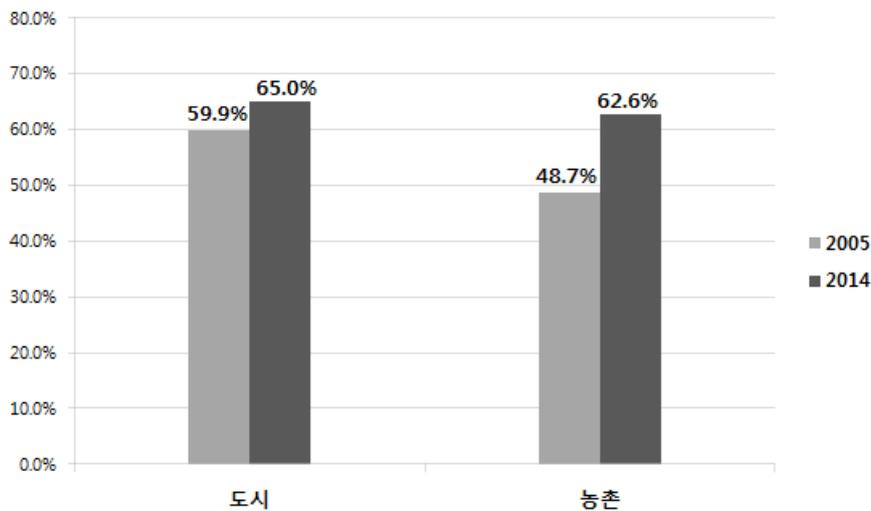
29) 허경미(2011), 농촌범죄학적 관점에서의 농촌범죄와 도시범죄의 비교, 한국경찰연구, pp.145

30) 이경훈(2008), 범죄로부터의 안전 - 도시주거의 새로운 가치, 건축, 52(1), pp.49-52

-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피해자가 더 오랜 기간 동안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측면에서 실제 범죄보다 그 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도시 및 농촌지역 범죄불안감

- 2005년과 2014년에 도시와 농촌 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조사결과 도시에서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59.9%에서 65.0%로 5.1% 증가한 것에 반해, 농촌에서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48.7%에서 62.6%로 13.9% 증가하였음
- 도시와 농촌 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농촌이 도시에 비해 약 2.7 배 높은 증가율을 보임
- 이는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통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감소가 시급함을 의미



[그림 2-4] 도시와 농촌 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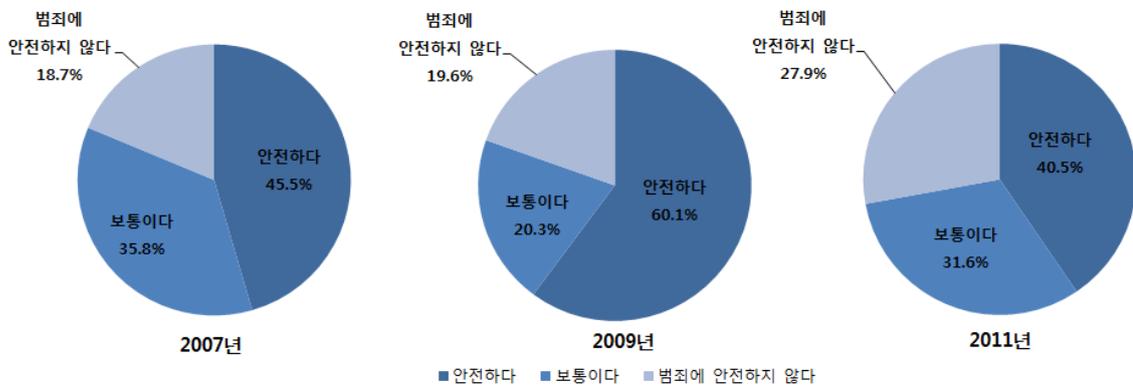
- 또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살인범죄 패턴의 비교분석 결과, 도시지역에서는 연령구성이나 인종의 다양성이 범죄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며, 농촌지역에서는 인구변화가 범죄발생의 주요 영향요인임
- 이는 지역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해주는 결과이며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혼재한 동농복합지역 특성을 분석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차별적인 대응책 제시가 필요함을 의미

31)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2005), 사회조사보고서(2014)

32) 정진성, 박현호(2010), 지역사회의 구조적 특성이 살인범죄에 미치는 영향-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음이향 회귀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농촌지역의 범죄불안감

-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의식조사³³⁾에서 농촌이 범죄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007년에는 18.7%, 2009년에는 19.6%, 2011년에는 27.9%로 증가
- 농촌의 범죄안전에 대해 안전하다고 느끼거나 보통이라고 느끼는 응답자 비율에는 변동이 있으나 범죄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지속적으로 증가



[그림 2-5] 농촌의 범죄안전에 대한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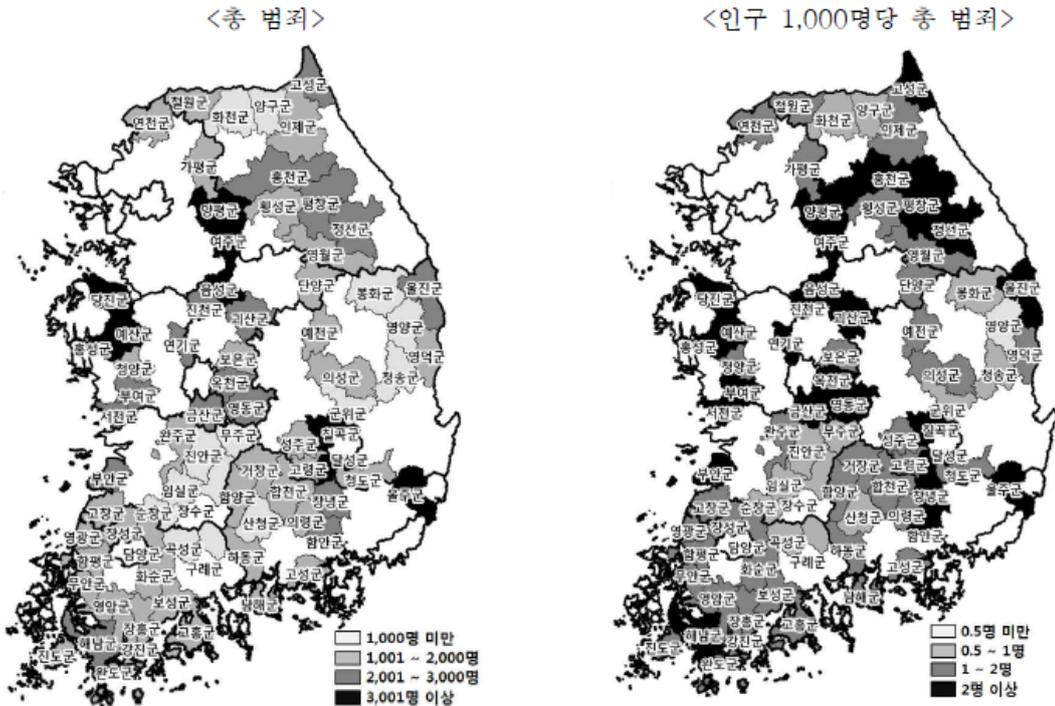
■ 농촌범죄의 위험성

• 농촌지역 범죄발생률 증가

- 생활양식 노출이론(Lifestyle-Exposure Theory)에 따르면, 범죄피해자가 될 확률은 잠재적 범죄자에게 노출되는 횟수에 비례하므로, 상업 및 주택지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지역의 경우, 사람 간 접촉기회가 적은 농촌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범죄발생률 증가
- 하지만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의 인구 이동에 따른 농촌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 현상의 심화로 인해 농촌지역이 범죄로부터 쉽게 노출되며 범죄예방 및 방어능력이 현저하게 감소
- 2005년도 농촌지역 범죄건수 및 인구 1,000명당 범죄건수를 도시화한 결과³⁴⁾, 총 범죄 발생건수가 높은 농촌지역은 울주군(6,303건), 당진군(5,562건), 달성군(5,020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영양군, 순창군, 장수군, 양구군 등 농촌성이 강한 지역의 범죄발생건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반면, 인구 1,000명당 범죄건수의 경우 강원도 6.3건, 충청북도 5.0건으로 타 지역에 비해 높은 발생건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도시지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있는 울주군(6.3건), 당진군(5.5건), 달성군(5.0건) 순으로 높게 나타남

33) 농촌진흥청(2012), 농촌생활지표조사

34) 김원중(2011), 농촌의 범죄다발지역과 범죄발생 요인 분석, 대학원생 논문대회 우수논문집, 제7권, pp.101-126



[그림 2-6] 농촌지역 총 범죄의 공간적 분포(2005년)
 ※출처: 김현중(2011), 농촌의 범죄다발지역과 범죄발생 요인 분석

• 농촌지역 범죄예방 환경설계 필요

-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범죄발생률이 낮은 것처럼 보이나 인구가 도시에 집중되어있는 우리나라 특성상 인구대비 범죄발생률은 오히려 농촌지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도시에 국한된 범죄예방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및 농촌에 인접한 지역에 적합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필요

■ 도농복합지역에서의 범죄

• 농촌지역보다 높은 범죄발생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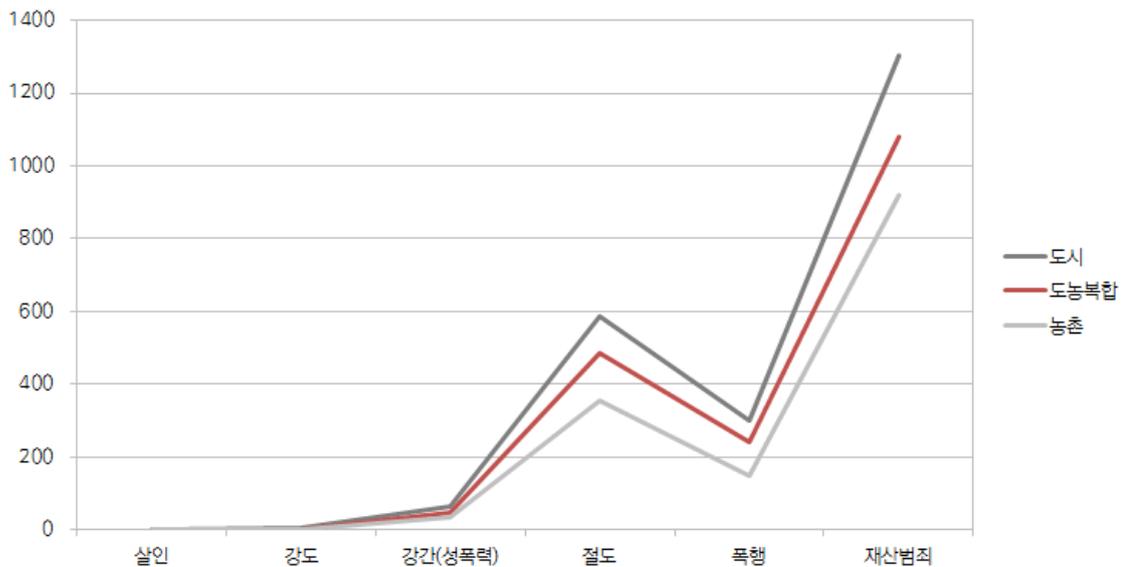
- 대검찰청의 2015 범죄분석자료(2014년 범죄통계)를 토대로 전국 61개의 도농복합도시와 도시지역, 농촌지역(시·군 단위)의 인구 10만 명당 5대범죄 발생건수 비교 분석결과, 도시지역에 비해 도농복합도시의 인구 10만 명당 범죄발생건수는 상대적으로 낮으나 농촌지역에 비해서는 높음
- 도시화와 외부인의 유입 등 급격한 사회변화를 겪고 있는 도농복합도시는 사회구성원의 빈번한 교체로 지역사회의 결속을 약화시키며, 이로 인해 범죄를 억제하는 것으로 거론되는 '비공식 사회통제(informal social control)'의 약화 우려

• 도농복합지역의 범죄 요인

- 낮은 인구밀도, 난개발로 인한 도시구조, 취약한 방범시설물 등의 물리적 특성과 지역사회 공동체의 낮은 결속력 등의 사회적 특성으로 인해 범죄발생 시 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범죄일 가능성이 높음
- 또한 도농복합지역의 신산업단지 입지로 인한 단기거주노동자의 불법체류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집단거주지(ethnic enclave)가 장기적으로 도농복합도시의 범죄요인으로 거론
- 이에 도농복합지역의 물리적 · 사회적 취약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범죄예방 대책 마련 및 사회 안전망 구축 필요

[표 2-6] 도농복합도시, 도시, 농촌지역의 인구 10만 명당 5대범죄 발생건수 평균 비교

구분	도농복합도시	도시	농촌
살인	2.08	1.71	2.80
강도	2.93	3.84	2.27
강간(성폭력)	47.51	63.91	36.46
절도	486.57	588.75	353.38
폭행	241.68	302.20	149.73



[그림 2-7] 도농복합도시, 도시, 농촌지역의 인구 10만 명당 5대범죄 발생건수 평균 비교

3) 도농복합지역의 사회적, 행정적, 경제적 특성

■ 사회적 특성

• 공동체 의식 저하

-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서로 이질적인 기능과 문화가 부딪치면서 지역사회차원의 사회적·경제적 격차 및 배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는 심각한 지역문제를 야기³⁵⁾
- 다수의 연구자들이 이러한 지역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역주민들의 낮은 공동체 의식과 지역사회 참여수준을 지적³⁶⁾

• 도농주민간의 갈등 심화

- 도농복합 출범이후 기존의 통합취지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사회복지자원의 집중 현상, 기존 지역주민과 새로 유입된 주민간의 갈등구조, 사회복지관련 재정 확보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발생³⁷⁾
- 장기간 동일 지역에 거주하는 원주민과 같은 인구집단과 도시 및 농촌지역의 인위적 정책결합을 통해 유입된 인구집단 간의 생활영역 전반에 걸친 격차는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수준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보고되는 등 타 지역에 비해 도농복합지역의 지역사회 참여수준은 심각한 수준³⁸⁾

[표 2-7] 도농복합의 특성(사회·정서적 측면)

연구자	주요내용(특성)
이규환(1994)	행정의 주민 대응성 감소
이재원(1995), 임승달(1995)	
김주숙, 김은영(2003)	통합 후 농촌주민들의 불만과 소외감 증가, 도농주민들의 갈등
김복조(2003)	주민의 일체감과 연대 의식 약화
윤기찬, 장한나(2008)	공동체 의식과 지역사회 참여수준 저하
배은석, 박해궁(2016)	도농주민간의 갈등 심화, 사회복지관련 재정 확보의 어려움

※출처: 윤기찬, 장한나(2008), 도농 통합에 따른 효과에 관한 주민 인식의 차이에 관한 연구: 지역 간 이질성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v(21), p.96-97 참고 재작성

35) 배은석, 박해궁(2016), 도농복합지역의 주민의 공동체 의식이 지역사회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도시와 농촌 지역주민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v.58, p.175

36) 윤기찬, 장한나(2008);이영하(2010);신영선(2012)

37) 배은석, 박해궁(2016), 전거서, p.176

38) 배은석, 박해궁(2016), 전거서, p.174-175

■ 행정적 특성

• 지역 간 불균형 서비스 제공

- 도농통합이후 도시서비스 공급수준, 도시서비스의 적정성과 도농 간 도시서비스의 공급격차 등이 통합 전과 변화가 없고 도시지역에 도시서비스가 집중되어 있으며³⁹⁾, 도농 간 삶의 질에 관한 만족도의 격차가 도농복합 이후에도 오히려 격차가 증가⁴⁰⁾
- 행정서비스 공급의 지역 간 불균형 즉, 농촌지역의 소외를 초래⁴¹⁾하고 행정 대응성을 감소시킬 수 있음⁴²⁾

[표 2-8] 도농복합의 특성(생활서비스 측면)

연구자	주요내용(특성)
박희정(1994)	규모의 경제,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 일치, 외부효과의 내부화
이규환(1994)	행정의 주민대응성 감소
임성일(1994)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일치, 외부효과의 내부화
이수만(1995)	행정서비스공급 지역 간 불균형
김광식(1995)	지역경제기반의 약화, 규모의 불경제, 행정서비스공급의 비효율성
홍준현(1997)	비용절감효과 미미, 공공서비스 공급의 불균형
최진수(2001)	도시서비스 공급수준, 도시서비스의 적정성, 도농 간 도시서비스의 공급격차의 변한 없음, 도시지역의 도시서비스 집중
오영석, 이곤수(2006)	통합 후 도농 간 삶의 질에 관한 만족도의 격차 증가
이재기, 조석주(2000)	장기적으로 볼 때 시·군의 통합에 의한 행정구역개편은 우리나라 지방행정의 발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
Blair, Staley, Zhang(1996)	항상 경제적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은 아님

■ 경제적 특성

• 효율성 증가

- 도농복합이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지방정부의 효율성을 증가시킨다는 긍정적 견해와 복합시 정부는 경제개발과 도시계획을 광역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⁴³⁾

• 지역경제 성장

- 도농복합시는 경제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독립부서를 통해 소규모의 개발정부들보다 우월한 조정능력과 전문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광역권을 하나의 정부로 통합할 경우 광역권 전체의 지역경제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⁴⁴⁾

39) 최진수(2001), 전계서, p.48

40) 오영석, 이곤수(2006), 전계서, p.176-177

41) 박희정(1994); 이수만(1995)

42) 이규환(1994); 이재원(1995); 임승달(1995)

43) Horan, Taylor(1977);DeGrove(1973);Rigos(1995)

44) Fleishmann, Green(1991);Rusk(1993)

• 지역경제기반의 약화

- 도농복합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도농복합이 행정비용 절감과 규모의 경제효과, 경제개발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지역 간 불균형 및 지역경제기반의 약화, 비용절감효과의 미미, 규모의 불경제 등을 부정적인 효과로 지적⁴⁵⁾
- 도농복합지역은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로 전락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농촌지역의 인구가 계속 유출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도시지역의 재정기반을 약화시키고 농촌지역의 경제활동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일부 존재⁴⁶⁾

[표 2-9] 도농복합의 특성(경제적 측면)

연구자	주요내용(특성)
최양부, 윤원근(1998)	행정비용절감, 행정능률제고
박희정(1994)	규모의 경제,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 일치, 외부효과의 내부화
이규환(1994)	규모의 경제
전석홍(1994), 권선택(1994)	규모의 경제
이병철(1994), 장태욱(1994)	외부효과의 내부화
김광식(1995)	지역경제기반의 약화, 규모의 불경제, 행정서비스공급의 비효율성
한원택(1995)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 일치
홍준현(1997)	비용절감효과 미미, 공공서비스 공급의 불균형
김대원(1997)	생산성 증대효과 미약
김재홍(2000)	지방정부의 효율성 변화에 대체로 긍정적 영향
배인명, 이명석, 최재송(2000)	행정비용절감과 지역간 형평성에 있어 도농복합효과 거의 없음
홍준현(2005)	지역 간 격차의 감소
최홍석, 정재진(2005)	재정적 비용절감효과
이승철(2010)	군민의식 긍정적, 행정서비스 만족도 개선
Horan, Taylor(1977), DeGrove(1973)	규모의 경제를 통한 정부의 효율성 증가
Rigos(1995)	복합시 정부는 경제개발과 도시계획을 광역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잠재력 제공
Fleishmann, Green(1991)	도농복합지역은 경제개발과 관련된 업무에서 보다 우월한 조정능력과 전문성을 제공
Rusk(1993)	광역권을 하나의 정부로 통합할 경우 광역권 전체의 지역경제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Ostrom(1972), Blomquist, Parks(1995)	규모의 경제효과 미미, 효율증가의 실증적 증거를 찾을 수 없음
Carr, Feiock(1999)	도농통합이 경제개발을 향상시킨다는 아이디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자료가 없음

※출처: 윤기찬, 장한나(2008), 도농 통합에 따른 효과에 관한 주민 인식의 차이에 관한 연구: 지역간 이질성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v.21, p.96-97 참고 재작성

45) 윤기찬, 장한나(2008), 전거서, p.95

46) 이승철(2010), 도농 복합시의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공공 인적자원과 정책 v.3, p.118

■ 종합적 논의

• 공동체 의식 향상 및 주민간의 화합을 위한 주민 일체감 형성 필요

- 재정적·경제적 측면에서 도농복합시의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장기적으로 볼 때 높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 예상되는 반면, 사회적 측면에서는 특히 통합으로 인한 주민의 공동체 의식은 별로 높지 않음
- 추후 도농복합시 거주민의 일체감 형성을 위한 행사나 이벤트 등을 개최하여 주민일체감을 위한 분위기 조성 필요
- 도시화가 크게 진행되고 있는 도농복합시는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마을의 안전을 지키는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통해 지역의 자긍심과 애착심을 향상시켜 일체감의 증진을 도모할 필요

• 행정서비스의 불균형 해소를 통해 농촌지역 주민의 소외감 완화

- 도농복합 후에도 행정서비스가 도시지역에 집중되는 문제는 농촌지역 주민의 소외감을 증대시키고 행정 및 공적영역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특히 범죄에 대한 경찰서비스의 부족은 주민불안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에, 이에 대한 해결책 제시를 통해 안정감을 높여야 함
- 일련의 해결책 중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통해 주민들의 범죄불안감을 해소하고, 행정 및 공적영역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음

• 지역경제 불균형 해소를 통해 농촌지역민들의 자생력 강화

- 도농복합의 의의는 도농간 격차를 해소하고 도시에 제공되는 서비스와 경제적 혜택을 농촌지역에도 골고루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였으나, 오히려 도농복합지역의 농촌이 일반 농촌에 비해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으로 전락함
- 이에 따라 도농복합시의 농촌지역이 황폐화되고 거주민이 줄어들어 인하여 각종 범죄율이 증가할 우려가 있음
-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농복합시의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범죄예방 환경조성이 필요

※ 일본 도농복합지역의 특징

일본의 시정촌(市町村)합병(合併)과 한국 도농통합정책의 유사점

- 일본 시정촌 합병의 의의
 - 일본의 시정촌 합병정책 중에 한국의 도농통합정책과 비슷한 의도로 행정구역의 합병이 된 사례를 확인 가능
 - 일본의 시정촌 합병은 농촌과 도시의 장단점을 서로 보완하여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인구피라미드의 재구성과 함께 활용 가능한 에너지 자원의 활용,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비즈니스 모델 구축 등을 포함
- 장점: 합병으로 인한 행정의 고도화 및 지역 이미지 개선⁴⁷⁾
 - 합병으로 인하여 행정의 고도화와 전문화가 이루어지며, 도시의 재원과 인력을 활용하여 고도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또한,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경제 활성화나 청년층의 정착, 관광객 유치 등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 가능
 - 광역적인 시점에서 교통 기반이나 각종 공공시설의 정비, 종합적인 토지이용의 추진 등으로 일체적인 지역 만들기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며, 환경문제와 관광 교류 진흥 등 광역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영역에서도 일체적 대응이 가능
- 단점: 주변 지역과의 격차심화 및 지역 정체성의 위협⁴⁸⁾
 - 합병된 지역 주변과의 격차가 벌어지는 경우가 다수 발생 가능
 - ※ 비교적 큰 도시와 작은 지역이 합병했을 경우, 작은 지역의 산업은 경시될 수 있으며, 또한 큰 도시 하나의 인구가 다른 마을의 인구 보다 많은 경우 큰 도시가 의회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음

혼주화(混住化)·혼주사회(混住社会): 농업지역의 도시화

- 혼주화, 혼주사회의 정의⁴⁹⁾
 - 일반적으로 농업지역에 도시화가 진행되어, 농지의 전용 및 농가의 겸업화·비 농가화 등 농촌과 도시가 혼재하는 상태
 - 근래에는 도시 주민의 별장 이용 및 그린 투어리즘 등의 잠정적인 거주와 이주에 의한 넓은 의미에서의 혼주화 등장
- 혼주화 비율 “70%이상”: 농촌의 도시화로 인한 사회구조의 변화⁵⁰⁾
 - 관내의 농업 마을에서 혼주화 비율(농업마을의 총 가구에서 차지하는 농가 이외의 가구의 비율)이 “70%이상”인 농업마을이 54%를 차지함
 - 농업 지역 유형별로 보면, 도시적 지역에서는 혼주화 비율이 “70%이상”, 농업마을이 83%, 평지 농사 지역에서는 46%, 중간 농업지역에서는 37%, 산간 농업지역에서는 41%를 차지하고 있음
- 혼주화에 따른 문제점과 시정촌 합병으로 인한 문제점 인식⁵¹⁾
 - 시정촌의 합병으로 외부 취락의 인구감소, 취락기능의 저하, 중심취락으로의 인구집중으로 인한 주택용지 수요의 증가 등 새로운 과제가 예상됨
 - 이를 위해 새로운 커뮤니티의 재편 및 계획적인 토지이용에 의한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의 추진 등으로 시정촌 합병에 의한 영향을 완화하고, 자연환경의 보존, 수자원의 함양, 질서 있는 토지이용으로 엮어나가는 양호한 경관 형성 등 농촌의 활성화를 추진함

47) 일본 위키백과(<https://ja.wikipedia.org>)

48) 일본 위키백과(<https://ja.wikipedia.org>)

49) 일본 위키백과(<https://ja.wikipedia.org>)

50) 農林水産省「2005年農林業センサス付帯調査農村集落調査」

51) 農林水産省農村振興局(2003), 農村整備について, p.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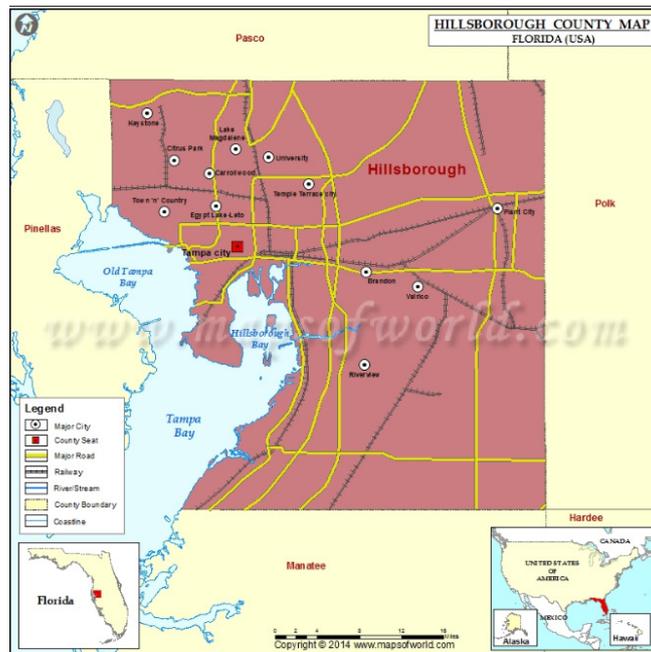
4. 도농복합지역에서의 범죄예방 환경조성 관련 사례 및 시사점

1) Comprehensive Plan for Hillsborough County Florida- Future Land Use Element

■ 계획 개요

• 계획 배경

- 힐스보로(Hillsborough)주는 인구60만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농촌지역에서 교외지역에 이르는 다양한 토지이용과 지역 커뮤니티의 특성을 보임



[그림 2-8] 힐스보로주 위치

※출처: <http://www.mapsofworld.com/usa/states/florida/counties/hillsborough-county.html>

- 힐스보로주의 종합계획은 다양한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세부적이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여러 계획을 제안
- 미래토지이용계획(Future Land Use Element)은 힐스보로 종합계획의 필수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계획으로 토지이용계획을 통해 종합계획의 세부 계획들에 영향을 미침

※ 힐스보로 종합계획은 미래토지이용계획(Future Land Use Element), 교통계획(Transportation Element and Maps), 주택계획(Housing Element), 커뮤니티계획(Livable Communities Element), 학교시설계획(Public Schools Facilities Element) 등으로 세분화

52) <http://www.planhillsborough.org/hillsborough-county-comprehensive-plan/>; Hillsborough County(2008), Comprehensive Plan for Unincorporated Hillsborough County Florida Future Land Use

- 토지이용계획의 기본 컨셉은 종합계획과 미래의 토지이용에 관한 도시의 물리적 구조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공하며, ① 활동중심지와 도로축, ② 생활 및 근무환경에 적합한 도시, 교외, 농촌지역의 선택, 이 두 가지 특징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

• 계획 목적

- 미래토지이용계획의 주 전략은 지속성장관리전략(Sustainable Growth Management Strategy)으로 환경 오버레이(Environmental overlay), 도시 서비스 지역(Urban service area), 농촌지역(Defined rural area)의 세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
- 힐스보로의 농촌지역은 농업, 광업 및 대규모 주거개발지를 위한 지역이며, 전통적으로 지역사회의 중심 역할을 수행한 지역 커뮤니티 존재
- 이러한 농촌지역의 환경과 다양하고 독특한 지역사회의 특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농촌지역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커뮤니티 기반의 계획(Community-based planning)”과 도시지역과 차별화되는 농촌디자인가이드라인에 대한 중요성 강조
- 또한 농촌지역 내 주거지 개발과 무분별한 도시확장을 막기 위해 주거, 상업, 고용, 생활시설과 관련된 인프라 시설 개발에 관한 내용 제공

[표 2-10] 미래토지이용계획 목표의 일부

목표
• 무분별한 도시 확산을 통제
•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명확한 구분
• 도시의 지리적 범위 설정을 위한 도시서비스지역을 배치하여 미래의 도시형태를 정의
• 농촌지역의 특징 보존: 농경지 유지, 자연환경 및 생태 보전, 농촌의 라이프스타일 유지

■ 주요 내용

• 도시, 교외, 농촌지역의 특성 구분

- 농촌지역의 신규 주거지개발을 위해 개발지의 주변 지역특성과 개발패턴을 반영하여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커뮤니티 디자인 제시
- 커뮤니티 디자인은 힐스보로 종합계획에서 강조하는 도시, 교외, 농촌지역 라이프스타일의 차이점을 구분·정리하여 각 지역특성의 다양성과 이로 인한 계획의 유연성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 교외, 농촌지역 간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디자인 요소로 활용 가능

[표 2-11] 도시, 교외, 농촌지역의 특성 구분

구분	도시	교외	농촌
개발 패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집하고 상호 연결된 공간 조직 • 미개발 공간이 거의 없음 • 밀집된 거리 • 상대적으로 작은 면적의 블록 • 주거 및 상업용도가 혼합된 중심지 • 고용 및 공공서비스 중심지 • 소규모의 오픈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와 농촌 사이 지역 • 도시보다 덜 밀집된 지역패턴 • 개발가능공간 존재 • 도시보다 작은 규모와 접근성이 떨어지는 중심지 • 넓은 면적의 오픈 공간(교외지역으로의 과도기적 특성의 토지이용으로 인한 갈등 가능성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관련 산업용도가 대다수 • 다수의 미개발 지역 존재 • 분산된 지역패턴 • 넓게 분산된 소규모 유통시설 • 농업, 광업 중심의 고용환경 • 대규모의 토지 집약적 공공시설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47m² 당 9채 이상의 주택 밀도 • Lot 사이즈는 7,000 평방피트 이하 • 전통적인 주택 패턴(현관, 뒤편 차고가 있으며 길가에 있는 집) • 다양한 주택 유형 (다가구, 1인가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47m² 당 2-9채의 주택 밀도 • Lot 사이즈는 5,000 평방피트 이상 • 동일한 규모 및 유형의 개발 가능성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47m² 당 5채 이상의 주택 밀도 • 다양한 주택 유형(전통주택, 조립식 주택, 숙소 등) • Lot 사이즈는 1 에이커 이상 • 불규칙한 패턴의 주거지역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간격으로 배치 된 간선도로 및 내부도로 • 격자패턴의 가로 • 이용이 용이한 대중교통 서비스 • 도시의 거리 풍경과 보행친화환경 및 보행자 편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자동차 의존도 • 제한된 이용만 가능한 대중교통 서비스 • 도시에 비해 적은 보행자 편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계획적인 교통 네트워크 • 넓게 분포된 도로 • 비계획적인 가로 • 낮은 상호 연결성 • 제한된 대중교통 서비스 • 부족한 보행자 편의시설
공공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종류의 공공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에 비해 적은 공공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족한 공공 서비스

• 커뮤니티 차원에서의 교외와 농촌의 목표, 목적 및 정책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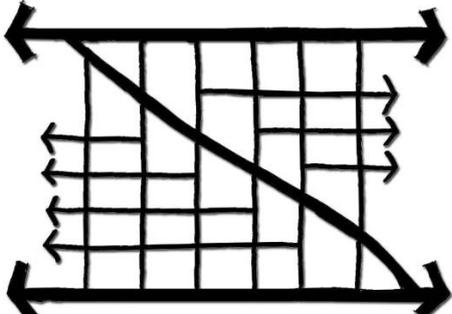
[표 2-12] 커뮤니티 차원의 주거 특성 구분

구분	교외	농촌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와 농촌 지역의 대안으로 기존의 교외지역을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와 교외 지역들의 대안으로써 기존의 농촌 지역을 보존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교외에 조성되는 주거지역의 광범위한 복합용도를 위한 디자인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커뮤니티의 역사적 요소로서의 중요성, 지역의 경제적 중요성을 위해 기존 농업용도지역을 지원
정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 주택 부지 개발 시 자연지대 보존 주택 유형의 다양성을 장려하기 위해 부지 크기 다양화 및 자연 자원을 고려
예시	 <p data-bbox="512 1444 729 1473">교외지역의 주거단지 패턴</p>  <p data-bbox="512 1933 729 1962">교외지역의 주거단지 패턴</p>	 <p data-bbox="1011 1444 1275 1473">농촌의 중요한 특성인 자연지역</p>  <p data-bbox="1011 1933 1275 1962">농촌의 중요한 특성인 자연지역</p>

• 지역차원에서의 도시 및 교외, 농촌지역의 목표, 목적 및 디자인 정책 제시

[표 2-13] 지역차원의 주거 특성 구분

구분	도시 및 교외	농촌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 및 교외 지역에서 신개발 또는 빈 부지를 활용한 복합 용도의 주택 개발 장려 힐스보로우에서 지정한 도시화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도시 패턴을 준수한 개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체적인 농촌지역의 특징을 반영한 개발을 위해 토지개발규정에서 기준 제공 농촌지역 개발을 위한 토지개발규정 내에서 농촌특징을 반영한 기준 제시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 및 교외 지역의 신개발 및 재개발을 위해 융통성 있는 도시 디자인기준 고려 도시의 특징을 지녔거나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은 토지개발과 다른 규정의 적절한 변경을 결정하기 위하여 커뮤니티 계획을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2년까지 커뮤니티 기반의 계획 프로그램을 통해서 각각의 농촌 커뮤니티를 위해 사용될 토지개발규정의 개발기준을 정의 2012년까지 상업적 개발을 농촌 환경에 통합시키기 위해 기준을 정의하며, 이를 통해 농촌 환경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규모의 고용 창출을 도모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적인 교외지역개발을 제외한 토지개발법규의 개정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는 향후 도시화 지역 내의 주택개발 또는 재개발이 더욱 도시적인 특징을 띠게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좁은 주택가 - 도로와 가까이 위치한 주택들 - 집 현관의 지역권 - 건물 후면에 위치한 창고 - 골목길을 형성하는 블록 형태 - 노인용 별채 등을 고려 기존의 교외개발패턴 내에서 디자인의 유연성을 위한 하위 규정 개선 중심지 신개발의 규모와 형태를 통제하기 위한 법규 고려 도로의 격자형 네트워크 또는 수정된 격자형 위주로 커뮤니티를 계획하여 지역간 상호연결을 개선 도로 네트워크는 모든 주민들에게 공동체적 중심 공간, 사회적 서비스, 주요 도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로 계획 보행자 시설이 있고, 상업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거닐 수 있으며, 거주지역과 가까운 가로 경관 생성 근린주거지역 디자인이 지역 환경과 보다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려 보행친화적인 환경과 보행자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가 내 도로의 모퉁이 반지름을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 개발 패턴을 다음과 같이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하고 큰 규모의 부지, - 차도 공유 - 다양한 건축선 후퇴(set-backs), - 아스팔트/자갈/투수성 있는 표면으로 인도 공유 - 다가구 주택에만 조명 제공 - 휴식을 위한 공원 녹지(Passive open green space) - 시야확보가 용이한 주차장 차도 건설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뮤니티를 단절시키는 넓은 도로는 지양 - 지역 내 차로는 좁은 곡선도로로 조성 - 도로에서 가시성 확보가 어렵지 않는 경우 기존의 수목 보존 - 나무는 도로를 향하게 식재 - 정지 신호 설치 완충공간과 울타리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목이 있는 갓길은 가로형 울타리(split rail fencing) 설치 - 벽돌기둥 사이에 쇠창살이 있는 형태의 펜스 설치 - 분리되거나 건축선의 후퇴거리는 vertical screening으로 고려 - 녹색 또는 검은색의 메쉬형 펜스를 조경과 함께 식재 - 투시가 어려운 벽과 콘크리트 블록 또는 방책 목재 울타리는 지양

구분	도시 및 교외	농촌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외, 신개발지역의 인테리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환경과 주택이 건축적으로 외관상 조화를 이루어야 함 - 2층 이하의 층수로 계획 - 건물 정면 및 후면 주차가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투과성 있는 재질을 이용하여 공간 포장 - 농촌지역의 특징을 반영한 표지판과 조명, 외부 조명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
예시	 <p data-bbox="384 1149 874 1178">전통적인 근린주거지역개발에서 권장하는 주택의 부속 유닛</p>  <p data-bbox="400 1552 852 1581">근린주거지역 개발을 촉진 가능한 작은 규모의 고용센터</p>  <p data-bbox="491 1955 767 1984">그리드 패턴형태의 도로 네트워크</p>	 <p data-bbox="930 1149 1366 1178">도로 쪽으로 향하도록 식재된 나무가 있는 농촌 도로</p>  <p data-bbox="1018 1552 1273 1581">주택경계의 자연적인 완충공간</p>  <p data-bbox="986 1955 1305 1984">주택의 특성이 반영된 농촌의 상업시설</p>

2) 오노무라(大野村)마을 조명개선 사업

■ 사업개요

• 사업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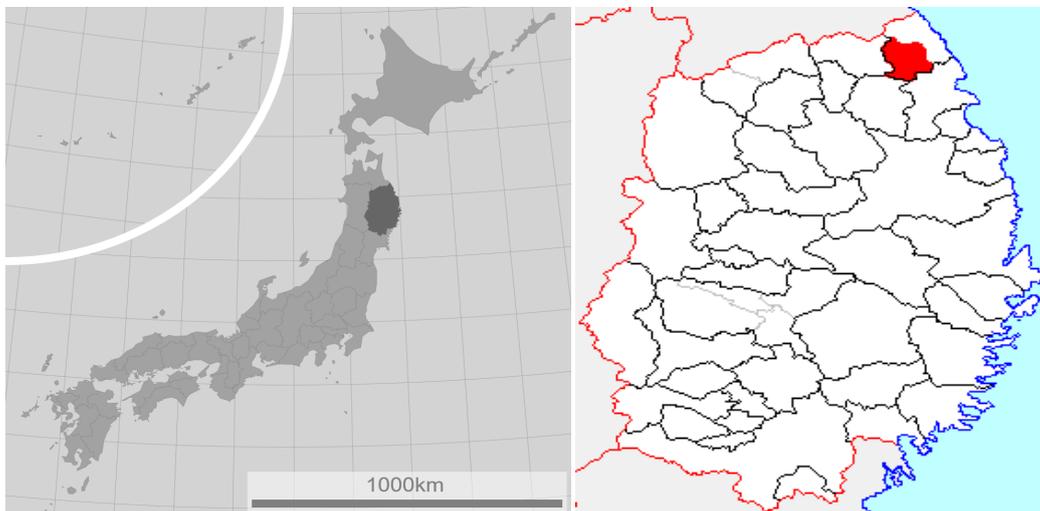
- 오노무라⁵³⁾에서는 2000년 9월부터 지역재활성화의 방책검토 조사사업으로서 오노지역전체의 활성화라는 큰 목표 하에 ①빈집 활용전략, ②빈집 재활용을 통한 재생전략, ③ 빛 환경개선 등 공간연출전략 총 3개의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오노 꿈의 도시(大野夢市)]를 기획

• 사업 목적

- 빛 환경을 개선하여 오노무라 마을 고유의 모습과 풍경 및 역사적 자원 등을 강조
- 또한 야간안전을 증대할 수 있는 환경적 기반을 마련하고 오노무라에서의 일상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빛 환경을 조성

• 사업 대상지 : 일본 이와테현 오노무라 (인구:약 7000명)

- 일본의 동북지방 이와테현(岩手県)의 북쪽에 위치해있는 마을



[그림 2-9] 일본 이와테현 오노무라

• 사업 기간

- 2001년-2003년 약 3년간 진행

53) 오노무라(大野村)는 일본의 동북지방 이와테현(岩手県)의 북쪽에 위치해있는 촌락으로 2006년 1월1일 부로 인근의 타네이치마치(種市町)와 합병하여 히로노쵸(洋野町)로 변경됨

• 사업주체

- 전체기획은 도쿄대학교 공학부 도시공학과 도시디자인 연구실이 진행
- 실시설계는 면사무소·카쿠다테 마사히데 빛 환경계획·니혼대학교 이공학부 건축학과 세키구치 연구실이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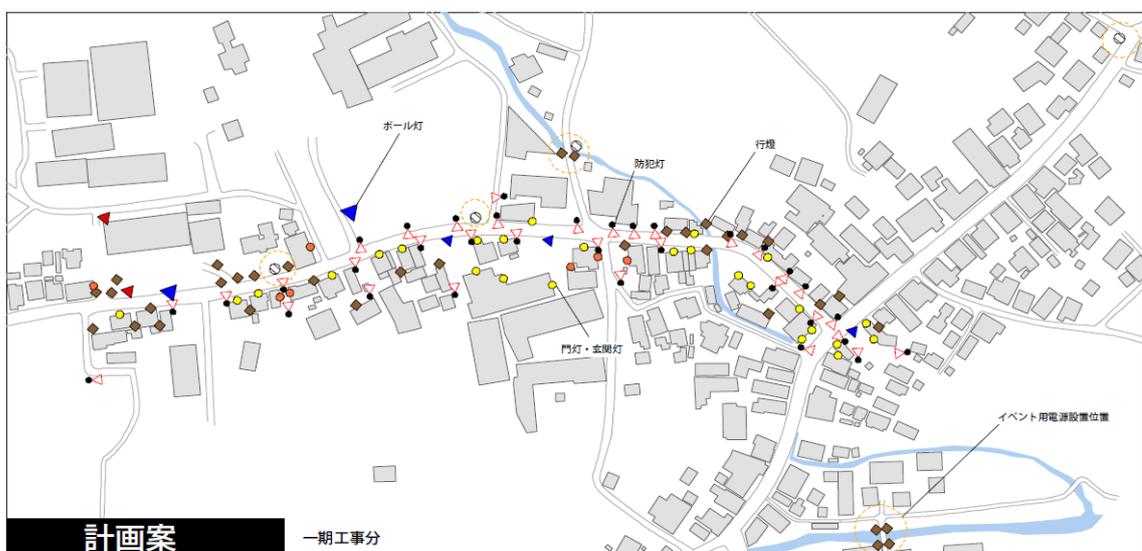
■ 사업개요

• 빛 환경개선 시범사업

- 사업에 앞서 기존의 가로등처럼 거리만을 밝게 하는 조명방식이 아니라, 집들의 대문에 달아놓은 등 및 현관 등의 빛으로 마을의 밝기감을 높이려는 생각에 근거한 빛 환경을 가설적으로 만들고, 그 효과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도록 빛 환경개선 시범사업 추진
- 사업 전에는 가로등의 조도가 일정하지 않아 도로는 밝지만 주위에 어두운 공간이 생성되었으나, 사업 후에는 건물과 골목에 조명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기존 조명을 개선하여 균일한 조도를 유지
- 또한, 광원을 백열계로 통일하여 가로에 일체감이 생겼으며, 신사나 거목 등 마을의 상징을 비추는 조명을 개선

• 주요 계획 내용

- 가로주변의 사각지대에 대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가로등보다 낮은 높이의 행등을 마을주민들의 집에 설치하여 시인성(균제도)을 향상
- 마을 안의 상징적인 장소에 가로등 5개 설치, 기존 전신주를 이용한 조명 기구 배치 및 문등 타입의 현관등을 통해 야간시야를 확보하여 공간에 대한 인지도와 야간 안전감 향상



[그림 2-10] 오노무라 제1기 조명계획안

※출처: [본보리 빛 환경 계획] http://www.bonbori.com/pj/1_u/onomura/index.html

[표 2-14] 조명의 위치에 따른 모형 계획안

광원의 높이가 높을 경우 (기존의 방법등)	광원의 위치가 낮을 경우 (행등+보이드조명)
	
<p>노면의 밝기가 균일하지 않으며, 사각지대 형성</p>	<p>가로도의 윤곽이 비춰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p>

※출처: 角館 政英(2010), 街路の光環境によって街はどう変わるか? (特集夜景観光のポテンシャル-光のまちづくりへ), 観光文化 34(6), p.15 참고 재작성



[그림 2-11] 계획안 스케치

※출처: 본보리 빛 환경 계획(http://www.bonbori.com/pj/1_u/onomura/index.html)

• 설문조사 결과

- 초롱불과 행등을 사용해서 사각지대를 밝히는 사업 전·후를 비교한 결과, 사업 후에 사각지대에 대한 불안감이 감소하였으며 밝기감에 대해 80%이상의 사람이 밝게 느끼고, 과반수가 보행안전이 증대 되었다고 응답

• 사업 결과

- 시범사업을 통해 마을정비를 위한 실시설계가 진행되었고, 오노무라 중심부의 가로등 약 30개를 정비하는 예산을 확보하여 수 킬로미터의 가로를 정비하여 주민이 부담하는 전기료는 약 1.5배정도로 감소하는 등 비용면에서 큰 효과를 보임
- 또한 가로등의 위치가 낮아짐으로써 노면의 균제도가 균일해져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고 길의 경계선이 강조됨으로써 사각지대까지도 밝아져 시인성이 확보되며, 안전감도 증가



[그림 2-12] 사업 후의 오노무라 모습

※출처: [본보리 빛 환경 계획] http://www.bonbori.com/pj/1_u/onomura/index.html

3) A Better Brainerd⁵⁴⁾

■ 사업개요

• 사업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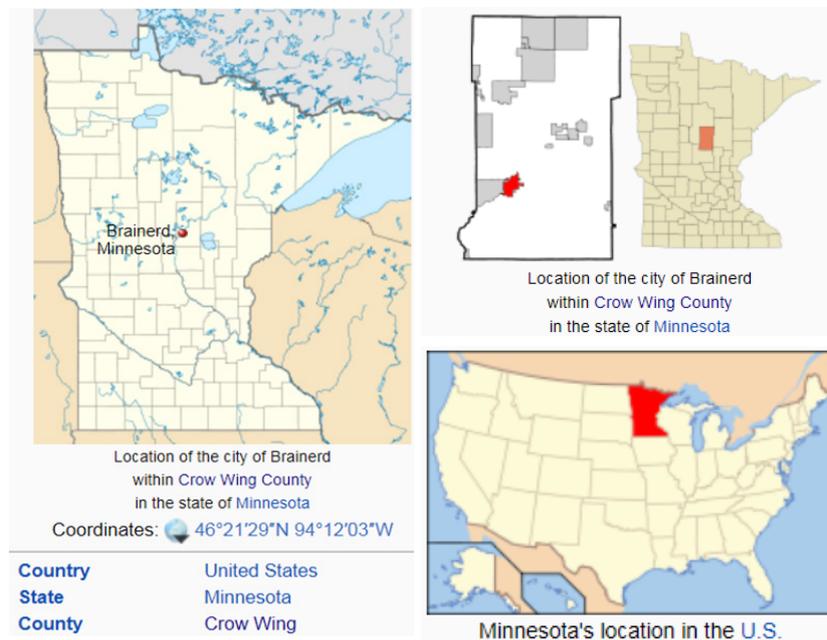
- 브레이너드(Brainerd)는 미네소타 주에 위치한 도시로, 2008년의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음 (42%의 예산이 지방 정부 보조금에 의해 운영)
- 2012년도에 시의회에서는 '지역 투자와 안정적 재무계획'으로 도시 아젠다를 설정하고, 소규모의 점진적 투자를 통해 자원이 부족한 지역정부에서도 실현 가능한 지역 사회 개선 전략을 발굴하기로 계획

• 사업 목적

- 저위험 · 고수익 전략을 이용하여 도시 재정을 안정화하고, 불안정한 자금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며 지역 사회가 갖고 있는 강점을 활용해 브레이너드 지역을 전반적으로 개선

• 사업 대상지

- 군청 소재지인 인구 13,590명 규모의 브레이너드 지역 일대



[그림 2-13] 미국 미네소타 주, 크로스(Cross Wing)왕 군에 위치한 브레이너드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Brainerd,_Minnesota#/media/File:Crow_Wing_County_Minnesota_Incorporated_and_Unincorporated_areas_Brainerd_Highlighted.svg

54) 출처 : A Better Brainerd (2013), Neighborhoods First A low risk, high return strategy for a better Brainerd: <http://rural-design.org/resource/low-risk-high-return-neighborhood-approach>;

• 사업 기간

- 6개월간 8개 소규모 프로젝트 진행

프로젝트 1: H 도로상의 자전거 도로 프로젝트 2: 북동부 1번가 상의 자전거 도로 프로젝트 3: 보행자 건널목 (빗금 표시) 프로젝트 4: 보행자 건널목 (횡단보도)	프로젝트 5: Pedestrian Corridor 프로젝트 6: 가로수 정리 프로젝트 7: 공원 수목 조성 프로젝트 8: 대로 수목 조성
---	---



[그림 2-14] 베타 브레이너드(Better Brainerd)의 8개 프로젝트별 구역

• 사업주체

- 미네소타주의 브레이너드와 미니아폴리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단체인 '스트롱 타운즈(Strong Towns)'에서 사업 총괄
- 오토 프래머 재단과 블란딘 재단, 그리고 그 외의 기관들과 개인 주체들의 기부금에 의해 운영

■ 사업내용

• 전략1 : 수목 정리 (자연 감시, 활동성 지원)

- Mill Park는 북동부 브레이너드 주민들이 밀가(街) 또는 워싱턴로(路)를 건너지 않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공원으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활력에 중요한 요소이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공원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지정된 행사시간 이외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음
- 유지관리가 미흡한 침엽 가로수들로 인하여 북동부 M도로에서 Mill Park로의 시야가 차단
- 공원의 가시성이 낮은 경우, 공원은 안전하지 않은 공간으로 인식되며 방치되어 범죄발생 가능성 증가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주민들의 공원 이용도를 높이고 공원의 가치와 지역의 가치를 재연결할 수 있도록 수목 정리 사업 개시, 북동부 M도로의 북쪽 방향의 소나무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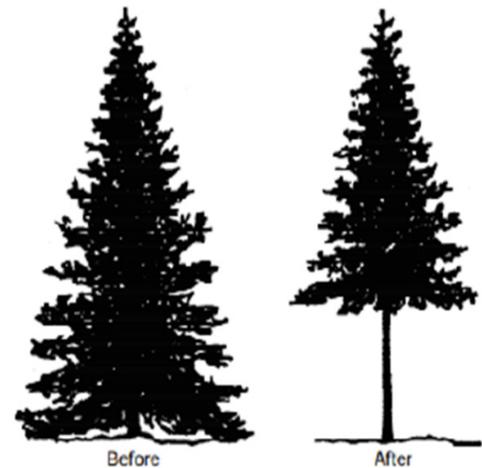


Fig. 9. Before and after: the removal of lower branches from a coniferous evergreen will improve access around the tree without affecting its vigor.

[그림 2-15] Mill Park의 수목 정리 전·후

• 전략 2 : 수목 조성 (활동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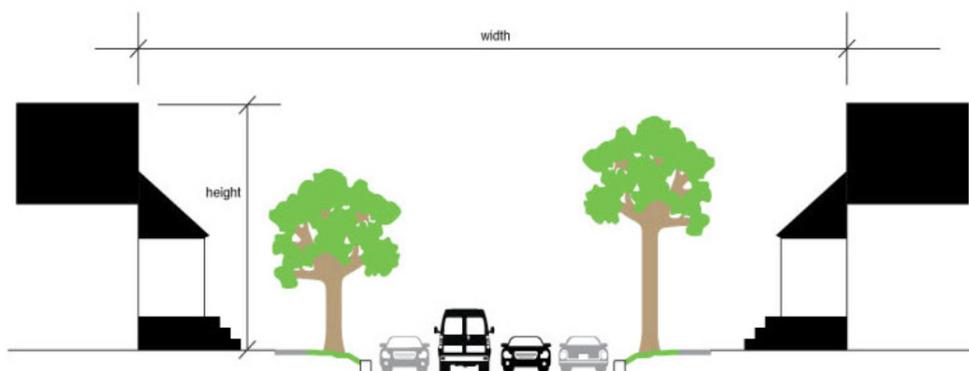
- (Mill Park 수목 조성) Mill Park에는 수목이 부족하여 그늘이 많이 생기지 않아 여름에 공원을 이용하기 불편하였으나, 활엽수를 심음으로써 이용자들을 위한 쾌적한 환경 조성
- 야구장 펜스 뒤편의 잡초지에 묘목을 심어 시각적 완충공간을 조성
- 장기적으로 공원 내 레저시설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전반의 부동산 가치와 투자 수요를 높이려는 목표를 지향



[그림 2-16] Mill Park의 수목 조성 예정지 (야구장 펜스 뒤편)

- (가로수 식재) 브레이너드 북동부에 위치한 3번가 대부분 주택들의 정면은 도로와 마주하고 있으나, 3번가의 가로수는 예전의 계획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서 쾌적한 보행로 환경을 조성하기에 한계
- 주요 활동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인 3번가의 특성상, 적절한 수목 조성을 통해서 지역의 활동성 개선 도모 필요
- 가로수 조성을 통해 보도에 그늘이 생성되어 가로 이용률을 높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공공영역의 기반 마련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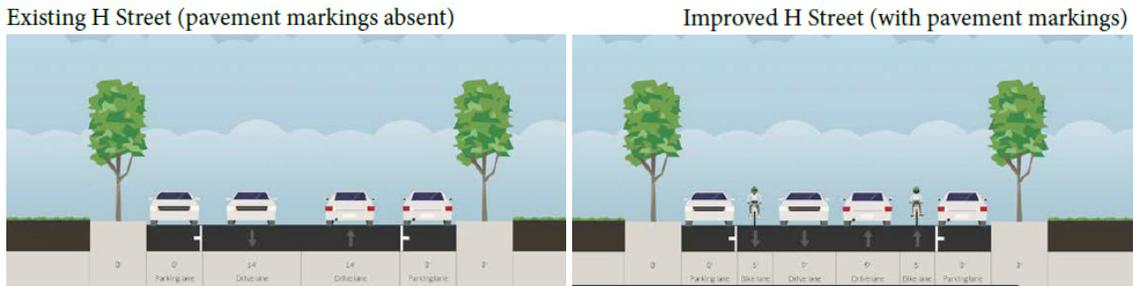
The ratio of $\frac{\text{width}}{\text{height}}$ should not be less than ③ nor greater than ⑥ to maintain a strong sense of place within the public realm.



[그림 2-17] 3번가 가로수 식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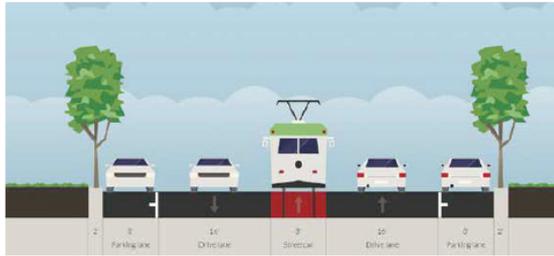
• 전략 3 : 도로정비

- (프로젝트1 : H도로 상의 자전거 도로 만들기)
- (프로젝트2 : 북동부 1번가 상의 자전거 도로)
- 사업 내용 : ① 흰 색 페인트 도색을 통해 주차 구역 설정② 흰 색 페인트 도색을 통해 자전거 도로 개설
- 기대 효과 : H도로 및 1번가를 주행하는 자전거 이용자 및 횡단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H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들의 속도 감속을 유도



[그림 2-18] H도로 사업 전후 비교

Existing 1st Ave NE (pavement markings absent)



Improved 1st Ave NE (bike lane only alternative) Improved 1st Ave NE (bike/pedestrian lane alternative)



[그림 2-19] 1번가 사업 전후 비교

- (프로젝트3 : 5번가 교차횡단보도)
- 사업 내용 : 교차로 상에 크로스해치 건널목 설치
- 기대 효과 : 5번가를 주행하는 자전거 이용자 및 횡단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5번가를 주행하는 자동차들의 속도 감속을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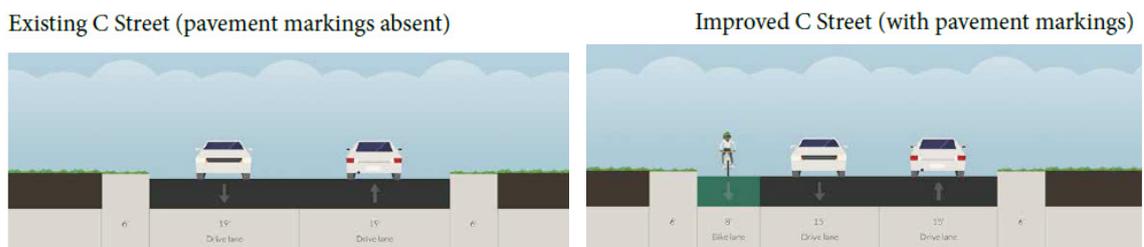
[그림 2-20] 5번가 사업 전후 비교

- (프로젝트4 : C도로 교차로 횡단보도)
- C도로는 이 지역의 식료품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지만 교차로 부분에 횡단보도가 없고 도로폭이 넓어서 (6m) 자동차 평균 속도가 높아 보행안전을 위협
- 사업 내용 : 교차로 상에 횡단보도 설치



[그림 2-21] C도로 교차로 부분 횡단보도 설치

- (프로젝트5 : 보행로)
- 사업 내용 : 보행로를 표시하도록 이중선 도색
- 기대 효과 : 5번가 서쪽의 4번 도로 북쪽 지역의 보행자 안전 개선, 4번 도로를 주행하는 자전거 이용자의 및 보행자 안전성 증가



[그림 2-22] C도로상에 보도 설치 전후 비교

4) Rural Crime Prevention⁵⁵⁾

■ 계획 개요

• 계획 배경

- 농촌 범죄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며, 가축, 농기구 절도 및 훼손과 같은 범죄는 매년 농부들의 수익과 생산성 손실의 원인
- Queensland 경찰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농촌 범죄 예방 브로슈어를 제작하여 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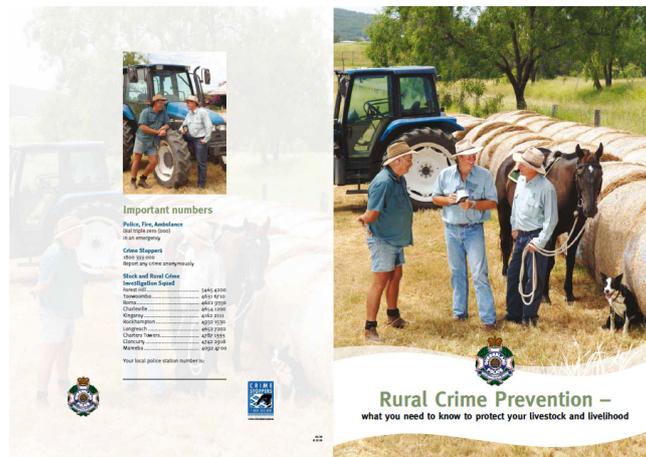
• 계획 목적

- 토지소유자에게 가축과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농촌범죄예방 방법을 제안
- 농장, 주거시설, 개인에 대한 보안 강화, 농촌범죄 신고방법 및 지역 내 농촌방법대 조직 등 농촌 범죄예방 방안에 대해 설명

■ 주요 내용

• 농촌 범죄예방 단계

- 농장, 주거지 및 개인 보안의 향상
- 모든 자산을 식별되기 쉬운 방식으로 표시
- 범죄 및 의심스러운 행위자를 경찰에 곧바로 신고
- 마을단위로 농촌 범죄예방 감시 집단을 조직



[그림 2-23] Rural Crime Prevention 브로슈어

55) Queensland Police(2008), Rural Crime Prevention

• 가축, 축사, 재산, 울타리 및 장비 등에 대한 세부적인 예방 방법을 제시

[표 2-15] 농촌 범죄예방을 위한 세부방안 내용(일부 발췌)

구분	내용
가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에 영구적인 식별 양식(등록된 상표, 귀표, 귀패, 도장, 마이크로칩 등)을 표시 • 가축의 구매 기록 보관 • 가축과 기계에 대한 영수증은 추가적인 증거로 보관 • 개인의 상표를 이웃에게 판매하는 것을 자제하고, 이웃의 상표와 그들이 운영하는 가축을 기록 • 경계 울타리를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가축을 확인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경찰에 신고 • 울타리를 친 방목장, 화물차량, 이웃집 농가, 감시가 어려운 외딴 구역에 가축을 방치하지 않음
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인의 무단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용 이동 계단과 축사를 확보 • 축사는 도로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주택 농가에서부터 감시가 가능한 곳에 건축
집과 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건물, 작은 방목장, 가축우리의 보안을 고려하여 설계 · 건축 • 침입자들의 은신공간을 제거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건물 주변의 나무와 관목을 손질 • 건물의 문과 창문, 보안 장치의 설치상태 확인 • 가능한 집에서 감시가 가능한 곳에 저장창고 배치
경계 울타리와 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기적으로 경계 울타리와 출입구 상태를 점검 • 손상된 울타리와 출입구는 신속하게 수리 • 손상이 고의적으로 보일 시 경찰과 다른 이웃에게 알림 • 축사, 방목장 출입구에 출입통제장치 설치
농장 기계, 도구 및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 및 장비위치에 대해 인지 • 농장의 재고를 상세하게 기록(일련번호, 새겨진 글, 상표, 년도, 대체가치, 그 외 감별 가능한 특징 등) • 숫자 또는 고유한 특정 정보를 새기거나 표시 • 모든 농장 및 가축용 장비, 기계, 도구가 안전한 곳에 보관됨을 확인 • 재고품, 장비, 또는 쉽게 표시가 새겨지지 않는 특정한 소유물은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기계 및 장비 방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쇠는 자동차나 기계 안에 보관하지 않으며, 무단사용이 어렵도록 배터리를 분리 • 진입로에서 보이는 곳에 방치하지 않으며 거주지로부터 감시가 가능한 곳에 보관 • 외부연료, 탱크, 펌프, 전기 철조망 기구 등의 안전을 확보 • 기계의 표면과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경찰조사에 필요한 지문 인식을 위한 조치) • 등록된 총기와 탄약은 잠금장치가 설치되어있는 승인된 보관함에 두어야 하며, 보관함은 바닥에 안전하게 고정
화학 약품과 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 약품과 비료는 원래의 용기에 저장하고 안전한 곳에 사료와 연료를 분리해서 보관 • 모든 화학 약품과 비료에 대한 재고를 상세히 기록 (상품명, 용기 설명서, 배합 유형, 배치 번호, 제조사 이름, 유통기한 등의 특징) • 청구서와 영수증 보관

5) 시사점

• 도시, 교외 및 농촌지역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 방향 제시

- 도시, 교외 및 농촌지역의 공간패턴, 주택, 교통 등 물리적 특성을 구분 및 반영하여 개발 방향 및 디자인 제시
- 교외 및 농촌지역의 특성을 보존하기 위해 교외 및 농촌지역 내 주거, 상업개발 및 시설에 대한 목적과 구체적인 디자인 기법 및 사례 제시
- 농촌지역의 경우 사람뿐만 아니라 농작물 및 가축에 대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리적 디자인 기법과 함께 대응절차 및 방법에 대해 제안

• 비용 및 사업규모 대비 높은 개선효과

- 적은 예산과 간단한 기법을 통해 교외 및 농촌지역의 특성을 보존 및 강화하여 전반적인 공간 안전성을 증대
- 예로 오노무라 마을의 경우 조명개선을 중심으로 추진한 사업을 통해 야간보행의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브레이너드에서는 수목 정비 및 식재, 도로 도색을 이용한 도로개선을 통해 공간 및 보행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등 적은 비용과 규모를 통한 개선사업으로 효과를 극대화

• 다양한 주체들의 사업 참여

- 토지이용계획이나 가이드라인은 지자체 주도로 수립되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사업의 경우 지역대학 및 비영리단체 등 여러 주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추진
-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다양한 지역사회 단체들은 지역의 역사적 · 환경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 무분별하고 일률적인 사업 추진이 아닌 지역고유의 특성을 보존하면서 환경 개선이 가능

• 저밀도 지역에서의 환경개선과 더불어 주민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 농촌지역과 같은 저밀도 지역의 범죄예방 환경개선은 특정 소지역 단위별로 집중적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것이 효과적임
- 이와 더불어 넓은 지역의 범죄예방 환경조성이 어려울 경우 주민교육을 위한 책자 및 브로슈어 발간을 통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한 방책으로 여겨지고 있음
- 특히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농촌 지역 및 주민들의 특성 및 생활습관에 맞도록 이해하기 쉽고 즉시 적용 가능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함

도농복합형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적용

III

도농복합지역에서의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적용

III. 도농복합지역에서의 범죄예방 환경조성의 적용

1. 사업 대상지 선정 및 지원 과정

1) 사업 대상지 선정기준

■ 2016년 대상지 선정 기준

- 사회적 변화 및 필요성, 범죄예방의 시급성 등을 반영한 대상지 선정 기준
 - 사회적 변화 및 요구, 지자체 추진의지, 범죄취약수준 등의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물리적 · 사회적 환경변화를 통해 범죄가 효과적으로 예방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 (도농복합지역 특성) 2016년 중점개선유형인 도농복합지역의 물리적 · 사회적 특성 고려
 - ※ 중점개선유형: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범죄유형, 범죄예방대책이 필요한 지역유형에 따라 매년 중점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유형
 - (추진의지 및 역량)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인적 · 물적 자원 현황, 사업실적 등 사업 추진의지 및 역량에 대해 평가
 - (범죄취약수준) 범죄발생률, 물리적 · 사회적 범죄취약수준 정도에 따른 환경개선의 시급성을 파악
 - (사업지원 성과 확산가능성) 사업 종료 후 모범모델로서의 성과확산 및 타지역 적용 가능성 판단
 - (사업예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예산 조달 가능성 판단

[표 3-1] 2016년 대상지 선정기준

기준	세부내용
도농복합지역 특성 (연도별 중점개선유형)	도농복합지역의 물리적 · 사회적 특성
추진의지 및 역량	사업전담조직 및 부서 간 협업체계 및 계획 주민단체, 민간기업 등 이해관계자 간 협력체계 및 연계계획 유사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 정도 주민 역량강화 및 주민참여 실적과 계획, 주민공동체 활성화 정도
범죄취약수준	물리적 · 사회적 쇠퇴 정도에 따른 범죄취약수준 지역특성에 따른 범죄취약수준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사업지원 성과 확산가능성	모범모델로서의 사업성과 확산 및 타지역 적용 가능성
사업예산	자체재원 조달 계획

2) 사업 대상지 선정배경

■ 증가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인구 및 범죄

- 전국에서 유입인구가 가장 높으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세종특별자치시는 인구유입 전국 1위 지역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출범당시인 2012년 115,388명이었던 세종시 인구는 2016년 6월말 기준 233,972명으로 불과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

[표 3-2] 연도별 인구통계

출범 전후	연도	인구수(명)	전년대비 증감률(%)
출범전(구 연기군)	2010	83,504	3.0
	2011	84,710	1.4
세종특별자치시	2012	115,388	36.2
	2013	124,615	8.0
	2014	158,844	27.5
	2015	214,364	35.0

※ 출처: 세종특별자치시(2016), 세종시 인구현황, 「세종 통계」, <http://www.sejong.go.kr/>

• 다양한 집단들의 이주·정착으로 인한 갈등 야기

- 매년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그 가족들이 꾸준히 이주·정착하고 있으며, 대전 및 충남권 등 세종시 인근 지역 주민들이 이주대열에 동참
- 세종시 내 서로 이질적인 집단들 간의 공존은 여러 갈등을 야기⁵⁶⁾
 - ※ 첫마을의 도담동-방축동 법정동명 변경 관련 원주민과 이주민(당시 이주예정) 간 갈등
 - ※ 첫마을 버스노선 변경으로 인한 공공갈등, 신청사 이전에 관한 갈등, 학교 교명변경에 관한 갈등 등

• 주민들 간 갈등과 더불어 범죄 불안감 상승

- 이전 공무원 가족들과 기타 이주민 등 이질적인 집단들의 이주·정착은 기존의 원주민 그룹과 여러 갈등 소지를 안고 있으며, 범죄유발의 원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음
 - ※ 세종시 존속살인 사건⁵⁷⁾, 세종시 편의점 총기난사 방화사건으로 살인으로 3명 사망⁵⁸⁾하는 등 강력범죄 발생

56) 허준영(2015), 신도시 주민 간 통합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세종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57) 세종인뉴스, 2016.2.26

58) 연합뉴스, 2015.2.25

■ 도농복합지역으로서의 부강면 부강리

• 세종특별자치시의 도농복합지역

- 세종시의 도농복합복합지역은 연기군(현 연기면)+공주시 일부(현 장군면)+청원군 부용면 일부(현 부강면)이 있으며, 기존의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탄생한지역이 아닌 도농복합예외로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출범

•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부강면과 부강리

- 세종시 도농복합지역 중 부강면의 인구밀도가 249.6명/㎢으로 가장 높으며, 부강면의 인구 6,699명(2015년말 기준, 외국인제외)의 약69%가 부강리에 거주

[표 3-3] 세종특별자치시 도농복합지역 인구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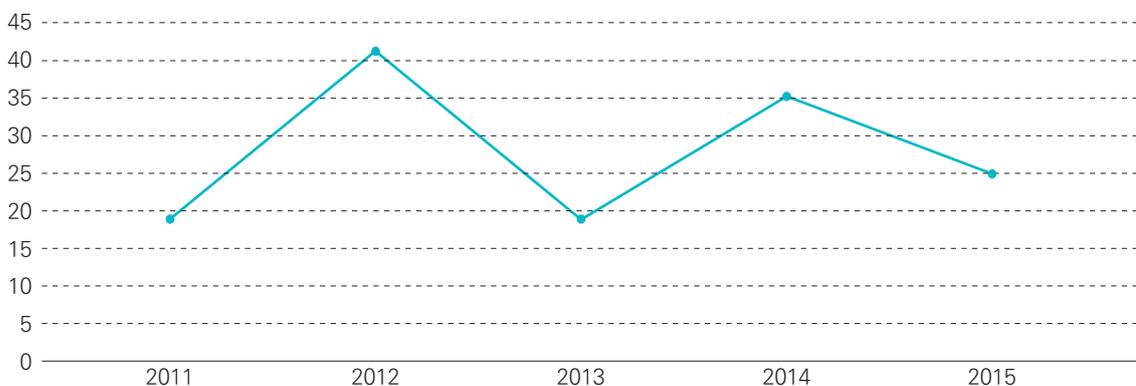
(2016년 10월말 기준)

구분	연기면	부강면	장군면
인구(명)	2,805	6,995	6,541
면적(㎢)	43.9	27.79	58.0
인구 밀도(명/㎢)	60.8	249.6	114.4

•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직후, 부강리의 범죄율 최고치

- 부강면 부강리의 지난 5년간 발생한 범죄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된 2012년에 범죄 발생건수가 출범 전인 2011년 대비 121%로 급격히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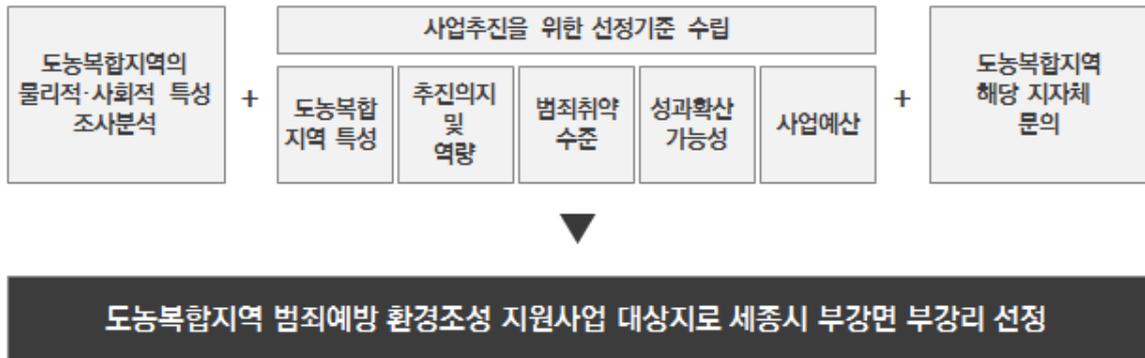
- 이후 범죄 발생건수는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등 변화폭이 크지만, 2015년 범죄발생건수는 총 25건으로 2011년 대비 31.6% 증가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전반적인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그림 3-1] 부강리 범죄 발생건수

•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지원 대상지로 부강면 부강리 일대 선정

-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살인범죄 패턴을 비교분석한 결과, 도시지역에서는 연령구성이나 인종의 다양성이 도시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며, 농촌지역에서는 인구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⁵⁹⁾가 있음
- 세종시 편입으로 인한 인구 및 물리적 환경, 범죄특성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부강면 부강리 일대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혼재한 도농복합지역으로, 이러한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범죄를 예방 할 수 있는 차별화된 범죄예방 환경설계가 필요



[그림 3-2] 사업대상지 선정 과정

59) 정진성, 박현호(2010), 지역사회의 구조적 특성이 살인범죄에 미치는 영향-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음이향 회귀분석, 형사정책연구, v21(1), p.99

3) 사업지원 과정

■ 협업체계 구축

• 사업관련기관 및 지역주민과의 협의과정

- (2016.04.11.) 사업대상지 1차 후보 대상지 5개 지자체 선정
- (2016.05.17.)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리 일대 최종 선정을 위한 현장 답사 및 세종시청 청춘조치원과 담당 공무원과 업무협의
- (2016.06.02.) 세종시청 및 세종경찰서와 MOU체결 계획 및 내용 논의
- (2016.06.22.) 건축도시공간연구소-세종시청-세종경찰서간 MOU 체결
- (2016.07.04.)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세종시청 청춘조치원과, 세종경찰서와 함께 범죄예방 환경조성 지원사업에 관한 설명회 개최
- (2016.07.05.) 범죄자료 구득을 위해 세종경찰서 생활안전과 담당경찰과 업무협의
- (2016.08.10.) 세종시청 청춘조치원과 및 세종경찰서 담당공무원, 주민자치위원회 대상 범죄예방 환경조성방안 기본계획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 (2016.08.17.)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계획 및 일정 논의를 위한 실무자 협의회 개최
- (2016.09.29.) 세종시청 청춘조치원과 담당공무원과 실시설계 및 시공일정 논의
- (2016.10.14.) 세종시청 청춘조치원과 담당공무원 및 주민자치단체와 주민커뮤니티공간 조성을 위한 나대지 및 공·폐가 협조 요청 및 의견 수렴
- (2016.11.23.)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 실시설계 디자인 자문 및 현장시찰



[그림 3-3] 건축도시공간연구소-세종시청-세종경찰서간 MOU 체결(2016.06.22.)



[그림 3-4]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 사업설명회(2016.07.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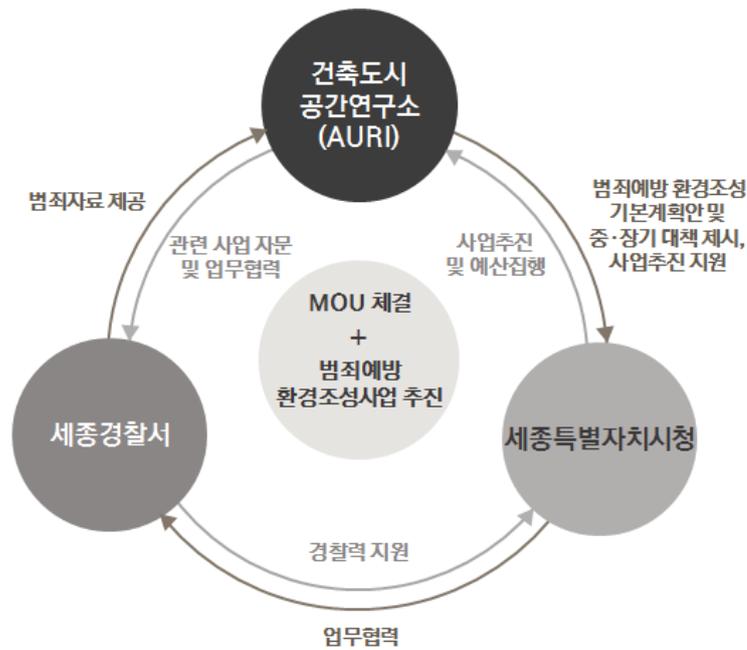
[그림 3-5] 사업에 관한 간담회 (2016.08.10.)



[그림 3-6] 사업예산계획 및 일정 논의를 위한 실무자 협의 (2016.08.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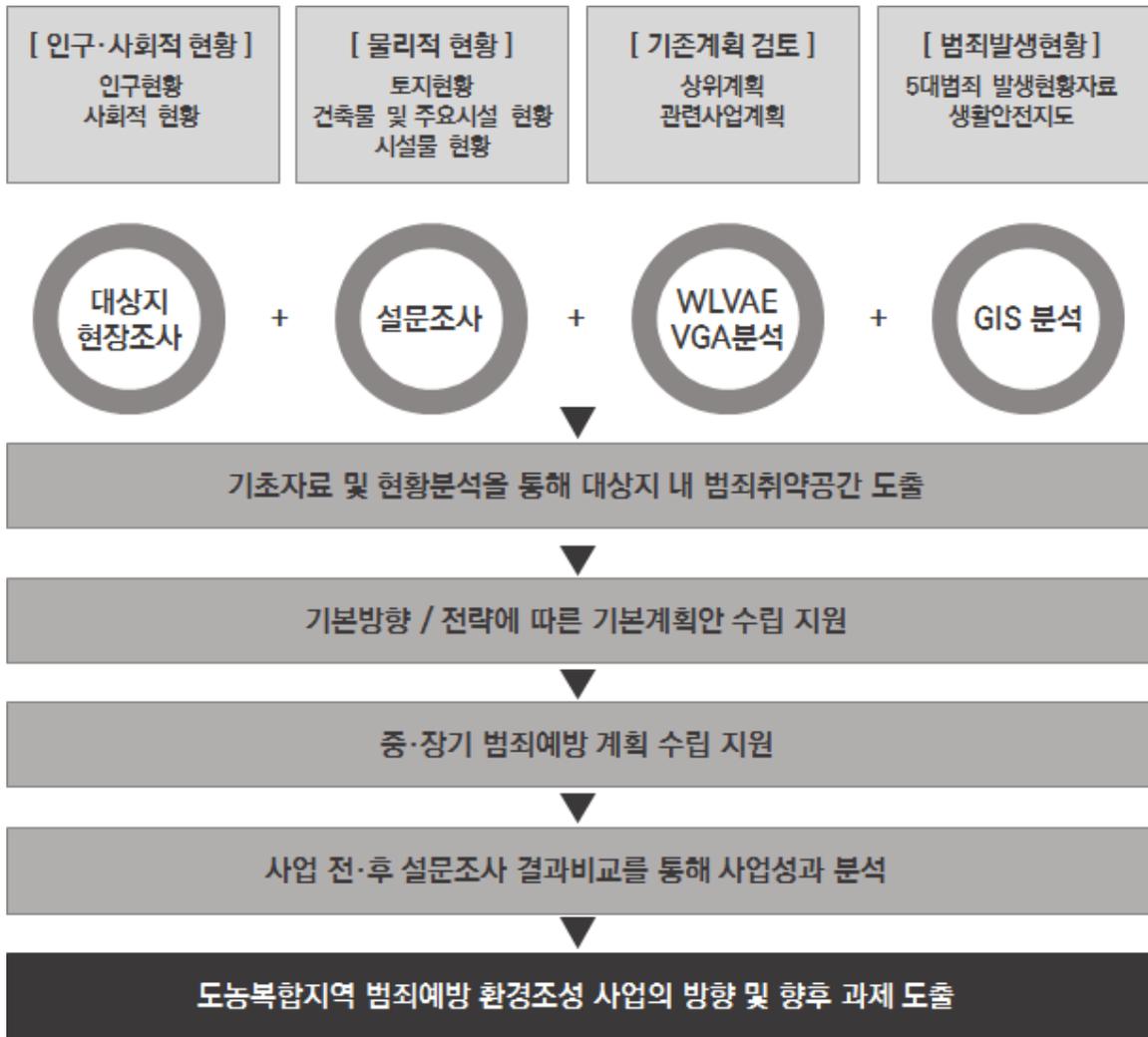


[그림 3-7] 나대지 및 공·폐가 협조 요청 및 의견 수렴을 위한 업무 협의(2016.10.14.)



[그림 3-8]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

■ 계획안 수립 지원 과정



[그림 3-9] 사업지원 과정

2. 대상지 현황분석

1) 인구 · 사회적 현황

■ 인구 현황

• 인구 규모

- 부강리 전체 인구수는 4,620명이며, 부강면 총 인구수 6,699명(2015년 기준, 외국인제외)중에 약69%를 차지
- 부강12리가 675명으로 가장 많고, 부강13리가 578명, 부강14리가 494명이며, 가장 인구수가 적은 지역은 부강7리로 59명을 차지

[표 3-4] 부강1리~15리 인구규모

(2015년 기준)

구분	총인원수			구분	총인원수		
	계	남	여		계	남	여
부강리 합계	4,620	2,416	2,204	부강8리	265	142	123
부강1리	246	134	112	부강9리	80	44	36
부강2리	226	118	108	부강10리	160	83	77
부강3리	454	231	223	부강11리	213	105	108
부강4리	256	128	128	부강12리	675	334	341
부강5리	267	146	121	부강13리	578	300	278
부강6리	327	182	145	부강14리	494	259	235
부강7리	59	35	24	부강15리	320	175	145

※출처: 부강면 행정자료(2016)

- 세종특별자치시의 인구는 2012년부터 약 30%전후의 꾸준한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부강면의 인구 또한 세종시 통합의 영향을 받아 증가한 것으로 보임

[표 3-5] 연도별 인구규모

구분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리	
	인구수	전년대비 증감비율	인구수	전년대비 증감비율	인구수	전년대비 증감비율
2012	115,388	36.2%	6,823	2.8%	4,565	-
2013	124,615	8.0%	6,937	1.7%	4,738	3.8%
2014	158,844	27.5%	6,942	0.1%	4,720	-0.4%
2015	214,364	35.0%	6,937	-0.1%	4,620	-2.1%

• 농가비중

- 부강리 전체 농가 수는 154호로 부강면 전체 496호의 31%를 차지하며, 대다수의 농가는 기존 주거지역 중심으로 분포
- 부강3리가 27호로 부강리 전체의 18%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부강14리는 미래로 아파트 단지(군인아파트)이므로 농가가 존재하지 않음

[표 3-6] 부강리 농가비중 (2015년 기준)

구분	농가수	구분	농가수
부강리 전체 합계	154	부강8리	18
부강1리	21	부강9리	6
부강2리	14	부강10리	4
부강3리	27	부강11리	7
부강4리	12	부강12리	13
부강5리	7	부강13리	4
부강6리	10	부강14리	0
부강7리	5	부강15리	6

※출처: 부강면 행정자료(2016)

• 인구 이동률

- 2012년에는 전입·전출 모두 약 400명 안팎이었으나,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이후인 2013년에는 전입이 919명, 전출이 822명으로 2012년과 비교하여 이동률이 큰 폭으로 증가
-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전입·전출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5년에는 부강리 전체인구 4,620명의 23.1%에 해당하는 인구가 이동

[표 3-7] 부강리 인구 이동률

연도	전입			전출			순이동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012	449	255	194	434	236	198	15	19	-4
2013	919	505	414	822	443	379	97	62	35
2014	981	548	433	969	531	438	12	17	-5
2015	1,003	540	463	1,068	555	513	-65	-15	-50

※출처: 부강면 행정자료(2016)

• 인구연령분포 현황

- 2015년 기준 부강리의 생산가능연령(15세~64세)인구는 전체 인구의 71.5%(3,303명)를 차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와 부강면과 비교시 비교적 젊은 인구연령분포를 나타내고 있음

[표 3-8] 인구연령분포

구분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리		
	인구수	비중	인구수	비중	인구수	비중	
합계	210,884	100.0%	6,699	100.0%	4,620	100.0%	
연령	15세 미만	42,411	20.1%	720	10.8%	601	13.0%
	15세~64세	146,074	69.3%	4,645	69.3%	3,303	71.5%
	65세 이상	22,399	10.6%	1,334	19.9%	716	15.5%

※출처: 세종특별자치시(2016), 주민등록인구통계, 「세종 통계」, <http://www.sejong.go.kr/>; 부강면 행정자료(2016)

• 고령화 현황

-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대비 약 30%의 고령자 증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부강면, 부강리 또한 고령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전체 인구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 추세임

※ 2012년에 14.5%, 2013년에 14.4%, 2014년에 14.6%, 2015년에 15.5% 차지 (부강리 전체인구 대비 고령자 수)

[표 3-9] 고령자 수

연도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012	17,214	6,977	10,237	1,234	527	707	663	274	389
2013	17,958	7,320	10,638	1,278	539	739	683	281	402
2014	19,777	8,079	11,698	1,303	546	757	691	284	407
2015	22,399	9,229	13,170	1,334	563	771	716	297	419

※출처: 세종특별자치시(2016), 주민등록인구통계, 「세종 통계」, <http://www.sejong.go.kr/>; 부강면 행정자료(2016)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수급자 현황

- 부강면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수급자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2015년도에 급격하게 증가
- 한부모가족지원법 수급자는 전체 수급자의 평균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증가

[표 3-10]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수

구분	부강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수급자			합계		
	가구	인구수	비중	가구	인구수	비중	가구	인구수	비중
2012	111	178	83%	15	36	17%	126	214	100%
2013	98	151	78%	16	43	22%	114	194	100%
2014	106	162	74%	22	57	26%	128	219	100%
2015	130	195	76%	24	62	24%	154	257	100%

※출처: 부강면 행정자료(2016)

• 외국인 비율

- 세종특별자치시와 부강면의 외국인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 대비 각각 53.2%, 48.8%로 크게 증가
- 부강면의 경우 외국인 남자의 비율이 여자보다 약 3배 이상 높음

[표 3-11] 외국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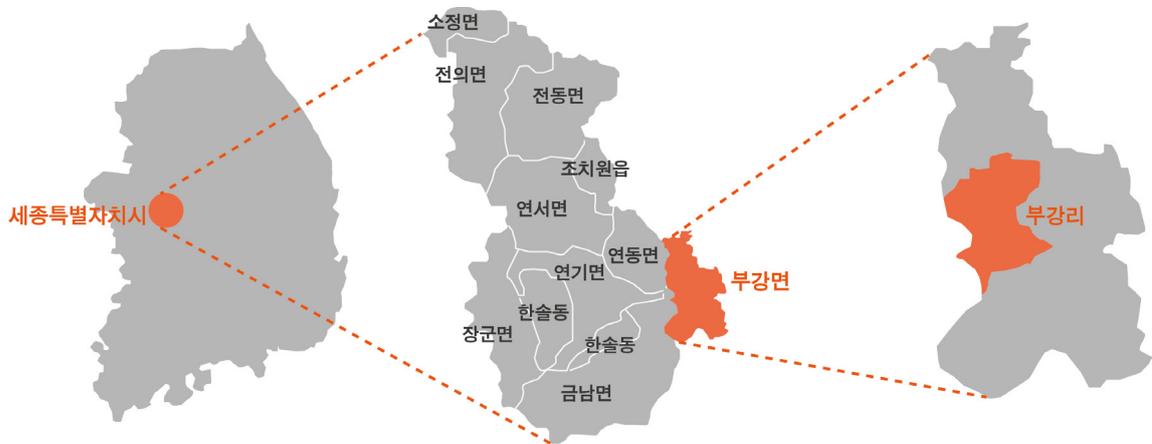
구분	연도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계	남	여	계	남	여
	2012	2,271	1,462	809	160	117	43
	2013	2,462	1,588	874	170	126	44
	2014	2,719	1,707	1,012	177	143	34
	2015	3,480	2,132	1,348	238	184	54

※출처: 세종특별자치시(2016), 주민등록인구통계, 「세종 통계」, <http://www.sejong.go.kr/>

2) 물리적 현황

■ 위치

- 사업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리 일대(부강1리,5리,10리,13~15리 일대)
- 면적 : 약 385,000㎡
- 부강면은 세종특별자치시의 남동부에 위치해 있으며, 사업대상지는 부강면 중심에 위치



[그림 3-10] 부강리 위치

- 부강리는 부강1리~15리까지 15개의 행정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2년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에서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리로 편입됨
- 부강역 서쪽 생활권인 부강1리, 5리, 10리, 13~15리 일대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그림 3-11] 부강리 전도 및 사업대상지 위치

토지현황

• 용도지역현황

- 부강리는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이 함께 위치한 복합적인 토지이용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중 사업대상지는 일반주거지역에 해당
- 생산녹지지역은 사업대상지 경계지역인 부강 1, 4, 5리에 해당하며, 부강리 남쪽으로 위치한 부강9리는 일반공업지역으로 다수의 공장 분포
- 일반주거지역은 사업대상지인 부강 5, 10, 13~15리를 중심으로 해당되며, 그 외 부강 4, 6리 일부가 해당
- 일반상업지역은 부강 2, 3, 11리에 해당



[그림 3-12] 용도지역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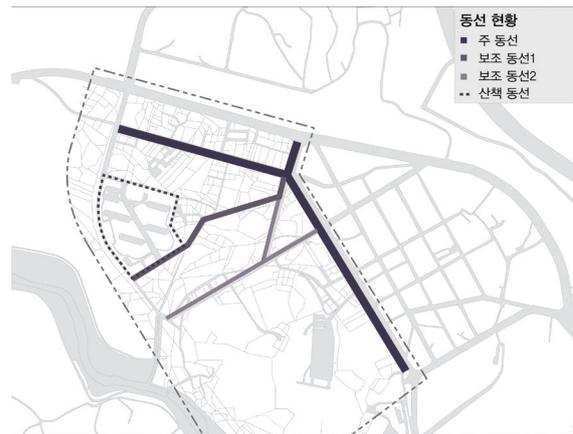
도로현황

• 주요 도로 및 동선 현황

- 부강면 사업대상지 내부의 주요 순환도로는 부강로, 부강신대길, 부강3길 등이 있으며, 보행자 주요 동선과 동일
- 부강신대길과 부강로는 부강역, 주요 교육시설 및 상업시설과 연결되는 도로로 일반차량과 주민들의 주요 이용 도로이며, 부강3길은 남쪽 산업단지를 진출입하는 대형차량의 통행과 불법 주·정차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진입차량의 시야확보가 어려우며 사각지대를 생성
- 미래로 아파트 단지 주변의 퇴미로는 주민들의 산책로로 이용되며, 남쪽의 금강산책로와 연결됨
- 부강면의 도시계획도로는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2개 노선과 사업대상지와 세종시를 연결하는 1개 노선이 계획되어 있음



[그림 3-13] 주요 도로 현황



[그림 3-14] 주요 보행동선 현황

• 주요 교차로 현황

- (교차로1) 청면로와 산업단지로 진출입하는 대형차량들과 군부대 입구로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
- (교차로2) 부강3길과 산업단지로 진출입하는 교차로로서 차량통행이 많으며, 특히 교차로 주변에 위치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미취학 아동과 산책로 이용 주민을 포함한 보행자 사고 위험 가능성 존재
- (교차로3) 산업단지로 진출입하는 대형차량과 부강역 방향으로 이동하는 소형차량 통행이 많으며, 인근에 위치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로 인해 등·하교 어린이 사고 발생 가능성 내재
- (교차로4) 상업지역 및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보행자가 많으며, 부강역 방향으로 부강로를 이용하는 차량통행 및 보행량이 많음
- (교차로5)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이동하는 보행자가 많으며, 조치원 및 세종시로 이동하는 차량통행이 많아 보행 안전에 취약



[그림 3-15] 교차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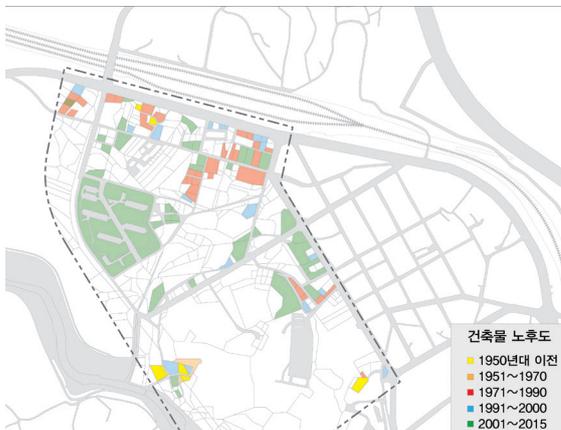
■ 건축물 및 주요시설 현황

• 건축물 노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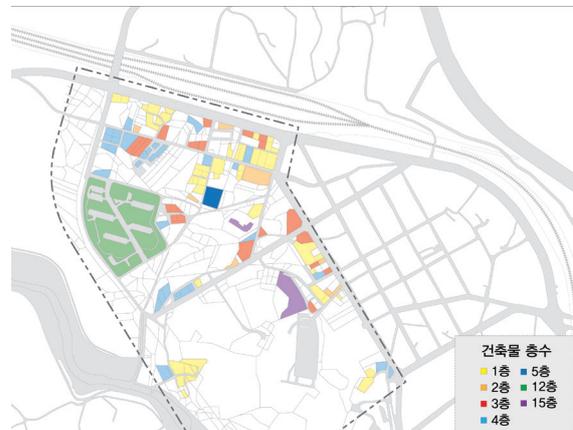
- 1991년 전에 지어진 20년 이상 노후건축물은 부강역과 부강로를 기준으로 북쪽에 집중적으로 분포
- 1991년 이후 지어진 건축물은 부강초등학교 주변을 제외한 사업대상지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그 중 2001~2015년에 지어진 건축물이 상당 부분을 차지

• 건축물 층수

- 미래로아파트 대신 하나로아파트를 제외한 대다수의 건물은 1층~4층의 저층건물이며, 대부분의 빌라촌은 4층 건물로 이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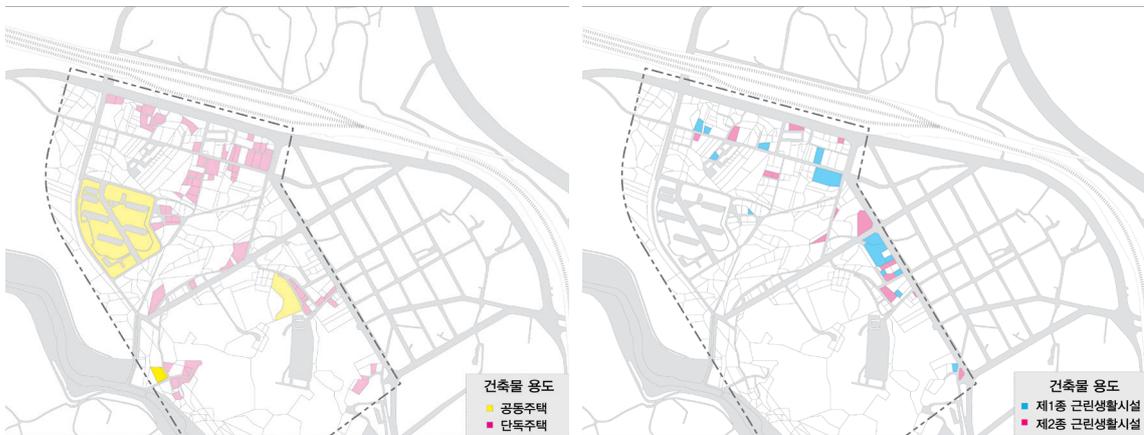
[그림 3-16] 건축물 노후도



[그림 3-17] 건축물 층수

• 건축물 용도(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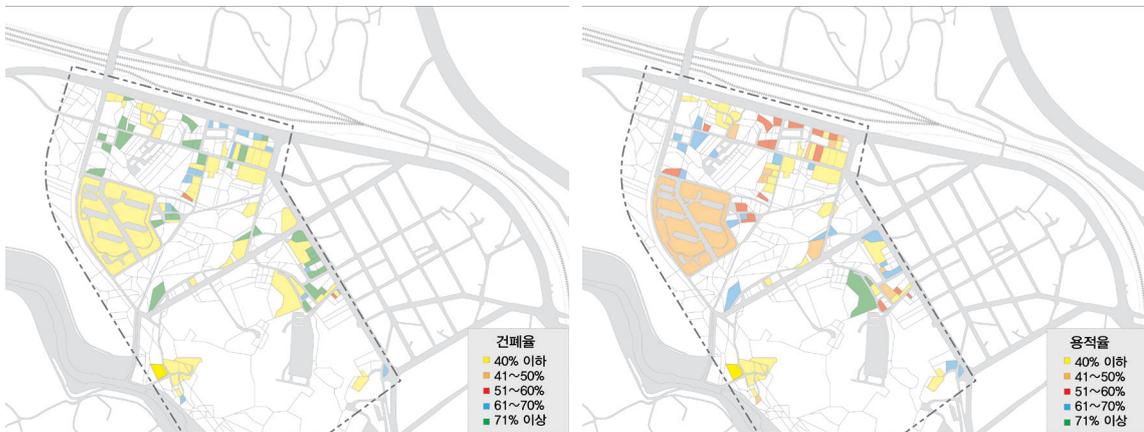
- 사업대상지 내의 공동주택은 미래로 아파트, 대신하나로 아파트가 있으며, 단독주택은 부강신대길 주변 기존 주거지에 집중 분포되어 있음
- 최근 부강신대실의 안흥빌라 주변으로 원룸(다세대 및 연립주택)이 신축되고 있음
- 대상지 내의 근린생활시설은 부강역을 중심으로 부강신대길, 부강로 주변으로 형성됨



[그림 3-18] 건축물 용도

• 건폐율 및 용적률

- 사업대상지 내 대부분의 건축물은 40%이하의 건폐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세대 및 연립주택 주변은 51~60%의 건폐율을 보임
- 군부대시설과 문화재 등으로 인한 건축고도제한으로 대부분 낮은 용적률을 보임



[그림 3-19] 건폐율

[그림 3-20] 용적률

■ 주요 공공시설 현황

• 교육시설

- 부강로를 중심으로 부강중학교, 부강초등학교, 부강유치원이 위치해 있으며, 부강3길을 중심으로 국제어린이집, 부용어린이집과 학원이 입지해 있음
- 부강중, 부강초, 부강유치원 일대는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5년에 부영이 안심마을 시범사업을 시행한 대상지임



[그림 3-21] 교육시설



[그림 3-22] 부강초등학교



[그림 3-23] 부강중학교



[그림 3-24] 국제어린이집 및 인근 학원



[그림 3-25] 부용어린이집

• 관공서

- 부강역 인근의 주요 통행로인 부강로에 부강파출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대상지내 유일한 관공서임

• 운동시설

- 사업대상지 내 부강3길에 실내게이트볼장이 최근 조성되었으나 접근성이 낮아 사람들의 이용이 어려움

- 인근 근린공원 입구에 위치하여 향후 근린공원개발 시 잠재적 활용 가능성 높음



[그림 3-26] 관공서 및 운동시설



[그림 3-27] 부강게이트볼장



[그림 3-28] 부강파출소

■ 시설물 현황

• 방법시설물 현황

- (CCTV) 사업대상지내 CCTV는 총 3대로 부강중학교, 초등학교 인근, 부용어린이집 인근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부강초등학교 앞 CCTV 한 대는 주·정차 단속용 CCTV임
- (가로등) 사업대상지에 설치된 가로등은 총 64대이며, 부강역앞 대로인 청면로와 부강3길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농경지 주변에는 상대적으로 적음
- 대상지에 균일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아 조도 차이가 큼
- (비상벨) 부용어린이집 인근 CCTV와 통합 설치되어 있는 비상벨이 유일



부용어린이집 앞에 설치된 CCTV+비상벨

교통단속용 CCTV

가로등 총 64대

[그림 3-29] 대상지내 방법시설물 사진



[그림 3-30] 대상지내 방법시설물 설치 현황

3) 범죄발생현황

■ 대상지 내 주소기반 범죄발생현황

- 2011년에서 2016년 6월까지 부강리에서 발행한 주 범죄유형은 폭력과 절도임
- 2011년에서 2016년까지 발생한 범죄는 총 159건으로 폭력이 101건(전체 범죄의 약 64%), 절도가 56건(전체 범죄의 약 35%), 강간 및 강제추행이 2건임
- 대상지에서 발생한 범죄는 전체 범죄의 약 22%인 총 34건이며, 폭력이 24건, 절도가 10건으로 주로 폭력이 많이 발생

[표 3-12] 세종시 부강면 부강리 범죄발생현황 (2011.01.01.~2016.06.30.)

범죄유형	세종시 부강면 부강리		사업대상지		합계
폭력	77	64%	24	71%	101
절도	46	35%	10	29%	56
강간·강제추행	2	1%	-	-	2
합계	124	100%	34	100%	159

※ 주: 주소기반 범죄데이터는 비공개

※ 출처: 세종경찰서 내부자료(2016)

• 대상지 내 범죄는 주거시설-노상-상업시설 순으로 많이 발생함

- 주요 범죄발생지역은 주거시설(주차장 포함)에서 16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노상에서 10건, 상업시설에서 7건이 발생
-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범죄는 주로 연립주택 및 다가구 주택에서 발생하였으며, 주차장에서도 5건의 범죄가 발생
- 노상에서 발생한 범죄는 주로 편의점, 마트, 주거시설 앞에서 발생하였으며, 상업시설에 발생한 범죄는 유흥주점, 여관 등에서 발생

[표 3-13] 장소별 범죄발생현황

발생장소	건수	범죄유형	
주거시설	16	폭력	13건
		절도	3건
노상	10	폭력	7건
		절도	3건
상업시설	7	폭력	4건
		절도	3건
종교시설	1	절도	1건

※ 출처: 세종경찰서 내부자료(2016)

4)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 상위계획 검토

• 2030 세종도시기본계획

- 세종특별자치시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21세기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광역 경제권의 중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2030년 도시미래상 제시

- ※ (목적) 1) 급변하는 도시여건에 대응한 도시발전 미래상 재정립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방향 제시
- 2) 국가균형발전을 선도·촉진하는 새로운 행정수도로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여 도시혁신의 선도거점 조성
- 3) 2030년까지 도시공간구조 구상 및 읍면지역의 균형개발 등을 위한 도시기능의 적절한 배분을 통하여 계획적 도시성장기반 마련

- 10개의 부문별 계획 중 방재 및 안전계획의 기본방향으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의 적극 도입' 제시

- 도시의 개발 및 정비, 건축 시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 영역성을 제공할 수 있는 CPTED를 적극 도입하고, 안전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스마트 스쿨과 연계한 Safety Support System 구축, 주민교류 및 소통 활성화를 통한 간접적 범죄방지효과 증대를 주요내용으로 설정

[표 3-14] 2030 세종도시기본계획 중 CPTED 관련내용

2030 세종도시기본계획	
구분	기본방향
방재 및 안전계획	1. 종합적인 방재계획 수립
	2. 안전한 도시구축을 위한 사전예방 및 대응시스템 구축
	3. 재해위험도에 따른 시설 및 지역관리
	4. 방재시스템 구축 및 방재지침 수립
	5. 도시의 녹색공간을 활용한 방재계획 수립
	6. 범죄예방환경설계의 적극 도입
	6-1. 도시의 개발 및 정비, 건축 시 자연적 감시, 접근통제, 영역성을 제공할 수 있는 CPTED 적극 도입
	6-2. 안전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스마트 스쿨과 연계한 Safety Support System 구축
	6-3. 주민교류 및 소통 활성화를 통한 간접적 범죄방지효과 증대
	7. 광역적 재난정보전달체계 정비
	8. 친환경적 우수관리시스템 도입
9. 원도심의 방재대책	
10.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11. 주민자율적 재해대응체계 구축	

※ 출처: 세종특별자치시(2015), 2030 세종도시기본계획, p.265-267. 참고 재작성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전략계획

-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세종시 청사,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원도심 및 읍·면 소재지역의 거주 및 활동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나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행계획 전무
- 도시쇠퇴와 도시공간구조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 체계적 해결방안의 모색과 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과 도시쇠퇴지역의 기능증진 및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켜 자생적 도시재생 기반 마련
- 과거 부강역세권 활성화 추진경험, 물리·환경부문의 높은 쇠퇴, 활용 가능한 자원 풍부 등을 고려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순위로 본 사업의 대상지가 포함되는 부강역 일원 선정

[표 3-15] 부강역 일원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기본구상

구분	주요내용
지역특성 및 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소금유통의 중심지로 물류·유통·교통에 특화 • 본래 청원군 부용면이었으나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이후 세종시에 귀속 • 부강역 주변을 중심으로 소규모 역세권이 형성되어 있으며 천안·아산으로부터 많은 관광객이 찾았던 지역
부강면 쇠퇴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거주민 삶의 만족도 하락 • 기존 관광객의 외면 및 지역쇠퇴 • 지역의 발전방향 모호
부강면 도시재생유형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강역세권,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거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 필요 •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외부 관광객의 유입을 위한 지역 잠재자원의 적극 활용 • 세종특별자치시 편입 이후, 새로이 부강면의 지역이미지 창출 및 제고를 위한 전략 마련 •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근린재생형(일반형) 도시재생사업 유형 결정
부강면 당면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지역과의 연계발전 전략 미흡 • 부강역세권 활성화 전략 부재 • 노후주택에 대한 대책 시급
부강면 SWOT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OT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rength) 부강역의 입지로 주변부 소규모 역세권 형성, 부강일반사업단지 등 2개 산업단지 입지, 복합물류터미널 입지, 과거 소금유통의 중심지 - (Weakness) 문화 및 체육시설, 공원 등의 기초생활인프라 부족, 부강역 서비스 기반 및 인프라 부족, 주거시설 노후화 - (Opportunity) 지리적으로 건설지역과 청주, 대전과의 접근성 양호, 경부선과 호남고속철도, 경부고속철도 통과 - (Threat) (구)청원군에서 편입된 지역으로 지역정체성 모호, 행복도시와의 인프라 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배후지역으로서 역할 미흡) • SWOT 분석에 따른 전략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전략)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 특화산업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 자족기능 확충 - (W-O전략) 부강역 중심의 서비스 기반 인프라 확충을 통한 부강역세권 활성화 - (S-T전략) 수변지역 개발을 통한 지역정체성 회복 - (W-T전략) 주거 및 교육, 복지기능 확충, 면 소재지 및 취락지 일원의 계획적 개발 유도

※ 출처: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전략계획, p.148-151. 참고 재작성

■ 관련 사업계획 검토

• 부강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선도지구) 사업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1리~부강11리를 대상으로, 배후마을 주민과 내부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생활편의, 문화·복지, 경관개선, 시장 및 상권 활성화 등 거점지역으로 면소재지의 서비스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종합계획 수립
- 부강면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자연경관 유지를 위한 경관개선에서 금차사업과 연계사업으로 부촌길 정비(CPTED 조성)사업 추진
- 부강면 내 중심상업가로인 부촌길을 대상으로 노후건물과 간판으로 인한 불량경관과 혼잡한 가로환경 개선방안 모색
- 2015년에 세종형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선정되어 시행된 ‘부영이 안심마을’과 연계하여 부촌길에 유해환경을 개선함으로써 CPTED 시범사업 추진
- 가로등 및 전신주 변호 설치, 지킴이사, 비상벨 등 CPTED 조성과 관련하여 전문컨설팅을 받아 부강면에 적합한 시설을 조성하고 생활안전 거버넌스 등과 연계

부촌길의 가로환경을 정비함으로써 범죄욕구를 줄이고 사람이 많이 모여 활기찬 가로경관을 조성하여 침체된 상권 활성화

[표 3-16] 부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중 CPTED 관련내용

부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구분	사업목표	기본방향		
경관 개선	부촌길 정비	부강면의 전입인구 증가와 낙후된 가로경관 등 유해환경을 개선하여 범죄예방효과 기대	금차사업	CPTED(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성
				부영이 안심마을과 연계하여 부촌길에 CPTED 시범사업 추진
				전문컨설팅을 받아 적합한 시설 조성 및 생활안전 거버넌스와 연계
				부촌길의 가로환경을 정비함으로써 범죄욕구 감소
			연계사업	활기찬 가로경관을 조성하여 침체된 상권 활성화
				부촌길 가로환경 정비
				상가건물 간판 및 건물입면정비
도로정비와 편의시설 조성				

※ 출처: 세종특별자치시(2016), 부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p.47-51. 참고 재작성

5) 대상지 현황 종합

■ 인구·사회적 현황 종합

• 인구 변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 우려

- 세종특별자치시의 도농복합지역인 부강면과 부강리는 세종시 출범 이후인 2013년부터 부강리의 인구이동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2015년에는 부강리 전체인구의 23.1%에 해당하는 인구가 이동
- 기존의 농촌에서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부강리 전체 인구의 1/4이 바뀌고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우려

• 외국인 및 신규 인구 증가로 인한 기존 주민들 간의 이질감에 의한 갈등 우려

- 2015년 기준 부강면의 외국인 비율은 2012년 대비 48.8%나 증가하였으며, 세종시 편입으로 인한 신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신규 주민들 간 이질감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우려

■ 물리적 현황 종합

• 신규 건축물 증가로 인한 지역 구조 변화

- 세종특별자치시와 인접한 지리적 특성, 대상지 인근에 위치한 산업단지로 인해 신규 거주민들이 증가하고, 신규 주거 및 상업시설, 도시계획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개발됨에 따라 기존의 농경지 중심의 지역구조에서 농촌과 도시지역의 복합적인 특성을 갖는 구조로 변화
- 빠른 지역구조의 변화와 지가상승으로 인해 방치된 나대지와 기존 및 신규 건축물의 혼재, 농경지와 주거시설의 혼재, 공공영역과 사적영역 간의 불명확한 경계 등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협하고 잠재적 범죄유발 가능성이 있는 요인들이 대상지 곳곳에 산재

• 방범시설물 부족으로 인한 범죄 불안감 증가

- 신규 주거시설들이 건축되면서 도시구조가 변화하고 있지만 대상지 면적 대비 CCTV, 가로등 등 방범시설물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됨
- 가로등이 필요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농작물 피해를 우려하는 농업 종사자로 인해 가로등 설치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한 갈등이 농업종사자와 일반 주민들 간 존재

• 문화·운동시설 등 주민이용시설 부족

- 부강역을 중심으로 서쪽 생활권은 상대적으로 다수의 문화·운동·휴게 시설 등이 있으나, 사업대상지에는 주민이용시설이 부족하여 주민 간 교류활동에 한계
- 대상지에 방치되어 있는 공터 및 나대지, 공·폐가 등 주민휴게·운동공간 또는 주민공동이용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자원 존재

■ 범죄 현황 종합

• 주거시설 및 노상에서의 폭력·절도 범죄발생 우려

- 최근 5년간 대상지에서 발생한 주요 범죄유형은 폭력과 절도이며 발생장소는 주거시설, 주거시설 내 노상 주차장, 노상에서 주로 발생
- 폭력은 전체 범죄의 70%이상을 차지하여 폭력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강간·강제추행 등 여성대상 범죄 발생은 발생하지 않아 여성범죄 위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주민들의 여성대상 범죄 불안감은 높음

• 실외 공간에서의 범죄 취약성 높음

- 대상지에서 발생한 총 35건의 범죄 중 주거시설 내에서 발생한 11건을 제외한 24건의 범죄는 실외에서 일어난 점을 미루어 보아 노상, 주택외부, 가로 등 외부 공간에서의 범죄 취약성이 높음

3. 범죄취약공간 분석 및 우선개선구간 선정

1) 대상지 현장조사

1구역

• 주거시설과 나대지 및 농경지와의 모호한 경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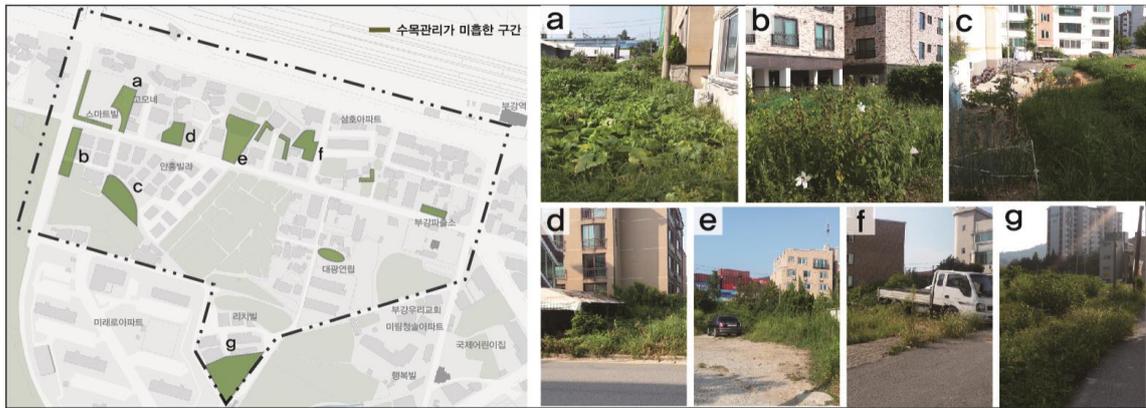
- 기존에 농경지로 이용되던 토지에 주택이 건축되면서 기존 및 신축 주택과 농경지 간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다수
- ㉠~㉦ 주택 경계 부분의 수목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범죄자들이 숨을 수 있는 공간들을 생성하며, 주택 내·외부로부터의 시야 확보가 어려움
- ㉡ 지대의 높이차로 인한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 바로 옆에 위치한 대형트럭 주차장과 건물 사이 공간이 텃밭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관리가 되지 않아 은신공간을 생성
- ㉦ 어린이 놀이시설과 인접해 있으며 차량 접근성이 편리하고 동시에 경계 부분의 나무로 인해 사각지대를 생성하여 범죄자의 도주가 용이



[그림 3-32] (1구역)주거시설의 모호한 경계

• 수목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텃밭 및 공터

- 대상지 곳곳에 방치되거나 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텃밭 및 공터가 존재하며, 자라난 수풀로 인해 은신공간 다수 생성
- ㉠~㉢ 건물 경계에 높게 자란 수풀로 인해 잠재적 은신공간이 생성되며 외부에서 건물 출입자 확인이 어려움
- ㉠~㉦ 무성한 수풀과 방치되어 있는 시설물, 주차 차량으로 인해 은신공간이 생성됨



[그림 3-33] (1구역)수목관리가 미흡한 구간

• 방치된 공 · 폐가 및 컨테이너

- 1구역 내 기존 주택이 모여 있는 동쪽지역에 집중적으로 공 · 폐가 및 컨테이너가 있으며, 임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거나 방치해놓음
- ㉠ 전반적인 수리가 필요한 노후 건물이지만 현재 거의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며, 마을 입구에 해당하는 부강로 진입로에 위치하여 마을 경관을 훼손
- ㉡, ㉢ 철거가 필요한 건물로 출입통제를 위한 문구 및 장애물을 임시로 설치하였으나 사실상 출입통제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
- ㉣, ㉤ 현재 비어있는 건물과 컨테이너로 주 보행로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킴
- ㉥, ㉦ 관리되지 않는 주변 공간과 함께 은신공간을 생성하여 잠재적 범죄 장소로 이용될 가능성 존재



[그림 3-34] (1구역)방치된 공 · 폐가 및 컨테이너

•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명시설이 부족한 어두운 가로

- 밝은 가로등 불빛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경지 주변 도로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람의 얼굴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도로가 어두움
- ㉔ 농경지 부근은 가로등이 연속해서 설치되지 않아 조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음
- ㉕ 다세대 주택 밀집구간으로 건물 사이에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아 야간 시야 확보가 어려움
- ㉖, ㉗, ㉘ 농경지 주변 구간으로 농작물 피해 최소를 위해 가로등 설치 간격이 넓어 주변 공간의 조도가 낮음
- ㉙ 기존 단독주택 밀집구간으로 골목길 입구에 하나의 가로등만 설치되어 있어 충분한 조도 확보가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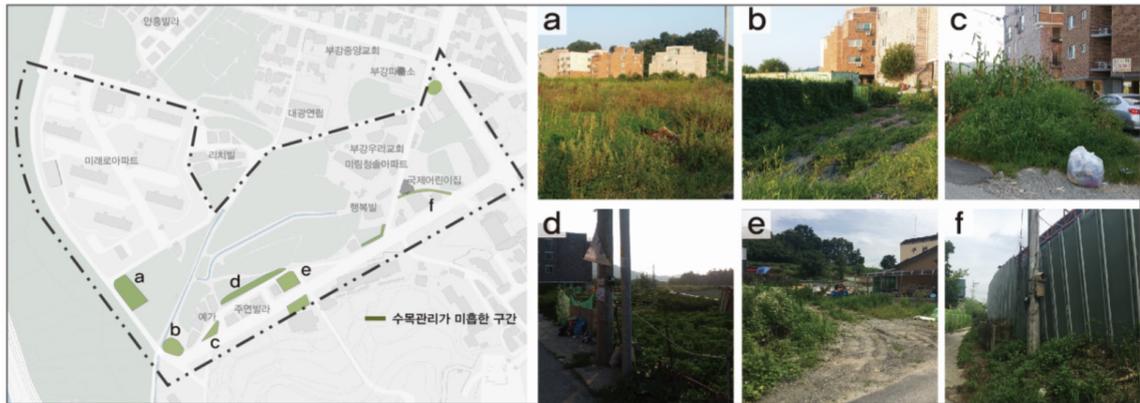


[그림 3-35] (1구역) 야간시야확보가 어려운 구간

2구역

• 농경지 및 나대지 내 수목관리가 미흡한 텃밭 및 공터

- 2구역 내 방치된 텃밭 및 나대지는 주로 농경지 경계 부근에 존재하며, 농경지 일부에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이 건축되면서 방치된 자투리 땅 또는 향후 신규주택 건축 예정지로 보임
- ㉔ 주민들의 산책 동선에 위치한 나대지로 높게 자란 수풀로 인해 시야확보가 어렵고 은폐공간을 생성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됨
- ㉕~㉗ 신축 주택과 인접한 곳에 위치한 나대지로 일부는 텃밭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전반적인 관리 부실로 인해 경관을 저해하며 은신공간을 생성
- ㉘ 어린이집 옆에 위치한 텃밭 뒤편 길로 곡선 형태의 길과 관리가 미흡한 수풀들로 인해 시선 연결이 어려움



[그림 3-36] (2구역) 수목관리가 미흡한 텃밭 및 공터

• 나대지와 어린이집 인근에 방치된 조립식 건물 및 컨테이너

- ㉠, ㉡ 나대지내 방치된 컨테이너는 은신공간을 생성하고 주위의 높은 수풀들로 인해 시야가 차단되어 범죄 위험성이 가중되며, 어린이집 통학로에 방치된 컨테이너는 잠재적 범죄자 은폐장소와 사각지대를 생성하여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협

• 신축 주택과 주택 뒤편 나대지 사이의 모호한 경계

- ㉢ 주택 뒤편 임시로 설치된 울타리는 농경지로부터의 외부인 침입방지기능을 수행하기에 부족

• 2차선 도로에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 대형 트럭

- ㉤ 불법 주·정차된 대형 트럭으로 인해 사각지대와 은폐공간이 생성되며, 향후 CCTV 등 방범시설물이 설치되어도 감시기능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 나대지 및 농경지 내 공사예정지역

- ㉥ 도시 인근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농경지 및 나대지 내 신축 건축물 공사 등 물리적 환경의 변화 가능성이 높음



[그림 3-37] 공사예정지역 및 조립식 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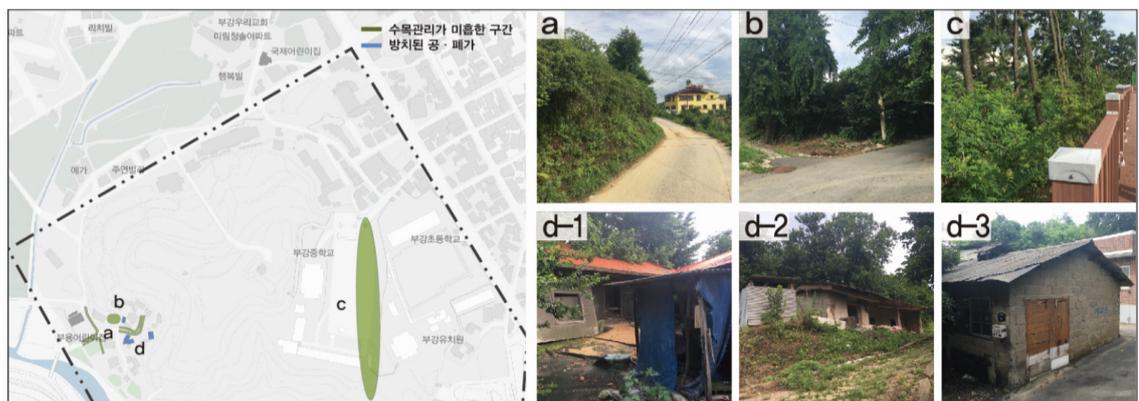
3구역

• 시선연결을 방해하고 어두운 공간을 생성하는 수목 공간

- ㉔, ㉕ 어린이집 통학로 및 노후한 기존 주택지 주변의 무성한 수목으로 인해 시선 연결이 어려우며 주간에도 어두운 공간이 생성됨
- ㉔ 중학교와 초등학교 경계 울타리 뒤편의 조경공간은 사각지대를 생성하여 비행청소년의 모임 장소로 변모하고 있으며, 남쪽 산책길과 이어지는 학교 뒤편 길은 수목관리 미흡으로 인해 주간에도 어두우며 운동 및 휴게시설이 부족하여 주민의 활용도가 낮음

• 기존의 소규모 주거지에 방치된 공·폐가

- ㉔-1~3 기존의 노후한 주거지에 집중적으로 공·폐가가 방치되어 있으며, 출입통제장치가 부재하고 인적이 드문 마을에 위치하여 잠재적 범죄 장소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음



[그림 3-38] 우거진 수목 및 방치된 공·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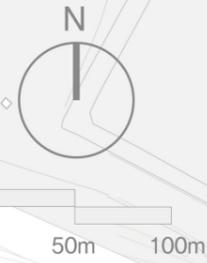
• 부족한 가로등으로 인해 야간 시야확보가 어려운 보행로

- ㉔, ㉕ 금강 주변 산책코스로 이어지는 길로 주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하는 도로이지만 조명시설 부족으로 인해 야간시야 확보가 어려움
- ㉔, ㉕ 기존 주거지 내 유일한 길이지만 조명시설이 부족하여 시야확보가 어려우며, 이로 인한 불안감이 증폭됨
- ㉔ 학교 내 조명시설은 주로 운동장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운동장 주변 산책로에는 조명시설이 전무하여 야간 활동이 불가능



[그림 3-39] 야간 시야확보가 어려운 보행로

세종시 부강면 부강리 현황도



시설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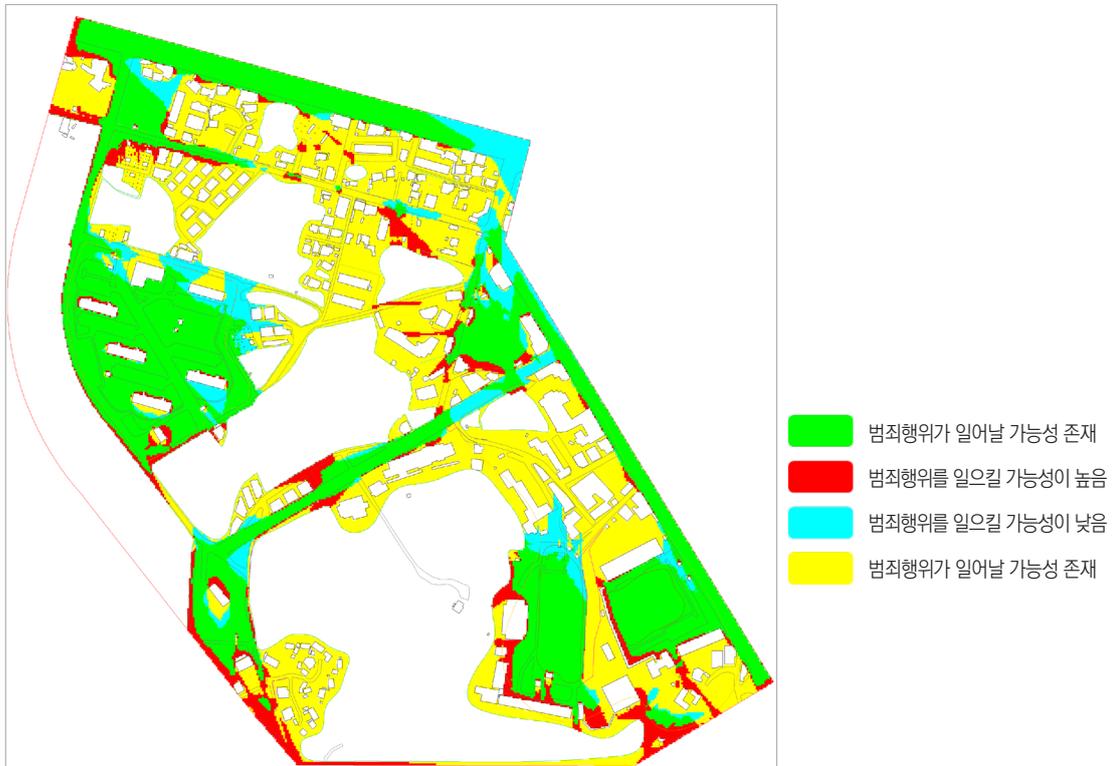
- CCTV
- ◎ 가로등
- ◐ 반사경
- 방치된 공폐가 및 컨테이너 등
- 수목관리가 미흡한 구간
- 공사예정 지역
- 불법 주정차 구역
- 야간시야확보가 어려운 구간
- 나대지, 농경지와 주거시설 간의 모호한 경계

2) WLVAE 및 VGA⁶⁰⁾, GIS 분석

■ WLVAE 및 VGA 분석

• WLVAE 사분위 분포: 시각적 접근과 시각적 노출 정도를 비교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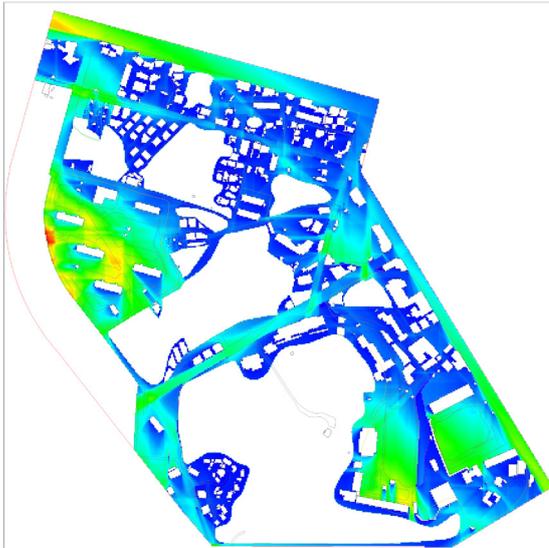
- 전반적으로 대상지 경계 도로들은 대체로 시각적 접근성(VA)과 시각적 노출(VE) 수치가 높지만, 내부 도로와 주거지는 대부분 시각적 접근(VA)과 시각적 노출(VE) 수치가 낮은 편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중심으로 범죄예방대책이 필요
- 3구역의 주거지는 외판 섬처럼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주변 접근로도 시각적 접근성(VA)과 시각적 노출(VE) 수치가 많이 낮아 범죄 발생 가능성 높음
- 1구역의 주거지 또한 넓은 영역에 걸쳐 시각적 접근성(VA)과 시각적 노출(VE) 수치가 낮게 나타나며, 곳곳에 시각적 접근성(VA)이 높은 영역들이 있어 이 장소들을 중심으로 CCTV 등 방범 시설 설치 및 순찰 등 범죄예방대책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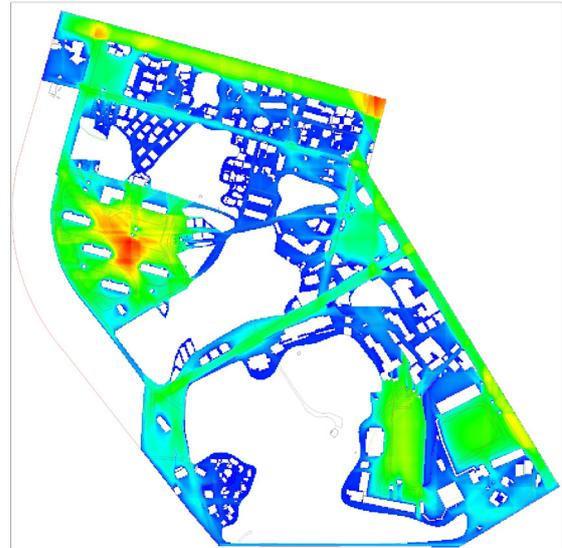
[그림 3-40] 세종 부강리 VAE 분석 결과 : 사분위 분포

60) WLVAE(가중 시각적 접근-노출 모델, Weighted and Layered Visual Access & Exposure)와 VGA(가시성 그래프 방식, Visibility Graph Analysis)는 정량적 공간분석 모델 중 일부 모델로 공간 내 인간행태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범죄위험도를 계속·평가함으로써 공간 내 범죄발생 위험에 대한 예측이 가능. WLVAE 모델은 시지각을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가시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며, VGA 모델은 공간의 잠재적 통행량을 측정하여 공간으로의 접근성과 활동성에 대해 분석 가능(※출처: 조영진, 2016, "공간분석을 활용한 범죄발생 위험지점 예측과 해석", 『auri brief』, v.137, p.1)

- (시각적 접근성(VA) 분포) 2구역 서쪽 미래로 아파트 단지 옆 곡선 도로가 양쪽 길과 아파트 단지를 들여다 볼 수 있어 시각적 접근성(VA)이 높게 나타남
- 주차장, 학교 운동장 등 넓은 영역들이 있는 공간을 중심으로 시각적 접근성(VA)이 상대적으로 높음
- 기존 주거지의 불규칙한 배치 때문에 주거지 안쪽에서의 시각적 접근이 어려워 이를 고려한 범죄예방대책 필요
- (시각적 노출(VE) 분포) 2구역 서쪽 미래로 아파트 단지의 시각적 노출(VE) 수치가 가장 높으며, 도로와 주차장, 학교 운동장 등 넓은 공간들의 시각적 노출(VE) 수치가 높음
- 주거지 대부분이 시각적 노출(VE) 수치가 낮으며, 특히 3구역의 남서쪽 주거지는 시각적 노출(VE)이 완전히 차단된 지역으로 자연적 감시가 어려움
- 즉 주거지역에 대한 자연적 감시 효과를 전반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대책 필요



[그림 3-41] WLVAE 분석결과: 시각적 접근성(VA) 분포



[그림 3-42] WLVAE 분석 결과: 시각적 노출(VE) 분포

• VGA 분석: 통합도 분석

- VGA 분석의 통합도는 대상지의 오른쪽 가로와 1구역 위쪽 가로가 높아 사람들의 통행이 많음을, 3구역 남서쪽의 주거지의 낮은 통합도는 사람들의 통행이 적음을 나타냄
- 2구역 미래로 아파트는 아파트 단지 특성상 통합도가 낮으며 외부인의 출입이 적을 것으로 예측
- 주거지 안쪽은 공용 도로가 많지 않아 통합도가 낮게 분석되며, 이는 사람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
- 접근성이 낮은 내부 가로 및 공간에 대한 사람들의 통행 및 활동을 높이기 위해 물리적, 사회적 대책 필요



[그림 3-43] VGA 분석 결과 : 통합도

• **소결: 자연적 감시와 사람들의 통행 및 활동이 낮은 주거지역 및 내부가로**

- WLVAE, VGA 분석 결과, 대상지 경계 도로에 비해 내부 주거지역과 내부 가로를 중심으로 시각적 접근과 노출수치가 낮아 자연적 감시가 어려우며, 통합도도 낮아 사람들의 통행과 접근이 낮은 것으로 예상
- 이는 주거지역의 건물 배치형태 및 건물구조, 내부가로 구조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기존 주거지역과 내부가로에서의 자연적 감시와 사람들의 통행 및 활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건물 및 가로 구조의 개선과 건물 사이, 가로와 건물 경계 등 관리가 취약한 공간 개선, 자율방범대를 통한 순찰 강화 등에 대한 범죄예방대책 마련 필요

GIS 분석

• CCTV 분석

- 대상지 면적 대비 기존 CCTV가 부족하여 주요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감시가 어려움에 따라 주요 결정 지점을 중심으로 CCTV 신설 필요하며, 낮은 야간조도를 고려한 야간감시 기능이 필수
- 대상지 내 CCTV는 부용어린이집, 부강초등학교 앞에 총 3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부강초등학교 앞 CCTV 중 한 대는 주·정차 단속용 CCTV임
-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많은 부강신대길, 불법 주·정차 다수 발생지점인 부강3길, 국제어린이집 주변, 주민들의 산책동선을 중심으로 CCTV 설치 필요



[그림 3-44] 기존 CCTV 감시범위 분석 결과

• 가로등 범위 분석

- 대상지 경계 부근의 도로는 충분한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야간시야확보가 가능하나 그 외 농경지 및 주거지역은 전반적으로 조명시설이 부족하여 야간통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범죄 불안감을 가증시킴
- 대상지 경계 도로인 북쪽 청연로, 서쪽 부강로, 부강3길 일부 구간은 조명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야간시야확보에 무리가 없으나 그 외 주요 통행로 및 내부 가로의 조명시설이 부족
- 특히 농경지 주변 가로는 농작물 성장을 위해 조명시설이 미설치된 구간이 다수이며, 가로등 설치에 따른 농업 종사자와 일반 주민들 간 갈등이 발생
- 주요 통행로 및 주택 내부, 농경지 주변에 조명시설이 필요하며, 농경지 주변은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명시설 계획이 필요



[그림 3-45] 기존 가로등 범위 분석 결과

4) 지역주민 사전 설문조사

■ 설문조사 개요

- (조사목적) 주민들의 범죄와 안전에 대한 인식변화와 사업 지원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지역주민 대상의 설문조사 계획 및 실시
- (조사기간) 2016년 6월 (약 1개월)
- (표본 수) 97부
- (설문항목) 이웃관계 및 동네사람에 대한 인식, 지역환경에 대한 인식, 범죄에 대한 두려움, 범죄피해경험, 지역의 경찰활동,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 및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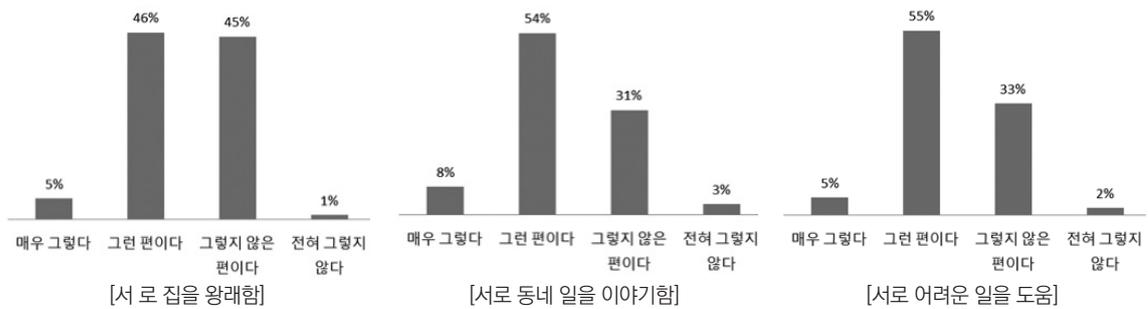
[표 3-17] 주민 설문조사 항목 및 내용

구분	설문내용
선정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나이/거주기간/가족 구성원 수/거주지 주소(읍/면/리)
Part 1. 이웃관계 및 동네사람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에 대한 인식 • 주변 위험 및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응답자 본인과 동네 사람들의 개입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네에 불량스럽게 보이는 학생들이 모여서 담배를 피우거나 시끄럽게 함 - 집 앞에 낯선 사람이 돌아다님 - 집 앞에서 누군가가 괴롭힘을 당하거나 맞고 있음
Part 2. 지역환경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만족도 •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 • 거주하고 있는 동네의 주변환경에 대한 인식 • 거주하고 있는 동네의 범죄를 유발하는 심각한 환경이나 시설
Part 3. 범죄에 대한 두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범죄안전에 대한 인식 • 범죄두려움을 느끼는 장소 • 범죄두려움을 느끼는 상황
Part 4. 범죄피해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이내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범죄피해 경험여부 • 1년 이내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재산피해 경험여부
Part 5. 지역의 경찰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의 경찰관과 접촉한 경험 • 현재 지역에 거주한 이후 경찰서나 지구대에 신고한 경험여부
Part 6.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 및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네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여러 대책 중 우선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의 자율방범활동 강화 -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 운영 - 길거리를 단정하고 깨끗하게 유지 - 길거리와 공공장소에 경찰순찰 강화 - 길거리와 공공장소에 비상벨 설치 - 길거리와 공공장소에 디자인을 통한 환경개선(벽화, 도색) - 지역 환경개선 및 개발에 지역주민 참여 증대 - 지역 내 유해시설 및 환경 정비 - 공공장소 CCTV 설치 -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나 레저시설 마련 - 길거리 조명을 밝게 유지 - 경찰 방법초소 설치
응답자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형태/소유형태/결혼여부 및 결혼상태/최종학력/월평균 소득/직업/고용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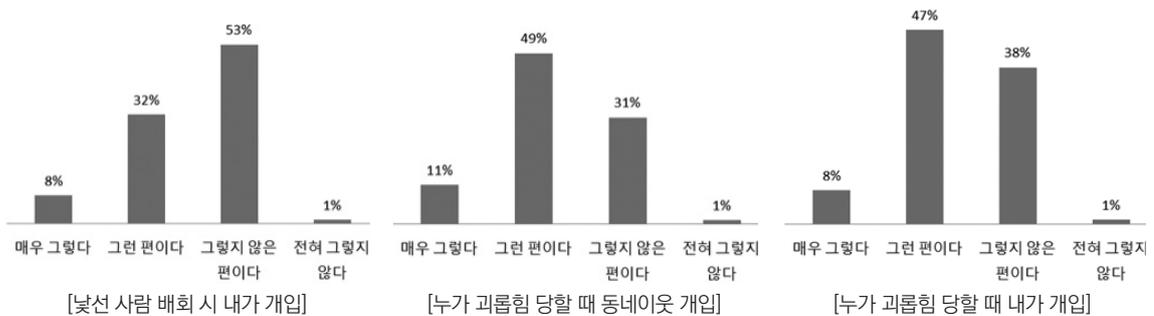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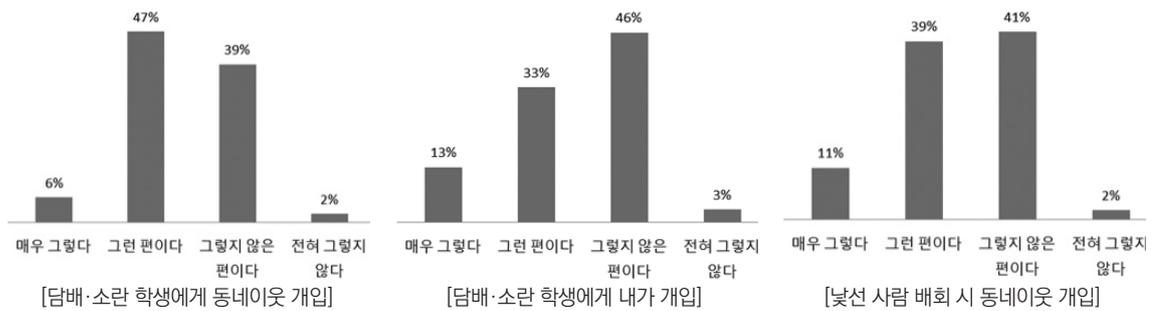
■ 사전 설문조사 결과

• Part 1. 이웃관계 및 동네사람에 대한 인식

- (이웃과의 유대) 응답자의 과반수가 이웃들과 서로 알고 지내며 서로의 집을 왕래하거나 어려운 일을 돕고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변 위험 및 위급한 상황에 대한 개입) 집 근처에서 낯선 사람이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나 이웃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자의 비율이 개입할 것이라는 응답자 비율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 반면, 누군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본인이든 이웃이든 개입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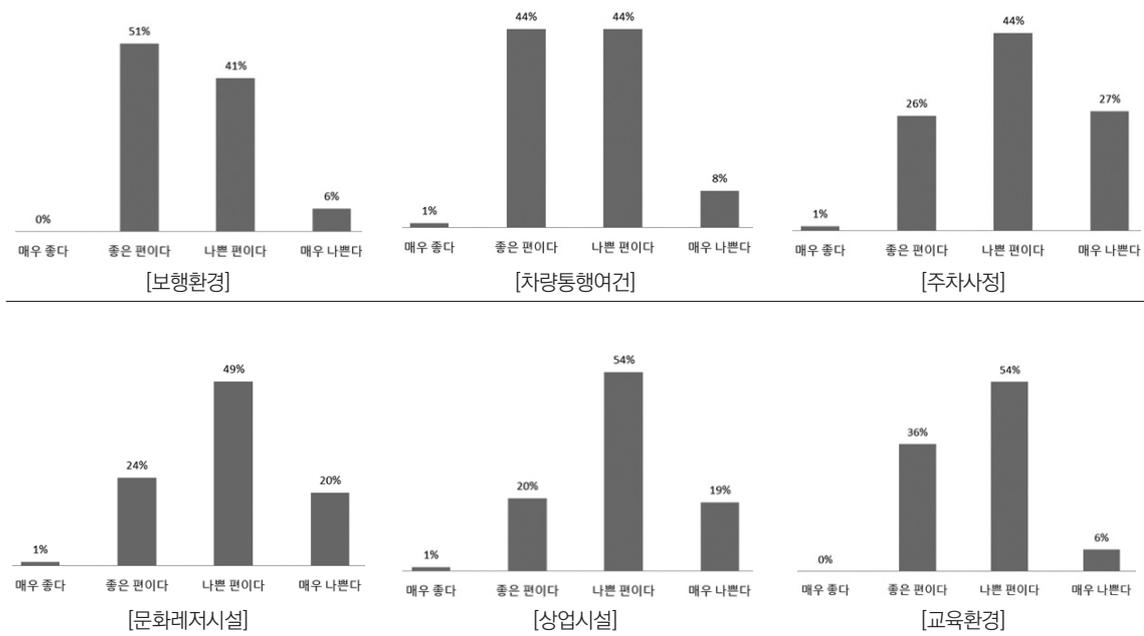
[그림 3-46] 이웃과의 유대를 느끼고 실천하는 정도



[그림 3-47] 주변 위험 및 위급한 상황에 대한 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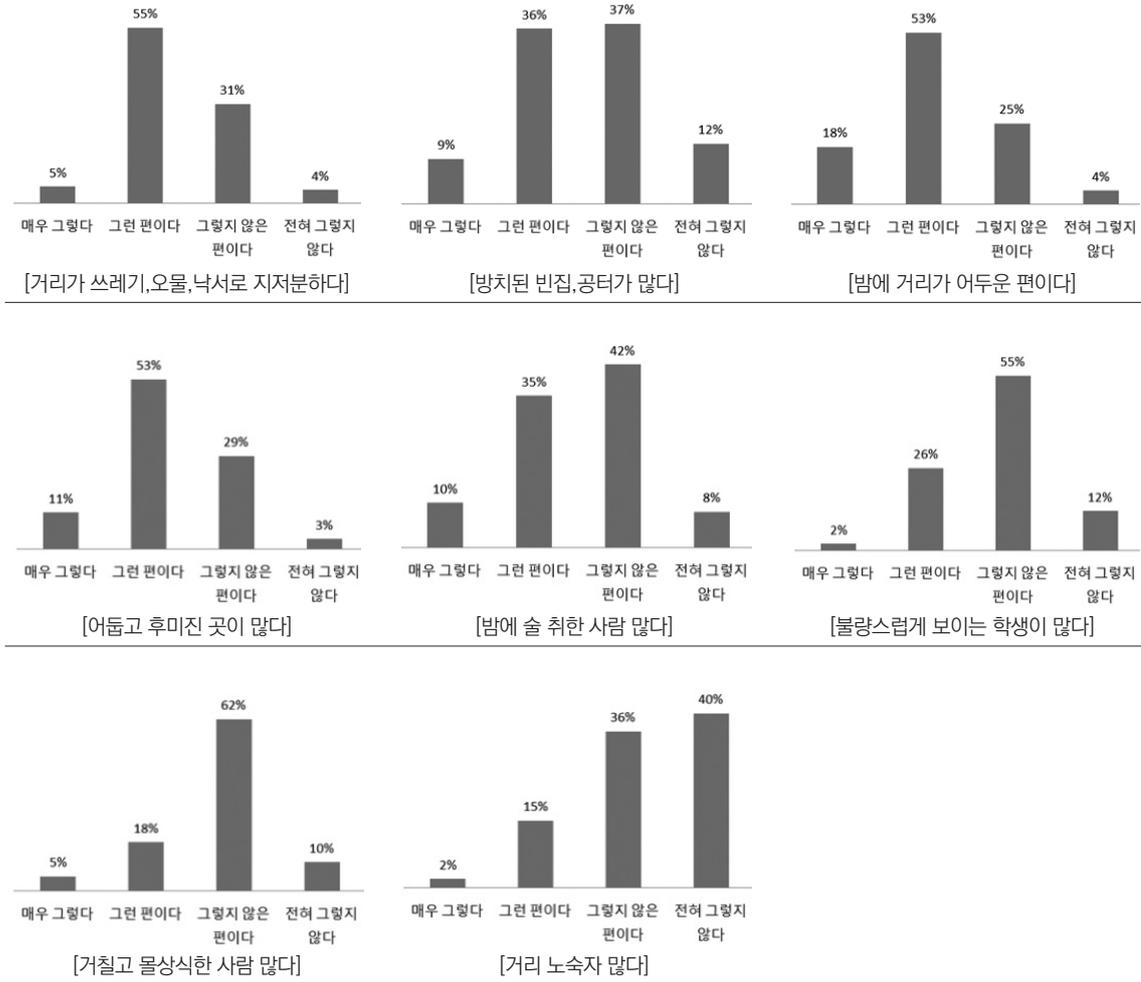
• Part 2. 지역환경에 대한 인식

- (거주지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 거주지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 조사에서는 만족하는 편이라는 답변이 47%, 매우 만족한다는 답변이 8%로 약 55%가 긍정적인 답변을 보임
- (근린환경에 대한 평가) 보행환경은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51%)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47%)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차량통행여건은 나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52%)이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45%)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주차사정, 문화레저시설, 상업시설, 교육환경이 나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71%, 69%, 63%, 60%로 높게 나타남



[그림 3-48] 근린환경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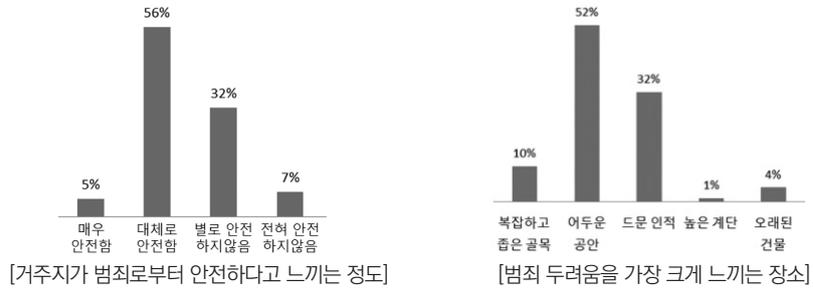
- (주변환경에 대한 평가) 길거리가 지지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0%, 밤에 거리가 어둡다고 응답한 비율이 71%,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64%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물리적 공간이 많은 것으로 파악
- 반면 야간취객, 불량학생, 거칠고 몰상식한 사람, 노숙자는 많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많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 응답자들이 인문적 환경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좋게 평가하는 것으로 확인
- (범죄유발 환경/시설에 대한 의견) 동네에서 범죄를 유발하는 환경/시설 1순위로 '공터'가 가장 많이 지목되었고(30%), 그 다음으로 술집(14%)과 원룸촌(11%) 순으로 언급



[그림 3-49] 근린환경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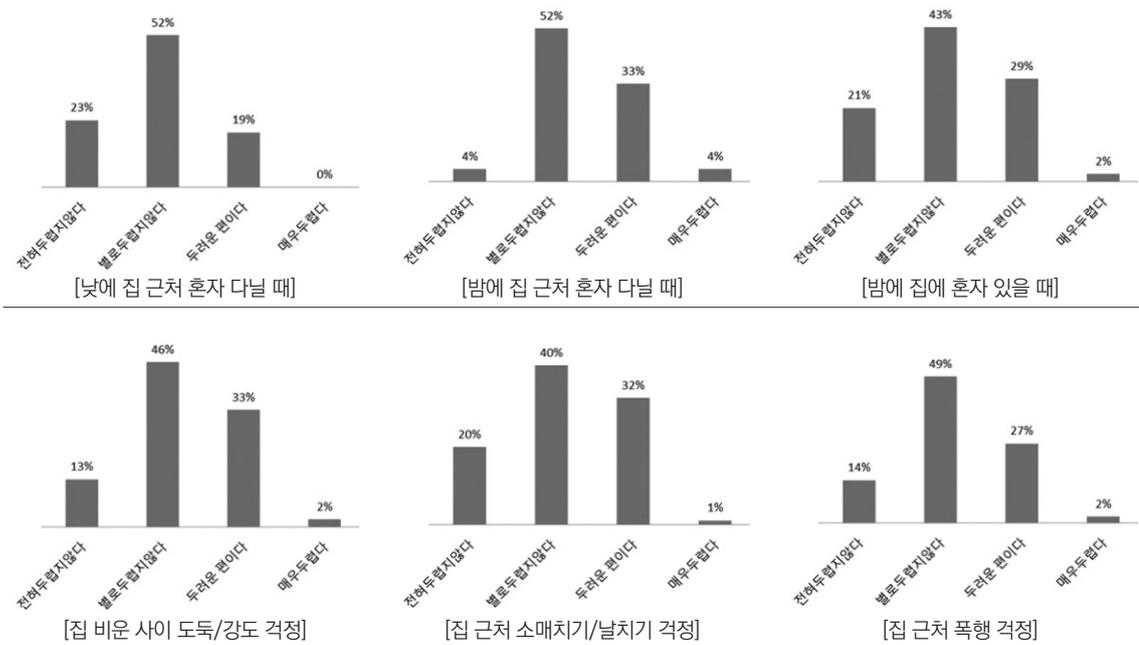
• Part 3. 범죄에 대한 두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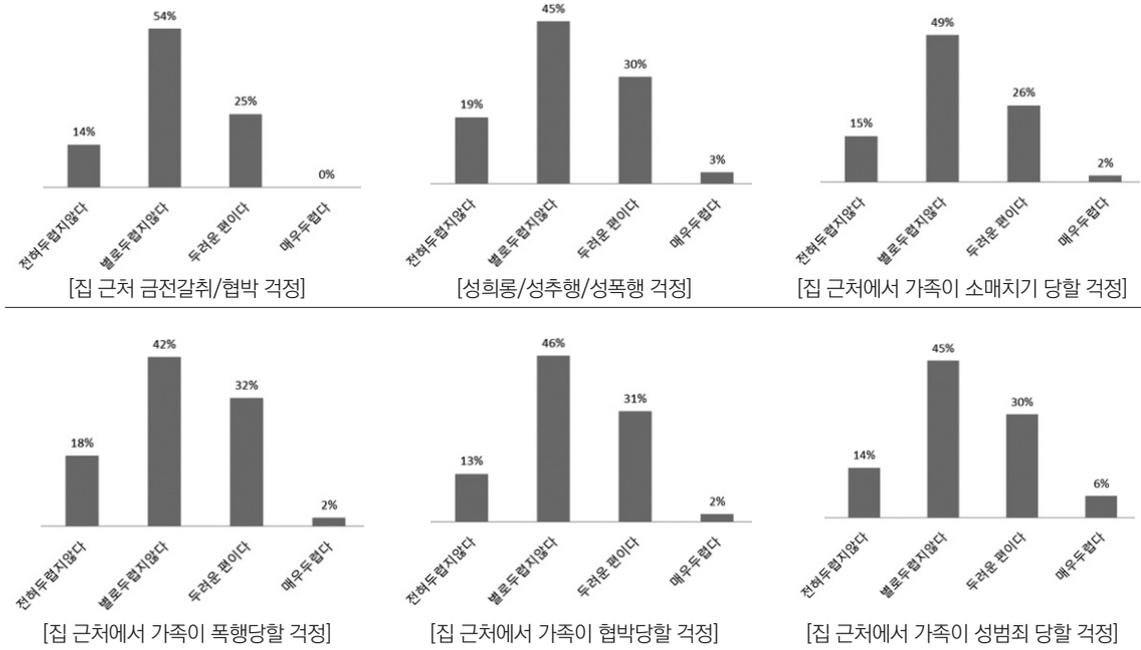
- (범죄로부터 안전감 정도) 거주지역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하여는 전체 응답자의 61%가 안전하다고, 나머지 39%는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장 크게 느끼는 장소로는 응답자의 과반수(52%)가 어두운 공간을 선택하였고, 그 다음으로 인적이 드문 장소(32%)나 복잡하고 좁은 골목(10%) 순으로 언급



[그림 3-50] 범죄로부터의 안전감(左), 두려움 유발 장소(右)

- (예상되는 범죄상황에 대한 두려움 정도) 거주지 특히 집 근처에서 본인이나 가족이 당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전반적으로 두렵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
- 집 근처에서 혼자 다닐 때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낮에는 두렵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75%)이 밤에는 약 19% 감소하고, 동시에 낮에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밤에는 2배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야간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확인
- 범죄 유형별로는 뚜렷한 경향이 보이지 않으나 집을 비운 사이 도둑이나 강도가 침입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다른 범죄 피해 두려움에 비해 약소하게나마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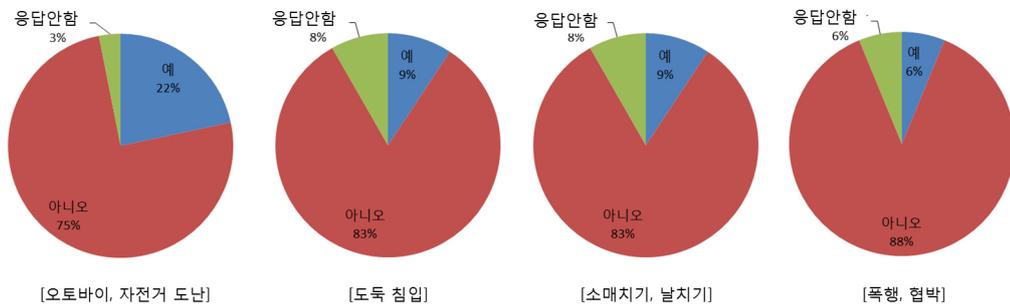




[그림 3-51] 예상되는 범죄상황에 대한 두려움 정도

• Part 4. 범죄피해경험

- (거주지역 내 범죄피해경험) 범죄피해 유경험자들 중에서는 집 주변에서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도난당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비율이 22%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



[그림 3-52] 거주지역 내 범죄피해경험

- (주택 내 범죄피해경험) 대물범죄 피해에 관하여는 차량이 누군가에 의해 파손된 경험이 있는 응답자 비율이 18%로, 다른 대물범죄 피해에 비해 많은 것으로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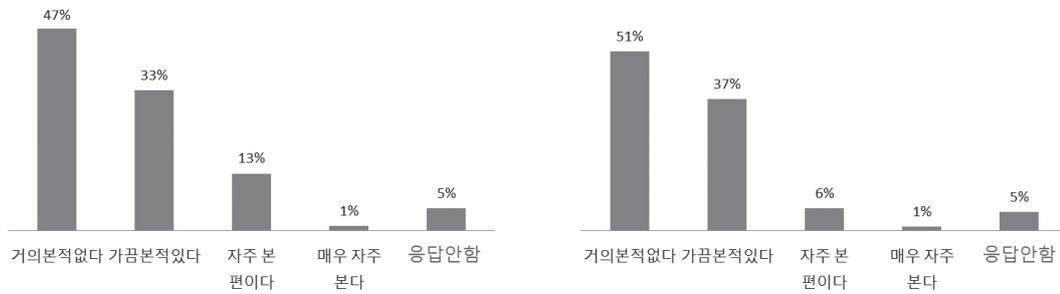


[그림 3-53] 주택 내 범죄피해경험

• Part 5. 지역의 경찰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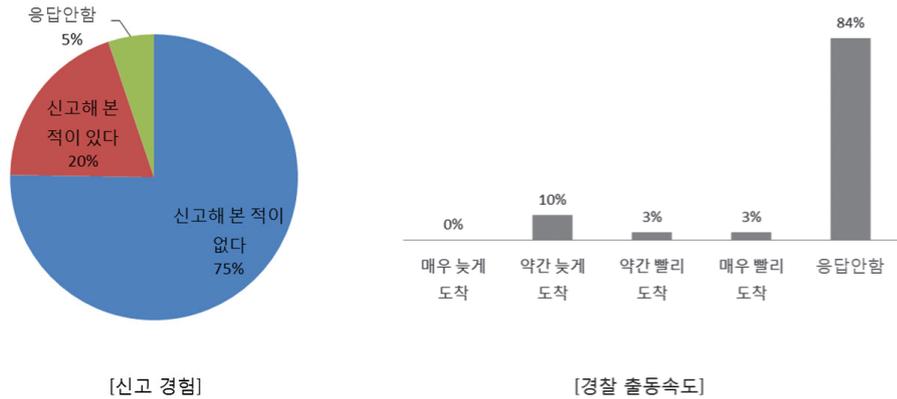
- (경찰관 접촉경험) 차량순찰에 비해 도보순찰 목격경험이 적은 것으로 확인

- 동네에서 경찰관이 차량으로 순찰하는 것을 가끔 본 적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네에서 경찰관이 걸어서 순찰하는 것을 거의 본 적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54] 경찰관 도보순찰 목격 경험(좌측부터 낮/밤)

- (경찰서 및 지구대 신고경험) 경찰서나 지구대에 신고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 비율이 20%로, 신고를 했을 때 경찰이 약간 늦게 도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0%로 높았으나, 출동한 경찰의 대응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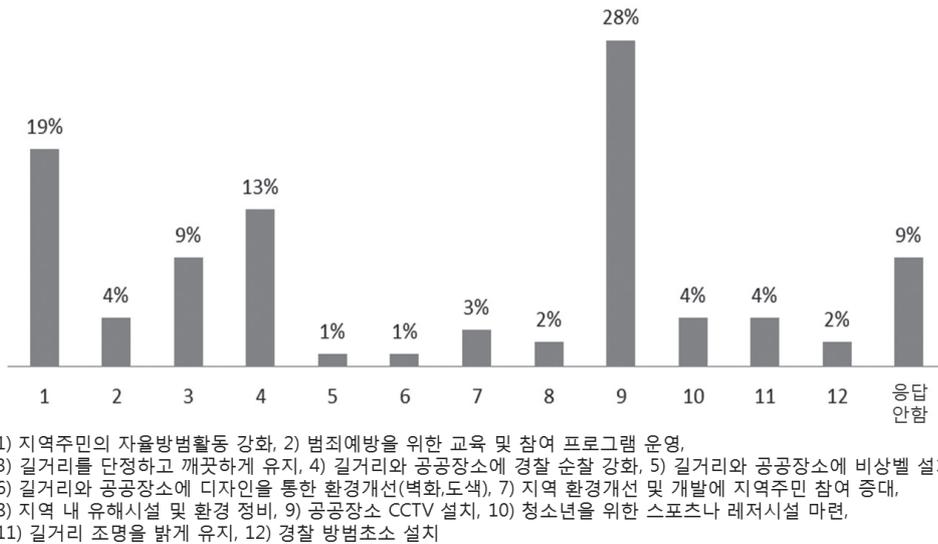


[그림 3-55] 경찰서 및 지구대 신고 경험

• Part 6.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 및 활동

- (지역안전을 위해 필요한 범죄예방대책) 응답자가 생각하는 지역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범죄예방대책 1순위, 2순위 모두 '공공장소 CCTV 설치'가 각각 28%, 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순위는 '공공장소 CCTV 설치'와 '길거리와 공공장소에 비상벨 설치'가 14%로 동일하게 높게 나타남

- 대부분의 응답자가 CCTV, 비상벨 등 물리적 장치에 의한 기계적 감시에 의지하고 있음을 확인



[그림 3-56] 지역안전을 위해 필요한 범죄예방대책

5) 마을안전지도

■ 지역주민이 불안감을 느끼는 범죄취약공간

• 외국인 노동자, 외지인 등 신규 유입인구에 대한 불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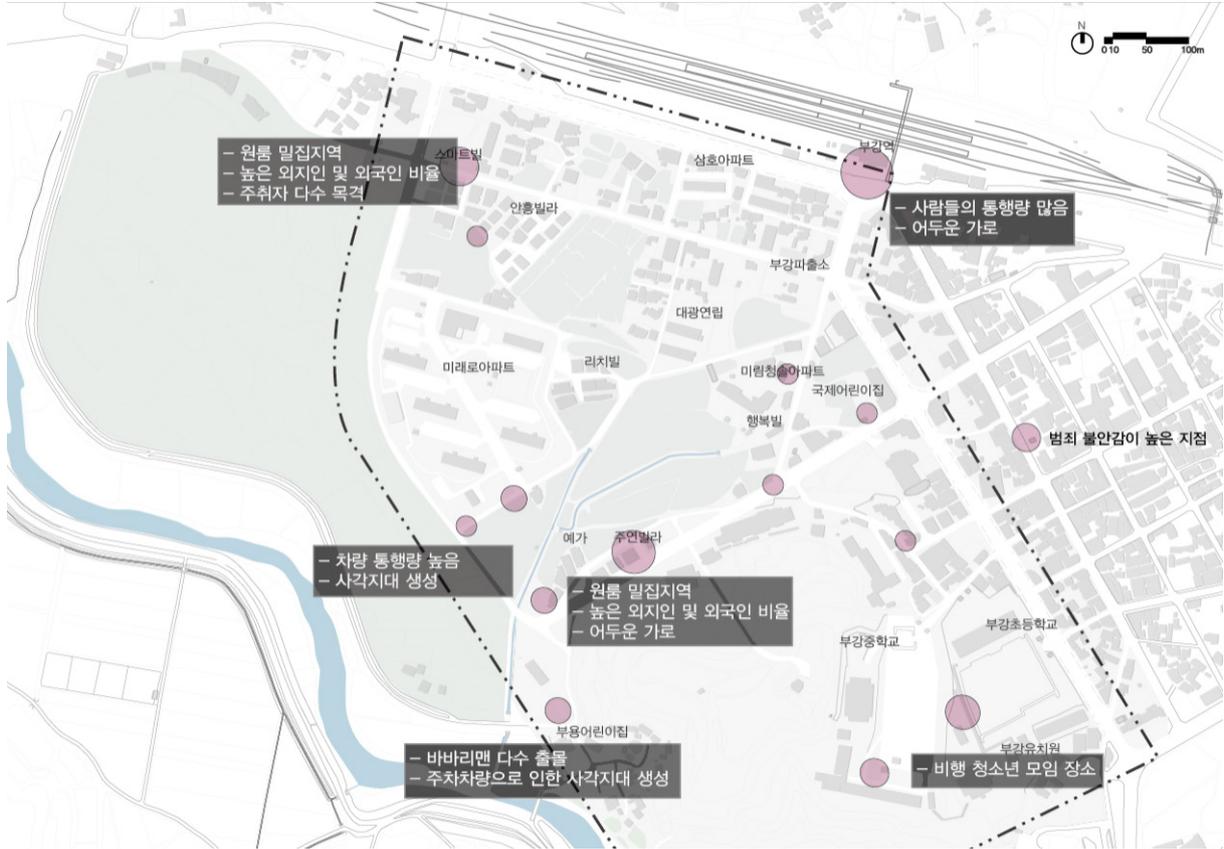
- 인근 산업공단에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세종시 인근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새롭게 유입되는 외지인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신규 주민들 간 이질감과 불안감 호소
- 대상지내 편의점 앞 중심으로 주취자에 대한 불안감 호소

•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사각지대에 대한 불안감

- 미래로 아파트 옆 퇴미길과 부강3길을 이용하는 차량들과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들로 인해 발생하는 사각지대에 대한 불안감 높음
- 특히 금강변 산책길로 이어지는 구역에 차량을 이용한 바바리맨이 다수 출몰하여 여성들의 불안감 높음

• 가로등, CCTV 등 부족한 방법시설물에 대한 신설 요구

- 부족한 조명시설로 인해 전반적으로 가로가 어둡고 그로 인한 불편함이 높지만 야간 조명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문제해결에 한계
- 대상지 내 CCTV는 3대에 불과하여 사실상 범죄 불안공간에 대한 감시가 어려운 상태로 통행량 및 불안감이 높은 지점 중심으로 CCTV 신설 요구가 높음



[그림 3-57] 마을안전지도

6) 대상지 내 취약요소 종합 및 우선개선구간 선정

■ 범죄취약요소 종합

• (1구역) 주택지, 농경지 등 여러 공간특성으로 인한 갈등 및 범죄 위험성 증가

- 1구역은 사람과 차량 통행이 많은 주요 공간이지만 주거공간의 모호한 영역성, 부족한 방범시설, 증가하는 신규 주민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주거 및 가로 환경의 안전성 저하
- 신규 주택 및 인구가 증가하여 기존·신규 주민 간 잠재적 갈등 가능성이 높음
- 기존의 농경지 및 나대지, 주택 및 상업시설이 혼재하여 공적·사적 영역이 모호한 공간 다수이며,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내부가로 및 농경지 인근 지역에서의 야간 보행이 어려움
- 편의점, 식당 등 일부 상업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주취폭력에 대한 불안감 높음

• (2구역) 농경지 인근 주민 산책 동선의 안전 취약

주민들의 산책로로 주로 이용되는 구역으로 수목관리 등 관리가 미흡한 농경지 및 나대지(공사예정지역)로 인해 사각지대 및 은신공간을 생성하는 공간 다수

야간조명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구역 전반에 걸쳐 가로등이 부족하여 야간 안전에 취약

• (2구역) 어린이집 등하원로의 보행 안전 취약

- 국제어린이집과 부용어린이집의 주요 등하원로로 방치된 조립식 건물 및 컨테이너, 수풀관리가 미흡한 나대지로 인해 어린이 보행 안전에 취약
- 특히 금강 산책로로 이어지는 등·하원로는 성범죄자(바바리맨)다수 출몰지역으로 인근에 차량을 주·정차하고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강3길을 중심으로 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각지대 및 은신공간 제거 필요

• (3구역) 범죄에 취약한 기존의 노후 주거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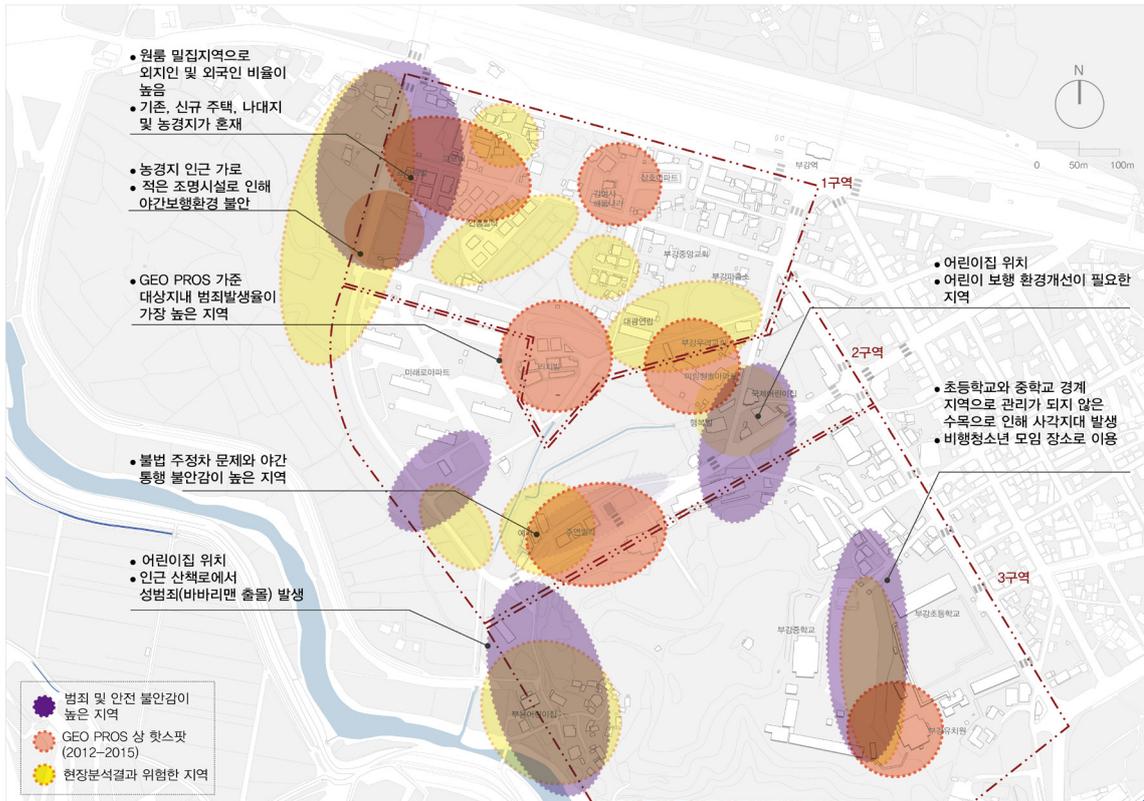
- 부용어린이집 인근에 형성된 기존 주거지역 내 방치된 다수의 공·폐가는 범죄 발생 장소로써 이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대상지에서 섬처럼 분리된 주거지역 특성상 범죄 발생 시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 존재

• (3구역) 중학교·초등학교 간 경계지역에서 청소년 범죄 발생 가능성 증가

- 울창한 수목으로 인해 생성되는 사각지대는 비행청소년들의 모임장소로 이용될 수 있으며, 남쪽 산책길로 이어지는 학교 경계 공간은 별다른 출입통제시설이 없어 외부인으로 인한 범죄위험 가능성 존재

- 산책길과 이어지는 경계공간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울창한 수목은 기존 가로등 불빛을 차단하여 경계지역 주변에서의 야간시야확보가 불가능

• 범죄취약지역 종합 현황도



[그림 3-58] 범죄취약지역 현황도

■ 우선개선구간 선정

• 기본선정 방향

- 3개 구역의 범죄취약현황과 요인을 고려하여 유사한 유형의 구간 중심으로 구간별 맞춤형 범죄예방 대책 수립

• 1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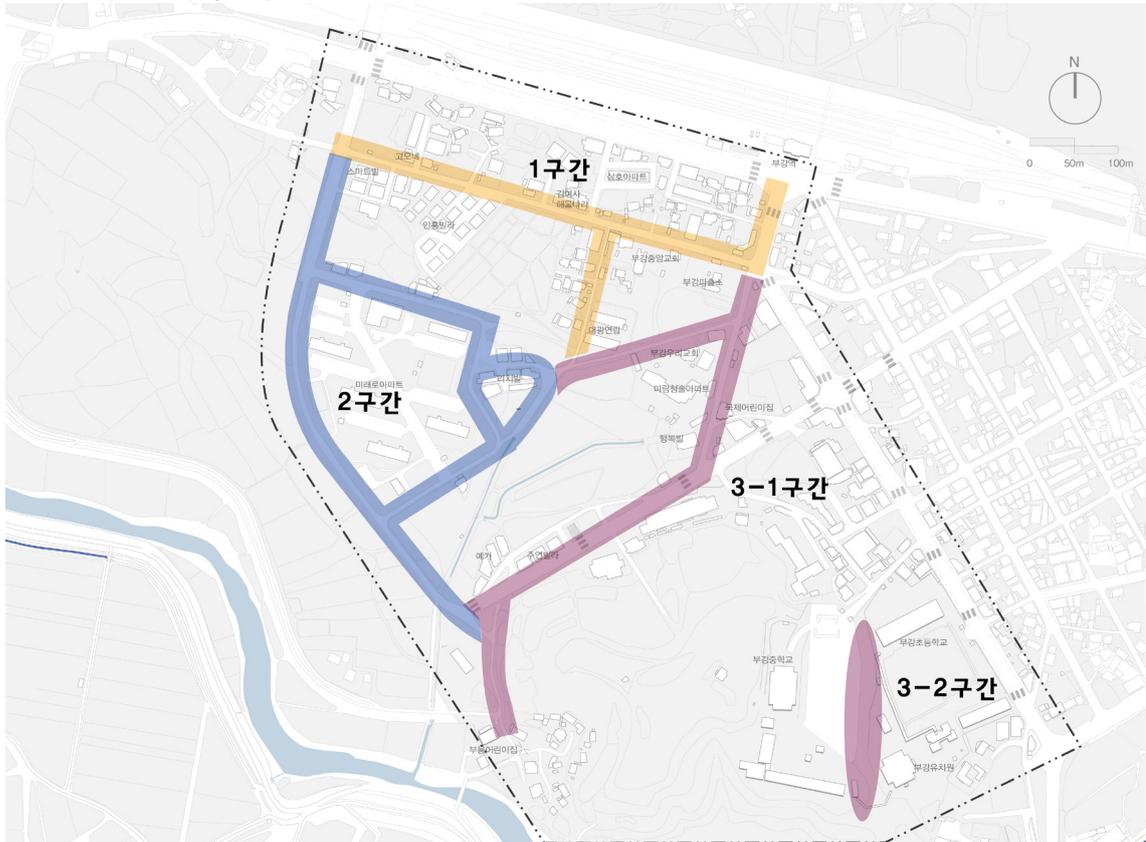
- 대상지의 주요가로인 1구역의 부강신대길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신규주택과 기존주택, 농경지와 주택지가 혼재한 구간

• 2구간

- 2구역의 퇴미로를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농경지와 주거시설이 혼재하고 주민들의 산책경로로 이용되는 구간

• 3구간

- 2구역과 3구역의 부강3길, 퇴미로 일부를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어린이집, 학원, 학교가 위치하여 학생들의 보행이 많은 구간



[그림 3-59] 우선개선구역

4. 기본방향 및 전략

■ 대상지 현황 종합

• 물리적·사회적 범죄 현황

- 빠른 인구유입으로 인해 기존 공동체가 와해될 위험이 있으며, 향후 기존 주민과 새로 전입한 주민들 간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 존재
- 어두운 가로에 대한 불안감이 높지만 가로등 설치에 대한 농업 종사자와 일반 주민들 간 갈등 존재
-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접한 지리적 특성으로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토지판매 및 신규주거지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소유주로 인한 나대지 및 공·폐가 다수
- 외지인의 유입으로 발생하는 주택수요를 맞추기 위해 신축 연립 및 다세대 주택 난립
- 주요 범죄유형은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절도 및 폭력이며 나대지 및 공터에 대한 범죄불안감 높음

■ 기본방향 설정

• 도시 및 사회구조의 변화를 고려한 주민안심 주거공간 조성

- 기존 주민과 새로 전입한 주민들 간 공동체와 농업 종사자들과 일반 주민들 간 공동체 활성화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접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빠르게 개발되는 신규주거지 및 기존의 노후 주거지, 공공가로 개선
- 방치된 나대지, 공터, 농경지 등 지역 곳곳에 위치한 취약공간개선 및 불법 주·정차 방지 등을 통해 보행안전 강화



[그림 3-60] 범죄예방 조성사업의 기본방향

■ 전략 수립

• 방치되어 있는 나대지 및 공·폐가를 활용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 신규 주민과 기존 주민간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나대지 및 공·폐가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주민편의공간 및 운동·휴게공간을 조성

- 주민들의 일상 속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 학생, 외국인, 노인 등 주민들의 특성에 따라 축제, 교육 등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연계·계획

• **농경지·나대지와 공공가로·주거시설간의 영역성 강화 및 지역 이미지 강화**

- 방치되어 있는 나대지 및 공터와 가로, 주거지, 공공시설과의 경계를 구분하여 영역 정리

- 신규 및 기존 주거시설과 외부 공간의 경계를 강화하여 주거지로서의 영역성 강화

- 부강리의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설정, 강화하여 부강리의 지역 이미지 강화

• **농작물 성장을 고려한 방범시설물 확충 및 범죄위험공간 정리를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전반적으로 부족한 가로등, CCTV 등의 방범시설물을 확충하고, 특히 농작물 성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로등을 설치하여 농민과 주민과의 갈등 해결

- 방치되어 있는 나대지, 공·폐가를 주민공동시설로 조성 또는 출입통제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범죄발생장소로서의 이용 가능성 차단

- 시야를 차단하는 무성한 수풀 및 수목을 정리하여 충분한 가시거리를 확보하고 정돈된 지역이미지 제공

- 경관을 저해하는 시설물을 제거 및 보수하여 전반적인 지역 경관 개선

• **변화하는 지역 구조를 고려한 공공가로 및 공간 중심의 범죄예방대책 수립**

-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는 마을구조를 고려하여 향후 개발 가능성을 반영한 범죄예방대책 수립

- 효과의 지속성을 위하여 공공가로 및 공간을 중심으로 계획 수립

-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나대지 관련 계획을 유동적으로 수립하며, 공간구조에 따라 가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설물 계획강화



[그림 3-61] 도농복합형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의 전략

우선개선 구간별 세부전략 수립

- 1구간: 기존·신규 주민을 위한 안전한 가로 및 주거환경 조성
 - 통행이 많은 부강역 앞과 부강신대길을 중심으로 가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기존·신규 주민들 간 지역 커뮤니티를 강화
- 2구간: 농작물 성장을 고려한 가로환경 개선으로 야간 보행안전 증대
 - 주민들의 운동 동선인 퇴미로를 중심으로 농작물 성장을 고려한 가로등 계획으로 야간시야 확보
- 3구간: 낮은 보행량을 고려한 안전한 통학로 조성 및 학생들의 커뮤니티 공간 조성
 - 3-1구간: 국제어린이집과 부용어린이집으로 이어지는 구간으로 어린이 보행안전 강화를 위한 가로환경 개선 및 어린이 커뮤니티 공간 조성
 - 3-2구간: 부강중학교와 초등학교 경계의 사이 공간을 학생 휴게 공간으로 조성

5. 맞춤형 범죄예방 환경조성방안

1) 1구간

■ 전략 1: 방치되어 있는 나대지 및 공·폐가를 활용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 공·폐가 철거 후 마을광장 조성

- 마을 주요 진입로에 위치한 부강파출소 앞 공·폐가는 마을 경관을 저해하며 사각지대 및 은신공간을 생성
- 공·폐가 철거 후 부강역을 이용하는 사람과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소규모 마을광장을 조성하여 부강리의 영역성을 강화하고 범죄유발 가능공간을 제거



[그림 3-62] 경관을 저해하고 은신공간을 생성하는 부강역 인근 공·폐가



[그림 3-63] 마을광장 사례 이미지
※출처: <http://www.designboom.com/architecture/>

• 방치되어 있는 건물을 활용한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 대상지 주요 가로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쓰임이 없는 건물로 활용이 가능할 경우 대상지내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고 주민 교류 및 보행활동 활성화 가능
-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계획과 연계하여 마을공방 등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



[그림 3-64] 부강신대길 주변 방치되어 있는 공가 및 조립식 건물

• 방치되어 있는 나대지를 나눔 주차장 및 텃밭으로 조성

- 1구간을 중심으로 주거시설이 신축되면서 건물 사이 또는 건물 경계에 소규모 나대지가 생성되었으며, 미흡한 수목관리로 인해 시야 차단 및 은신공간 생성 등 보행 불안감이 가중
- 주차장으로 이미 이용되는 나대지는 나눔 주차장으로 정비하여 주민들의 주차장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안전한 주차공간을 조성하고, 나대지 일부를 텃밭 및 화단으로 조성하여 주 가로의 공간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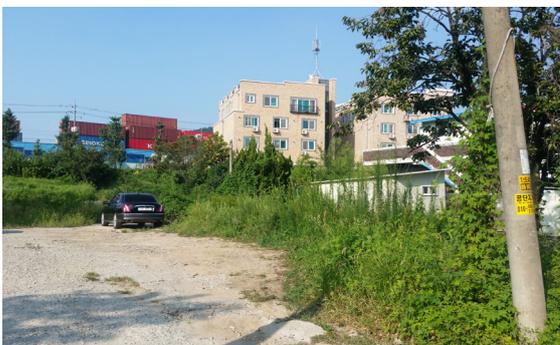


[그림 3-65] 수물로 인해 시야가 차단되는 나대지



[그림 3-66] 텃밭 예시

※출처: <http://www.goesan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17>



[그림 3-67] 주차장으로 일부 이용되고 있는 나대지



[그림 3-68] 나눔 주차장 예시

※출처: <http://buildabetterburb.org/copenhagen-green-city-green-parking/>

■ 전략 2: 농경지·나대지와 공공가로·주거시설간의 영역성 강화 및 지역 이미지 강화

• 부강역 앞 노후 철제 가림막 철거 후 부강리 안내게시판 설치

- 마을경관을 훼손하는 부강역 앞에 위치한 노후 철제 가림막을 철거하고 안내게시판을 설치하여, 부강리의 역사, 자원, 주요지점 등에 대한 안내와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부강리의 지역 이미지와 영역성을 강화



[그림 3-69] 부강역 앞 지하분한 철제가림막



[그림 3-70] 마을 안내판 예시

※출처: <http://blog.busan.go.kr/2783>

• 주요 가로 진·출입로에 셉테드 적용 안내시설 설치 및 바닥 도색

- 1구간의 주요 가로 진·출입로에 셉테드 적용 안내시설과 주요지점 안내 이정표를 설치하여 마을의 영역성 강화

• 농경지 및 나대지와 주거시설간 경계에 투시형 울타리 설치

- 난립한 주거시설의 경계 대다수는 나대지 또는 농경지와 맞닿아 있고 관리되지 않은 수풀로 인해 외부인의 출입 확인이 어려우며 외부로부터의 침입에 취약
- 주거시설 경계에 투시형 울타리를 설치하여 건물 내·외부에서의 감시를 원활하게 하며 잠재적 침입 가능성을 최소화



[그림 3-71] 외부로부터의 침입에 취약한 주택 경계

• 노후한 담벼락 중심의 벽면 도색

- 유지관리가 미흡하고 노후한 담장은 지역의 경관 이미지를 저해하며 붕괴위험이 있어 보행 안전을 위협
- 단순한 디자인을 활용한 벽면도색과 정비를 통해 보행 안전과 경관 이미지를 향상



[그림 3-72] 유지보수 및 벽면 도색이 필요한 담장

■ 전략 3: 농작물 성장을 고려한 방법시설물 확충 및 범죄위험공간 개선

• 공·폐가 출입시설 설치

- 1구간에 존재하는 공·폐가 중 일부는 나무판자와 안내문을 이용해 임시출입통제를 하고 있지만 효과성이 낮아 잠재적 범죄자의 은신장소 및 범죄장소로 이용될 가능성 존재
- 불필요한 출입을 막고 공·폐가 내·외부에서 감시가 용이하도록 투시형 구조의 출입통제시설 설치



[그림 3-73] 임시로 출입을 통제한 공·폐가

• 텃밭 및 공터의 수풀 정리

- 건물 사이 또는 건물 및 도로 경계 등 수풀이 우거진 공간은 시야 차단으로 인한 감시효과 저하 및 은신공간 생성 등 보행 불안감을 높이는 요인
- 사람의 허리 높이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주기적인 관리 필요

• 농작물 성장을 고려한 울타리 조명 설치

- 야간 조명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농업 종사자들 가로등 설치를 반대하거나 임의적인 가로등을 소등하여 1구간 곳곳에 야간 보행 불안감이 높음
- 농경지 주변에는 5룩스 이하의 울타리 또는 바닥조명을 계획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야간 보행 불안감을 저하

• 주요 가로 진출입로에 CCTV 및 비상벨 설치

- 1구간 주요 진출입로에 CCTV 및 비상벨을 설치하여 차량 및 사람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감시하고 관련 안내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경각심을 고조

• 내부 가로에 가로등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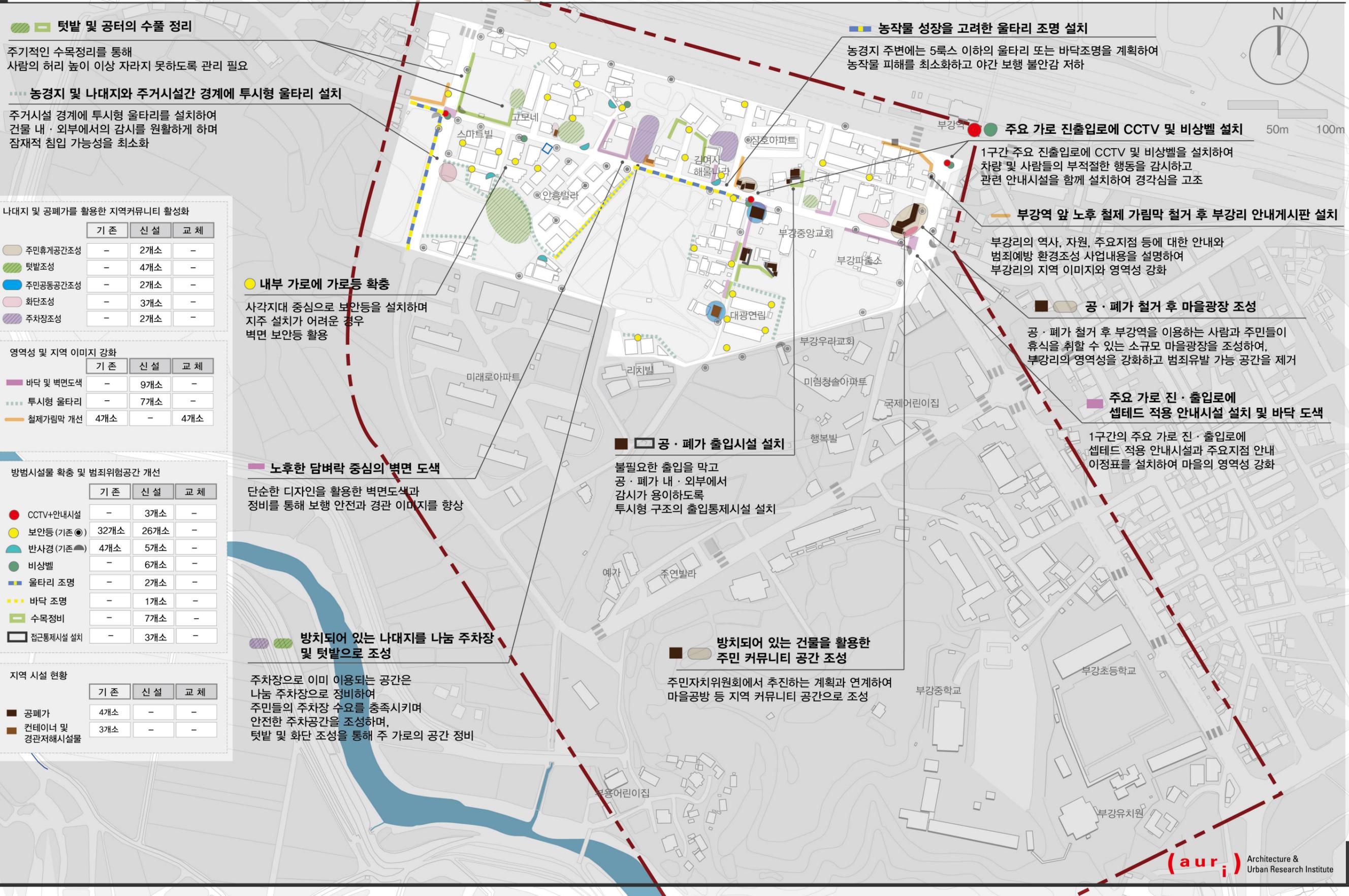
- 기존 주거지뿐만 아니라 신규 연립 및 다세대 주택지 내부 가로의 조명시설 부족으로 인해 주민들의 야간 보행 불안감이 높음
- 사각지대 중심으로 보안등을 설치하며 지주 설치가 어려운 경우 벽면 보안등 활용

〈1구간: 기존·신규 주민을 위한 안전한 가로 및 주거환경 조성〉

전략1	방치되어있는나대지 및 공·폐가를 활용한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공·폐가 철거 후 마을광장 조성
		방치되어 있는 건물을 활용한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방치되어 있는 나대지를 나눔 주차장 및 텃밭으로 조성
전략2	농경지·나대지와 공공가로·주거시설간의 영역성 강화 및 지역 이미지 강화	부강역 앞 노후 철제 가림막 철거 후 부강리 안내게시판 설치
		주요 가로 진·출입로에 셉테드 적용 안내시설 설치 및 바닥 도색
		농경지 및 나대지와 주거시설간 경계에 투시형 울타리 설치
		노후한 담벼락 중심의 벽면 도색
전략3	농작물 성장을 고려한 방법시설물 확충 및 범죄위험공간 개선	공·폐가 출입시설 설치
		텃밭 및 공터의 수풀 정리
		농작물 성장을 고려한 울타리 조명 설치
		주요 가로 진출입로에 CCTV 및 비상벨 설치
		내부 가로에 가로등 확충

[그림 3-74] 전략에 따라 1구간에 적용된 기법

세종시 부강면 부강리 기본계획안 1구간 : 기존·신규 주민을 위한 안전한 가로 및 주거환경 조성



● ■ 텃밭 및 공터의 수목 정리

주기적인 수목정리를 통해 사람의 허리 높이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관리 필요

⋯ 농경지 및 나대지와 주거시설간 경계에 투시형 울타리 설치

주거시설 경계에 투시형 울타리를 설치하여 건물 내·외부에서의 감시를 원활하게 하며 잠재적 침입 가능성을 최소화

나대지 및 공폐가를 활용한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기 존	신 설	교 체
주민주거공간조성	-	2개소	-
텃밭조성	-	4개소	-
주민공동공간조성	-	2개소	-
화단조성	-	3개소	-
주차장조성	-	2개소	-

영역성 및 지역 이미지 강화

	기 존	신 설	교 체
바닥 및 벽면도색	-	9개소	-
투시형 울타리	-	7개소	-
철제가림막 개선	4개소	-	4개소

방범시설물 확충 및 범죄위험공간 개선

	기 존	신 설	교 체
CCTV+안내시설	-	3개소	-
보안등 (기존●)	32개소	26개소	-
반사경 (기존▲)	4개소	5개소	-
비상벨	-	6개소	-
울타리 조명	-	2개소	-
바닥 조명	-	1개소	-
수목정비	-	7개소	-
접근통제시설 설치	-	3개소	-

지역 시설 현황

	기 존	신 설	교 체
공폐가	4개소	-	-
컨테이너 및 경관저해시설물	3개소	-	-

● 내부 가로에 가로등 확충

사각지대 중심으로 보안등을 설치하며 지주 설치가 어려운 경우 벽면 보안등 활용

■ 노후한 담벼락 중심의 벽면 도색

단순한 디자인을 활용한 벽면도색과 정비를 통해 보행 안전과 경관 이미지를 향상

■ 방치되어 있는 나대지를 나눔 주차장 및 텃밭으로 조성

주차장으로 이미 이용되는 공간은 나눔 주차장으로 정비하여 주민들의 주차장 수요를 충족시키며 안전한 주차공간을 조성하며, 텃밭 및 화단 조성을 통해 주 가로의 공간 정비

■ 공·폐가 출입시설 설치

불필요한 출입을 막고 공·폐가 내·외부에서 감시가 용이하도록 투시형 구조의 출입통제시설 설치

■ 방치되어 있는 건물을 활용한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계획과 연계하여 마을공방 등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

■ 농작물 성장을 고려한 울타리 조명 설치

농경지 주변에는 5룩스 이하의 울타리 또는 바닥조명을 계획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야간 보행 불안감 저하

● 주요 가로 진출입로에 CCTV 및 비상벨 설치

1구간 주요 진출입로에 CCTV 및 비상벨을 설치하여 차량 및 사람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감시하고 관련 안내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경각심을 고조

■ 부강역 앞 노후 철제 가림막 철거 후 부강리 안내게시판 설치

부강리의 역사, 자원, 주요지점 등에 대한 안내와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내용을 설명하여 부강리의 지역 이미지와 영역성 강화

■ 공·폐가 철거 후 마을광장 조성

공·폐가 철거 후 부강역을 이용하는 사람과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소규모 마을광장을 조성하여, 부강리의 영역성을 강화하고 범죄유발 가능 공간을 제거

■ 주요 가로 진·출입로에 셉테드 적용 안내시설 설치 및 바닥 도색

1구간의 주요 가로 진·출입로에 셉테드 적용 안내시설과 주요지점 안내 이정표를 설치하여 마을의 영역성 강화

2) 2구간

■ 전략 1: 방치되어 있는 나대지 및 공·폐가를 활용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 나대지를 활용한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 주민들의 주요 산책로인 2구간은 개발지역으로 예상되는 넓은 면적의 나대지가 방치되어 있으며, 높게 자란 수풀들로 인해 시야가 차단되고 잠재적 범죄유발 공간을 생성
- 넓은 면적의 나대지를 활용한 임대 텃밭을 조성하여 인근 도시인 또는 신규 주민 대상의 도시·주말 농장으로 활용
- 리치빌 앞 나대지를 활용하여 산책로와 연계한 주민 운동·휴게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가로 이용 활성화 증대
- 사각지대를 생성하는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불법 주·정차구역(부강3길) 인근 나대지에 나눔 주차장을 조성하여 차량을 이용한 범죄 가능성 차단 및 보행 시야 확보

■ 전략 2: 농경지·나대지와 공공가로·주거시설간의 영역성 강화 및 지역 이미지 강화

• 향후 개발 가능성을 고려한 가변형 울타리 설치

- 나대지 활용이 가능한 경우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이 가능하나, 향후 개발예정인 나대지는 토지 소유주의 협조가 어려운 경우가 다수
- 향후 개발 가능성을 고려하여 설치위치 변경이 용이하고 감시효과를 높일 수 있는 투시형, 가변형 울타리를 설치하여 나대지와 도로 간 영역성을 구분하고 범죄행위의 노출 위험성을 저감

■ 전략 3: 농작물 성장을 고려한 방범시설물 확충 및 범죄위험공간 개선

• 농작물 성장을 고려한 울타리 및 볼라드 조명 설치

- 미래로 아파트 단지과 넓은 면적의 농경지 사이 퇴미길은 야간조명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가로등이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야간보행 불안감이 높은 구간
- 5룩스 이하의 울타리 조명과 바닥조명을 계획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동시에 야간시야를 확보하여 산책 동선 유도



[그림 3-75] 바닥조명 예시

※출처: http://www.seouland.com/arti/society/society_general/556.html



[그림 3-76] 난간 조명 예시

※출처: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H-Dvr&articleno=6035113&bloghome_menu=recenttext

<2구간: 농작물 성장을 고려한 가로환경개선으로 야간 보행안전 증대>

<p>전략1</p>	<p>방치되어있는 나대지 및 공·폐가를 활용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p>	<p>나대지를 활용한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p>
<p>전략2</p>	<p>농경지·나대지와 공공가로·주거시설 간의 영역성 강화 및 지역 이미지 강화</p>	<p>향후 개발 가능성을 고려한 가변형 울타리 설치</p>
<p>전략3</p>	<p>농작물 성장을 고려한 방범시설물 확충 및 범죄위험공간 개선</p>	<p>농작물 성장을 고려한 울타리 조명 설치</p>

[그림 3-77] 전략에 따라 2구간에 적용된 기법

세종시 부강면 부강리 기본계획안 2구간 : 농작물 성장을 고려한 가로환경 개선

나대지를 활용한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각지대를 생성하는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불법 주·정차구역(부강3길) 인근 나대지에 나눔 주차장을 조성하여 차량을 이용한 범죄 가능성 차단 및 보행 시야 확보

나대지 및 공폐가를 활용한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기 존	신 설	교 체
주민주거공간조성	-	1개소	-
텃밭조성	-	1개소	-
주차장조성	-	1개소	-

영역성 및 지역 이미지 강화

	기 존	신 설	교 체
투시형 울타리	-	3개소	-

방범시설물 확충 및 범죄위험공간 개선

	기 존	신 설	교 체
CCTV+안내시설	-	1개소	-
보안등 (기존 ●)	14개소	2개소	-
반사경 (기존 ◐)	-	1개소	-
비상벨	-	1개소	-
울타리 조명	-	1개소	-
바닥 조명	-	2개소	-

지역 시설 현황

	기 존	신 설	교 체
컨테이너 및 경관저해시설물	1개소	-	-

나대지를 활용한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리치빌 앞 나대지를 활용하여 산책로와 연계한 주민 운동·휴게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가로 이용 활성화 증대

나대지를 활용한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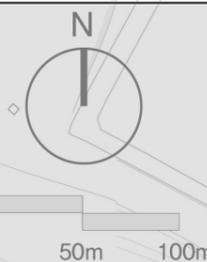
넓은 면적의 나대지를 활용한 임대 텃밭을 조성하여 인근 도시인 또는 신규 주민 대상의 도시·주말 농장으로 활용

향후 개발 가능성을 고려한 가변형 울타리 설치

향후 개발 진행시 설치위치 변경이 용이하고 감시효과를 높일 수 있는 투시형, 가변형 울타리를 설치하여 나대지와 도로 간 영역성을 구분하고 범죄행위의 노출 위험성을 저감

농작물 성장을 고려한 울타리 및 볼라드 조명 설치

5룩스 이하의 울타리 조명과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은 바닥조명을 계획하여 농작물 피해 최소화, 야간시야 확보 및 산책 동선 유도



3) 3구간

■ 전략 1: 방치되어 있는 나대지 및 공·폐가를 활용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 방치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활용한 어린이 커뮤니티 공간 조성

- 국제어린이집 주변에 방치된 조립식 건물 및 컨테이너는 범죄장소 및 은신장소를 제공하여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협
- 어린이집과 연계하거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커뮤니티 공간(어린이 도서관 등)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거리에서의 어린이 및 학부모의 활동 증대



[그림 3-78] 방치된 조립식 건물 및 컨테이너



[그림 3-79] 어린이 도서관 예시

※출처: <http://www.tourdemonde.com/>

• 노후 컨테이너 철거 후 어린이 놀이시설과 연계·확장

- 어린이집 주요 통학로에 방치된 컨테이너는 경관을 저해하며 내부로의 출입이 용이하여 범죄장소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컨테이너 뒤쪽으로 사각지대를 생성
- 대광연립의 어린이 놀이시설과 연계하여 어린이의 다양한 활동과 학부모의 교류를 도모하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공간을 활성화



[그림 3-80] 공터 내 방치된 컨테이너

• 관리가 부실한 텃밭 정리 및 소규모 화단 조성

- 가로 곳곳에 관리가 부실한 텃밭 및 공터를 소규모 화단으로 조성하여 가로 이미지 개선

■ 전략 2: 농경지·나대지와 공공가로·주거시설간의 영역성 강화 및 지역 이미지 강화

• 주요 통원로 입구에 바닥 도색 또는 아스팔트 스탬핑 포장

- 국제어린이집과 부용어린이집 통학로는 최고속도 30km제한 안내시설판과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지만 실제 차량 속도의 저감 효과는 불확실
- 주요 통학로 입구에 바닥 도색 또는 아스팔트 스탬핑 포장을 이용하여 통학로의 영역성을 강화하여 차량 및 보행자들의 주의 환기

• 노후 철제 가림막 개선

- 국제어린이집 뒤편의 노후 철제 가림막은 후미진 공간 이미지를 강화하여 보행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유발
- 어린이가 선호하는 디자인을 활용하여 철제가림막을 개선하여 밝은 공간 이미지 부여



[그림 3-81] 국제어린이집 뒤편의 철제 가림막



[그림 3-82] 철제 가림막 개선 예시

• 농경지 및 나대지와 주거시설간 경계에 투시형 울타리 설치

- 나대지와 주거시설 간, 가로와 나대지 간 경계를 구분하기 위하여 투시형 울타리를 설치하며, 개발이 예상되는 나대지 경계는 가변형 디자인을 활용하여 유동성 있게 적용
-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을 구분하여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침입방지기능을 강화

■ 전략 3: 농작물 성장을 고려한 방범시설물 확충 및 범죄위험공간 개선

• 주요 가로 진·출입로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및 비상벨 설치

- 불법 주·정차된 대형트럭은 사각지대를 생성하여 CCTV 감시 및 보행자의 자연 감시효과를 감소시켜 범죄발생 및 범죄자의 도주 용이성을 높임
- 주요 통학로 진·출입로에 주·정차 단속 CCTV 및 비상벨을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해 발생하는 사각지대 등 범죄유발요인 제거

• 주요 통원로에 가로등 확충

- 부강3길에서 부용어린이집으로 이어지는 통학로와 금강변 산책길로 이어지는 길에 가로등을 신설하여 야간 보행안전을 도모

• 어린이집 주변 공·폐가 출입시설 설치

- 부용어린이집 서쪽편의 기존 주거지는 외진 지역에 형성되어 은폐공간을 다수 생성하며, 공·폐가 3채가 출입통제시설 없이 방치되어 있어 범죄 장소로 이용될 가능성 내재

- 사람들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출입통제시설 중심으로 공·폐가를 정비하며, 주변 수목정리도 함께 병행하여 잠재적 범죄 위험 장소를 제거



[그림 3-83] 출입통제장치가 필요한 기존 주택지의 공·폐가

〈3구간: 낮은 보행량을 고려한 안전한 통학로 조성 및 학생들의 커뮤니티 활동 강화〉

전략1	방치되어있는 내대지 및 공·폐가를 활용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방치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활용한 어린이 커뮤니티 공간 조성
		노후 컨테이너 철거 후 어린이 놀이시설과 연계·확장
		관리가 부실한 텃밭 정리 및 소규모 화단 조성
전략2	농경지·나대지와 공공가로·주거시설간의 영역성 강화 및 지역 이미지 강화	주요 통원로 입구에 바닥 도색 또는 아스팔트 스탬핑 포장
		노후 철제 가림막 개선
		농경지 및 나대지와 주거시설간 경계에 투시형 울타리 설치
전략3	농작물 성장을 고려한 방범시설물 확충 및 범죄위험공간 개선	주요 가로진·출입로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 및 비상벨 설치
		주요 통원로에 가로등 확충
		어린이집 주변 공·폐가 출입시설 설치

[그림 3-84] 전략에 따른 3구간에 적용된 기법

세종시 부강면 부강리 기본계획안 3구간 : 안전한 통학로 및 학생들의 커뮤니티 공간 조성

●● 주요 가로 진·출입로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및 비상벨 설치

주요 통원로 진·출입로에 주·정차 단속 CCTV 및 비상벨을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유발요인 제거

나대지 및 공폐가를 활용한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기 존	신 설	교 체
주민주거공간조성	-	3개소	-
주민공동공간조성	-	1개소	-
텃밭조성	-	1개소	-
화단조성	-	4개소	-

영역성 및 지역 이미지 강화

	기 존	신 설	교 체
바닥 및 벽면도색	-	2개소	-
쓰레기 제거 및 쓰레기통 설치	1개소	-	1개소
투시형 울타리	-	2개소	-
철제가림막 개선	2개소	-	2개소

방범시설물 확충 및 범죄위험공간 개선

	기 존	신 설	교 체
CCTV+안내시설	1개소	4개소	-
보안등(기존)	30개소	21개소	-
반사경(기존)	5개소	5개소	-
비상벨	-	4개소	-
울타리 조명	-	1개소	-
수목정비	-	8개소	-
접근통제시설 설치	-	3개소	-

지역 시설 현황

	기 존	신 설	교 체
공폐가	3개소	-	-
컨테이너 및 경관저해시설물	2개소	-	-

관리가 부실한 텃밭 정리 및 소규모 화단 조성

가로 곳곳에 관리가 부실한 텃밭 및 공터를 소규모 화단으로 조성하여 가로 이미지 개선

주요 통원로 입구에 바닥 도색 또는 아스팔트 스탬핑 포장

주요 통원로 입구에 바닥 도색 또는 아스팔트 스탬핑 포장을 이용하여 영역성을 강화하여 차량 및 보행자들의 주의 환기

어린이집 주변 공·폐가 출입시설 설치

사람들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출입통제시설 중심으로 공·폐가를 정비하며, 주변 수목정리도 함께 병행하여 잠재적 범죄 장소를 제거

노후 컨테이너 철거 후 어린이 놀이시설과 연계·확장

대광연립의 어린이 놀이시설과 연계하여 어린이의 다양한 활동과 학부모의 교류를 도모하는 공간을 조성하여 공간 및 가로 활성화

방치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활용한 어린이 커뮤니티 공간 조성

어린이집과 연계하거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커뮤니티 공간(어린이 도서관 등)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거리에서의 어린이 및 학부모의 활동 증대

주요 통원로에 가로등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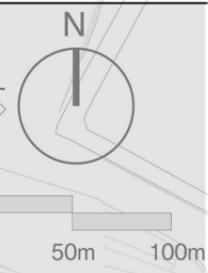
부강3길에서 부용어린이집으로 이어지는 통원로와 금강변 산책길로 이어지는 길에 가로등을 신설하여 야간 보행안전을 도모

노후 철제 가림막 개선

어린이가 선호하는 디자인을 활용하여 철제가림막을 개선하여 밝은 공간 이미지 부여

농경지 및 나대지와 주거시설간 경계에 투시형 울타리 설치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을 구분하여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침입방지 강화 및 범죄행위의 노출 저감



4) 주민 활동 프로그램

• 수확철 순찰 프로그램

- 2~3가구로 구성된 순찰조를 편성하여 수확철 범죄취약 시간대, 취약지역을 순찰하여 농작물 절도 등의 범죄 예방
- 관내 지구대 및 경찰서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교차순찰 또는 동시순찰 시행

• 조경정리 프로그램

- 자전거 순찰대 등 주민자치활동단체와 연계하여 주기별(월/분기/반기) 조경 정리의 날을 정해 주민 참여 유도
- 화단이 조성된 경우 화단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화단 가꾸기 관련 행사 주최



[그림 3-85] 농작물 절도 예방 순찰 사례

※출처: <http://www.newseyes.co.kr/news/view?no=10439>



[그림 3-86] 주민주도의 조경 정리 활동 사례

※출처: <https://news.suwon.go.kr/main/section/view?idx=1024009>

•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

- 기존 및 신규 주민을 대상으로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텃밭 조성 및 농작물 재배 실습프로그램 추진 (관에서 강사 섭외·파견)
- 구간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텃밭 가꾸기 콘테스트 등을 개최하여 참여의지 향상
- 기존 주민, 신규 주민, 외국인을 대상으로 텃밭 작물을 이용한 요리 대회, 수확물 나누기, 장터 등 개최하여 주민 교류 확대 및 우호 증진



[그림 3-87] 텃밭작물 축제 사례(마포구)

※출처: <http://blog.naver.com/gr22nade/220069050012>



[그림 3-88] 구간별 담당자 지정 사례

• 텃밭 임대 및 판매 프로그램

- 주변 도시민 및 신규 주민 대상 주말 텃밭 임대 및 판매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나대지를 활용하며, 판매 수익금은 주민자치위원회 지원금으로 운용하여 주민자치활동 강화
- 관련 임대차, 판매 관련 매뉴얼을 제작하고, 필요한 농기구, 창고 등 시설 및 공간을 제공하여 효율성 증대



[그림 3-89] 안산시 주말농장 사례

※출처: <http://nongeop.iansan.net/urban/cityAgriculture/KitchenGarden.jsp?menuId=05012001>

• 자전거 순찰대 지원 프로그램

- 부강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전거 순찰대 지원
- 대상지 포함 부강리의 전반적인 지역을 순찰하며 매일 저녁 19:00~21:00 사이에 순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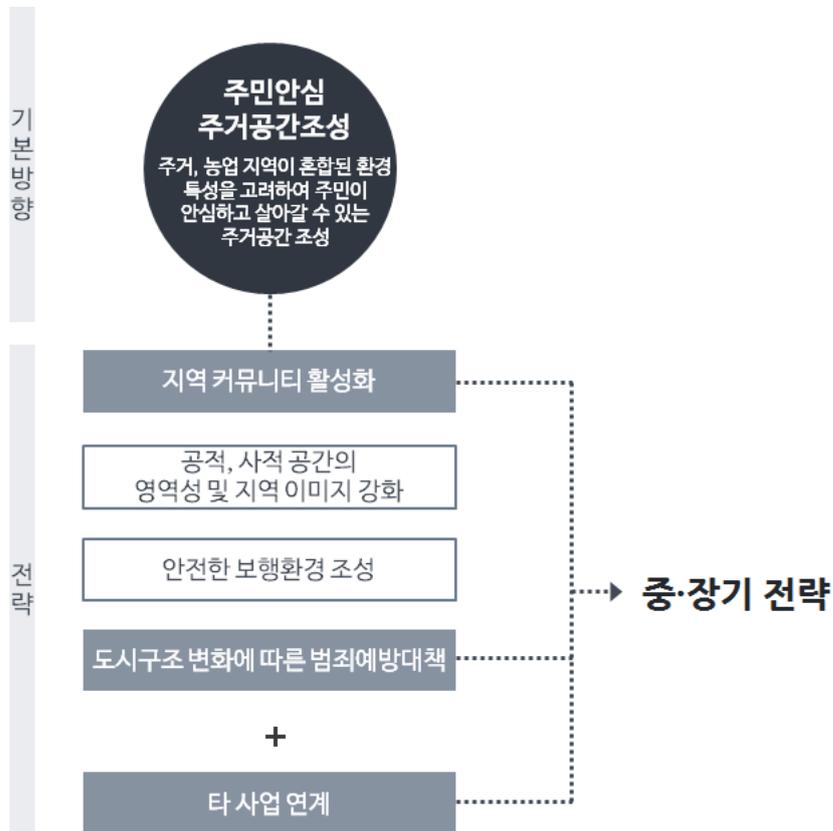
[그림 3-90] 부강리 자전거 순찰대

※ 출처: 세종특별자치시 내부자료(2016)

5) 중·장기 범죄예방 환경조성방안

■ 기본방향 및 전략

- 도시 및 사회구조의 변화를 고려한 중·장기 범죄예방 환경조성대책 수립
 - 주민안심 주거공간 조성'이라는 기본방향과 전략 아래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인 도시 및 사회구조의 높은 변화 가능성을 반영하여 중·장기 대책 수립
 - 중·장기 전략인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도시구조 변화에 따른 범죄예방대책', '타 사업과의 연계'를 반영하여 세부계획 수립



[그림 3-91] 중·장기 계획의 기본방향 및 전략

■ 계획 범위

- 단기 계획 범위
 - 단기적(1~2년 이내)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으로 방법시설물 설치, 출입통제시설 설치, 나눔 주차장 설치 등 시설물 설치 및 소규모 공간 활용 중심의 하드웨어 계획에 해당

• 중·장기 계획 범위

- 중·장기적(3년 이상)으로 추진 가능한 계획으로 토지 임대, 지역주민의 참여, 관련 계획과의 연계 등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시간이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계획에 해당
- 대표적인 예로는 나대지를 활용한 주말 농장, 공·폐가 철거 후 커뮤니티 공간 조성, 커뮤니티 활동 프로그램 등이 해당



[그림 3-92] 계획의 범위

■ 중·장기 주요 계획

•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계획

- (외국인 대상 지역사회 프로그램) 부용지방산업단지, 부용농공단지 등의 외국인 근로자 등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과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야기됨
-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 및 이민자 대상의 범죄예방 프로그램, 부강생활안내 프로그램, 다문화 축제, 외국인 자율방범대 등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계획

[표 3-18] 외국인 대상 지역사회 프로그램(예시)

프로그램 이름	내용	일정
외국인 범죄예방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법질서 교육,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 대처 방법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질서 교육 및 생활법률 교육을 통해 법질서 확립 - 국내에서 주요하게 발생하는 범죄유형에 따른 처벌 교육 - 외국인 근로자 대상 법적보호 관련 교육 - 범죄피해신고 등 범죄피해 대처 방법 교육 	분기별 1회
외국인 주민을 위한 부강생활안내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 배출, 반사회 일정, 외국인 복지, 교육 등 외국인 주민을 위한 생활정보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 분리수거 및 배출장소, 시간 안내 - 반사회 및 주민자치활동 참여 안내 - 외국인 대상 복지 및 교육 프로그램 안내 - 주요 행정정보 및 서비스 안내 	분기별 1회

프로그램 이름	내용	일정
다문화 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축제와 연계하여 다문화 홍보 부스 설치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강 단오 축제(매년 6월 개최) 등과 연계하여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홍보 부스 설치 - 각 나라의 음식 소개 및 문화 소개 	분기별 1회
외국인 자율방범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찰서 및 지역자율방범대와 연계하여 외국인자율방범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동으로 외국인 밀집지역 순찰 - 경찰서 주관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 참여 - 범죄예방 홍보전단 배부 	분기별 1회

- (기존 및 신규주민 교류 활성화 프로그램) 농업종사자 중심의 기존 주민과 세종시 출범으로 인해 유입된 인구, 산업공단 종사자, 인근 대학교 학생으로 구성된 신규 주민은 거주(예상)기간, 목적, 직업, 생활패턴 등 사회적 특성에서 차이가 존재
- 기존 및 신규 주민 간 갈등을 줄이고 교류를 높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신규주민 초대 반상회, 텃밭작물 축제, 여성자율방범대, 공방프로그램 등 교류 프로그램 계획

[표 3-19] 주민 교류 활성화 프로그램(예시)

프로그램 이름	내용	일정
주민 초대 반상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주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주민 초대 반상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생활정보 공유 및 반상회 홍보 - 신규 주민초대 프로그램 진행 	매월 1회
텃밭작물 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사업에서 조성한 임대농장 및 텃밭에서 재배한 작물로 축제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농장 및 텃밭 작물 요리대회 - 임대농장 및 텃밭 작물 판매 - 임대농장 홍보 및 작물 재배 프로그램 운영 	연 2회
어린이, 여성, 학교 자율방범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의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율방범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자전거 자율방범대, 경찰서와 연계하여 어린이, 여성 등을 중심으로 활동 - 어린이 및 여성 안전 취약지역 순찰 및 캠페인 참여 - 주민봉사프로그램 참여 	매주
주민 공방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사업에서 조성한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공방 프로그램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서 주관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 참여 - 범죄예방 홍보전단 배부 	매주



외국인 자율방범대

※ 출처: <http://polinlove.tistory.com/8348>



범죄예방교육

※ 출처: 세종특별자치시 내부자료(2016)



주민반상회

[그림 3-93] 커뮤니티 활성화 활동 예시

• 도시구조 변화에 따른 범죄예방대책

- (신규 건축물 가이드라인) 신규 인구 유입으로 인한 신축 주거시설이 난립함에 따라 기존 주거지, 공공가로의 구조 변화가 가속
- 현재의 도시구조와 향후 개발사업 추진 후 변화되는 도시구조를 반영하여 주거, 공공, 상업시설 등 건축물의 용도와 건축물 주변 환경을 고려한 범죄예방 환경 조성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수립
- 가이드라인은 건축물 신축 시 부강리의 지역특성과 CPTED의 원리(자연적 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활동의 활성화,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건축물 배치, 건축물 주변 환경, 건축물 내·외부 디자인, 건축물 방법시설 등에 대해 계획하도록 안내

※ 서울특별시는 공공건축물,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계획 초기단계에서부터 이를 반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심의기준·자문 등에 활용

[표 3-20] 서울시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 사례(일부 발췌)

적용대상	일반가이드라인(일부)	
	규정항목	규정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 및 공공 기반 건축물 • 복지 관련 건축물 • 교육 및 연구 관련 건축물 • 문화 및 커뮤니티 활동 관련 건축물 • 환경 및 위생 관련 건축물 • 의료 관련 건축물 • 기타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적 건축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적 형태로서 주변과의 관계에서 개개 건물의 윤곽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 통로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 주요 보행 가로나 한 블록 이상 떨어진 곳에서 주요 경관을 볼 수 있도록 시각 통로를 확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가로의 연속성 안에서 공공건축물 외부 공간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건축물 외부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건축물의 성격에 따라 외부공간의 성격을 달리하되, 인접가로(또는 인접 공공공간)의 성격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통합 디자인 할 것을 권장한다. - 공공건축물의 전면 공지와 보행 가로 간의 급격한 단차는 지양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저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자가 가까운 거리에서 느낄 수 있는 주요 보행 경관으로서, 보행권 보장을 위하여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형 공개 공간 설치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지역과의 보행 연계를 위하여 건물의 저층부를 관통하는 실내형 공개 공간 설치를 권장한다. - 실내형 공개 공간은 24시간 개방을 권장한다. 단, 안전성 확보에 유의한다.

※ 출처: 서울특별시(2014), 공공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pp.96-100 참고 일부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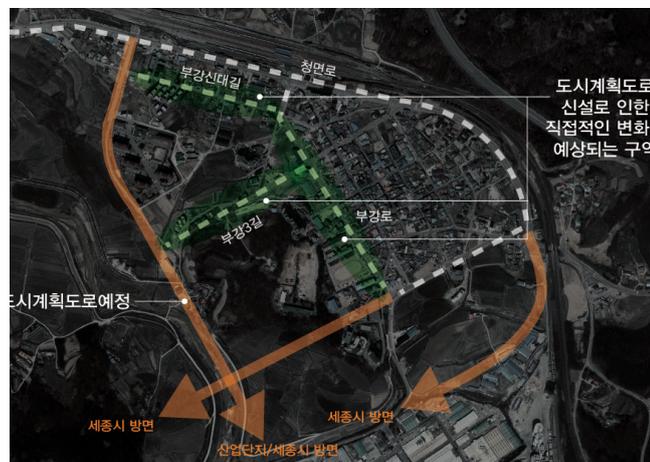
- (개발 가능성을 고려한 나대지 활용 계획) 향후 신규 주거시설 등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현재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어 범인의 은신공간 및 사각지대를 생성하여 범죄에 취약한 공간으로 변모
- 토지 소유주의 협조여부, 개발시기, 이용가능면적에 따라 나대지 활용여부가 유동적·가변적이므로 이를 고려한 활용 계획 수립

- 장기 활용이 가능한 경우 도시농업을 고려한 주말농장, 주민휴게·운동공간 등으로 계획 할 수 있으며, 단기 활용의 경우 나눔주차장, 주민대상 텃밭조성, 화단조성 등으로 계획 가능



[그림 3-94] 나대지 현황 및 활용계획

- (도시계획도로 신설에 따른 주요 가로 계획) 부강리에는 총 3개의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며, 그 중 세종시와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2개의 도로는 대상지 경계에 위치하여 향후 도시계획도로 신설에 따른 차량 및 인구 통행량, 주동선, 건축물 용도 등의 변화가 예상
-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여 부강신대길, 퇴미로, 부강3길 등 도시계획도로와 맞닿는 주요 가로의 구조, 시설물, 건축물 구조 등에 대한 계획 수립



[그림 3-95] 도시계획도로 신설에 따른 변화가 예상되는 주요 가로

• 타 사업과 연계한 계획

- (공원조성계획과 연계한 어린이 공원 및 부강 초·중학교 개선) 사업대상지 내에 2개의 공원조성계획(어린이 공원, 근린공원)이 수립되어 있으며, 부강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서 연계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주변공간 연계 및 범죄예방에 대한 고려는 부족

[표 3-21] 부강리내 공원조성계획 현황

구분		새말 어린이 공원	
내용		지역내 어린이와 주민의 여가활동과 놀이활동을 위한 어린이 공간 마련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리 412-9번지 일원	
위치 및 현황사진			
	규모	3,050㎡ (시설: 1,539㎡, 녹지: 1,511㎡)	
주요시설		도로 및 광장(803.6㎡), 휴게쉼터(400.1㎡), 어린이 놀이터(216.8㎡), 체력단련장(118.8㎡), 공원이용안내판	
경과		세종시내 장기미집행공원을 대상으로 2015년에 수립된 계획으로 2020년까지 공원조성이 완료되어야 함	
구분		부강 근린 공원	
내용		주민들을 위한 여가공간을 마련하고, 공간의 양정,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원녹지 공간 조성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리 498-6번지 일원	
위치 및 현황사진			
	규모	46,888㎡ (시설: 7,408.3㎡, 녹지: 39,479.7㎡)	
주요시설		도로 및 광장(1,976.1㎡), 조경시설(763.7㎡), 휴양시설(433.8㎡), 유희시설(2396.6㎡), 운동시설(1,227.7㎡), 편익시설(562.2㎡), 관리시설(2,131.6㎡)	
경과		세종시내 장기미집행공원을 대상으로 2015년에 수립된 계획으로 2020년까지 공원조성이 완료되어야 함	

- 사업대상지내 어린이, 노인 등 주민들이 휴게공간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어린이 새말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부지와 대광연립의 어린이 놀이터를 연결하여 어린이공원으로 조성

[표 3-22] 어린이공원 연계계획



- 부강근린공원계획, 부강초·중학교 경계사이의 범죄취약공간, 부강초·중학교 뒤편 산책로를 연결하여 산책로 및 운동·휴게공간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이용도와 공간 활용도를 높임

[표 3-23] 근린공원 연계계획



- (타 사업과 연계한 건축물 방범시설물 개선) 대상지 내 주거시설의 상당수는 건축물의 노후도와 관계없이 부실한 방범창호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외부인의 무단침입에 취약
- 세종시에서 추진하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아파트주거환경개선사업 등과 연계하여 노후한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창호를 개선하여 건축물 자체의 방범효과 증대



[그림 3-96] 방범시설이 부실한 주거시설의 창호

전략	세부계획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계획	외국인 대상 지역사회 프로그램
	기존 및 신규주민 교류 활성화 프로그램
도시구조 변화에 따른 공간활용 계획	신규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나대지 활용 계획
타 사업 연계 계획	어린이공원 및 부강초·중학교 개선
	건축물 방범시설물 개선

[그림 3-97] 중·장기 계획 종합

■ 단계별 추진 계획

• 사업내용에 따라 단계별 계획 추진

- 물리적 환경개선 중심의 계획은 약 2년간(2016년~2017년) 단기적 추진이 가능하고, 나대지 활용과 같은 주민동의를 필요한 공간활용 계획, 주민 참여가 중요한 계획은 중·장기적으로 추진
- 제도적 차원에서의 범죄예방 대책인 신규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도시계획도로 신설에 따른 주요 가로 계획은 충분한 사례 및 연구를 통해 수행되어야 하며 단기적으로 추진되기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추진 필요

[표 3-24] 단계별 추진 계획

구분	사업내용 세부계획	범죄취약지역 개선 및 불안감 감소		범죄예방효과 증대를 위한 물리적·사회적 기반 마련		범죄예방 역량 강화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물리적 환경개선	농작물 성장을 고려한 울타리 및 볼라드 조명 설치					
	공·폐가 철거 후 마을광장 조성					
	공·폐가 및 컨테이너를 활용한 주민, 어린이 커뮤니티 공간 조성					
	나대지를 활용한 나눔 주차장, 텃밭 조성					
	나대지를 활용한 주말농장, 주민휴게공간 조성					
	텃밭 정리 및 소규모 화단 조성					
	노후 철제 가림막 개					
	셉테드 적용 안내시설 설치 및 바닥 도색					
	CCTV 및 비상벨 설치					
	바닥 도색 또는 아스팔트 스탬핑 포장					
	농경지 및 나대지와 주거시설간 경계에 투시형 울타리 설치					
	가변형 울타리 설치					
	노후한 담벼락 중심의 벽면 도색					
	공·폐가 출입시설 설치					
	텃밭 및 공터의 수풀 정리					
	가로등 설치					
	어린이 공원 및 부강 초·중학교 개선					
	건축물 방범시설물 개선					
주민 프로그램	수확철 순찰 프로그램					
	조경정리 프로그램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					
	텃밭 임대 및 판매 프로그램					
	자전거 순찰대 지원 프로그램					
	외국인 대상 지역사회 프로그램					
	기존 및 신규주민 교류 활성화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및 가로계획	신규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도시계획도로 신설에 따른 주요 가로 계획					

6) 종합 기본계획안

	1구간: 기존·신규 주민을 위한 안전한 가로 및 주거환경 조성	2구간: 농작물 성장을 고려한 가로 환경개선으로 야간 보행안전 증대	3구간: 안전한 통학로 조성 및 학생들의 커뮤니티 활동 강화
1 방치되어있는나대지 및 공·폐가를 활용한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폐가 철거 후 마을광장 조성 방치되어 있는 건물을 활용한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방치되어 있는 나대지를 나눔 주차장 및 텃밭으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대지를 활용한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치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활용한 어린이 커뮤니티 공간 조성 노후 컨테이너 철거 후 어린이 놀이시설과 연계·확장 관리가 부실한 텃밭 정리 및 소규모 화단 조성
2 농경지·나대지와 공공가로·주거시설간의 영역성 강화 및 지역 이미지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강역앞 노후 철제 가림막 철거 후 부강리 안내게시판 설치 주요 가로 진·출입로에 섀페드 적용 안내 시설 설치 및 바닥 도색 농경지 및 나대지와 주거시설간 경계에 투시형 울타리 설치 노후한 담벼락 중심의 벽면 도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 가능성을 고려한 가변형 울타리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통원로 입구에 바닥 도색 또는 아스팔트 스탬핑 포장 노후 철제 가림막 개선 농경지 및 나대지와 주거시설간 경계에 투시형 울타리 설치
3 농작물 성장을 고려한 방범시설물 확충 및 범칙위험공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폐가 출입시설 설치 텃밭 및 공터의 수풀 정리 농작물 성장을 고려한 울타리 및 블라드 조명 설치 주요 가로 진출입로에 CCTV 및 비상벨 설치 내부 가로에 가로등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작물 성장을 고려한 울타리 및 블라드 조명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가로 진·출입로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 및 비상벨 설치 주요 통원로에 가로등 확충 어린이집 주변공·폐가 출입시설 설치

-도농복합지역 특성을 반영한 계획

[그림 3-98] 전략별, 우선개선구간별 기본계획

세종시 부강면 부강리 기본계획안



나대지 및 공폐가를 활용한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기 존	신 설	교 체
주민주거공간조성	-	6개소	-
텃밭조성	-	6개소	-
주민공동공간조성	-	3개소	-
화단조성	-	7개소	-
주차장조성	-	3개소	-

영역성 및 지역 이미지 강화			
	기 존	신 설	교 체
바닥 및 벽면도색	-	10개소	-
투시형 울타리	-	12개소	-
철제가림막 개선	6개소	6개소	-
쓰레기 제거 및 쓰레기통 설치	1개소	-	1개소

방범시설물 확충 및 범죄위험공간 개선			
	기 존	신 설	교 체
CCTV+안내시설	1개소	8개소	-
보안등 (기존)	76개소	49개소	-
반사경 (기존)	9개소	11개소	-
비상벨	-	11개소	-
울타리 조명	-	3개소	-
바닥 조명	-	3개소	-
수목정비	-	15개소	-
접근통제시설 설치	-	6개소	-

지역 시설 현황			
	기 존	신 설	교 체
공폐가	7개소	-	-
컨테이너 및 경관저해시설물	5개소	-	-



도농복합형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적용

IV

성과와 향후 과제

IV. 성과와 향후 과제

1. 도농복합형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의 성과

1) CPTED 계획안에 따른 시공 결과

■ 2016년 시공 결과

- CCTV 및 비상벨, 보안등, 고보조명, 철제가림막 철거 및 갤러리 시공 완료
- (CCTV 신설) 사람의 통행이 많은 지점인 부강역 앞, 부강신대길과 내부골목 절절 지점, 국제어린이집 통학로 입구에 CCTV를 통합 설치
- CCTV설치를 통해 위험상황 발생 시 위험행동 감시가 가능
- CCTV 지주에 야간에도 식별 가능한 안내시설판을 설치하여 CCTV 작동 안내표시를 하여 보행자의 불안감을 줄이고, 경각심을 고취



[그림 4-1] CCTV 시공

- (보안등 15개소 신설) 야간시아확보가 어려운 다세대 및 연립주택 건물 사이, 주거지 내부가로, 나대지 주변을 중심으로 LED보안등을 신설
- 기존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점을 중심으로 설치하여 주거지와 나대지 주변도로에서의 야간 보행안전이 개선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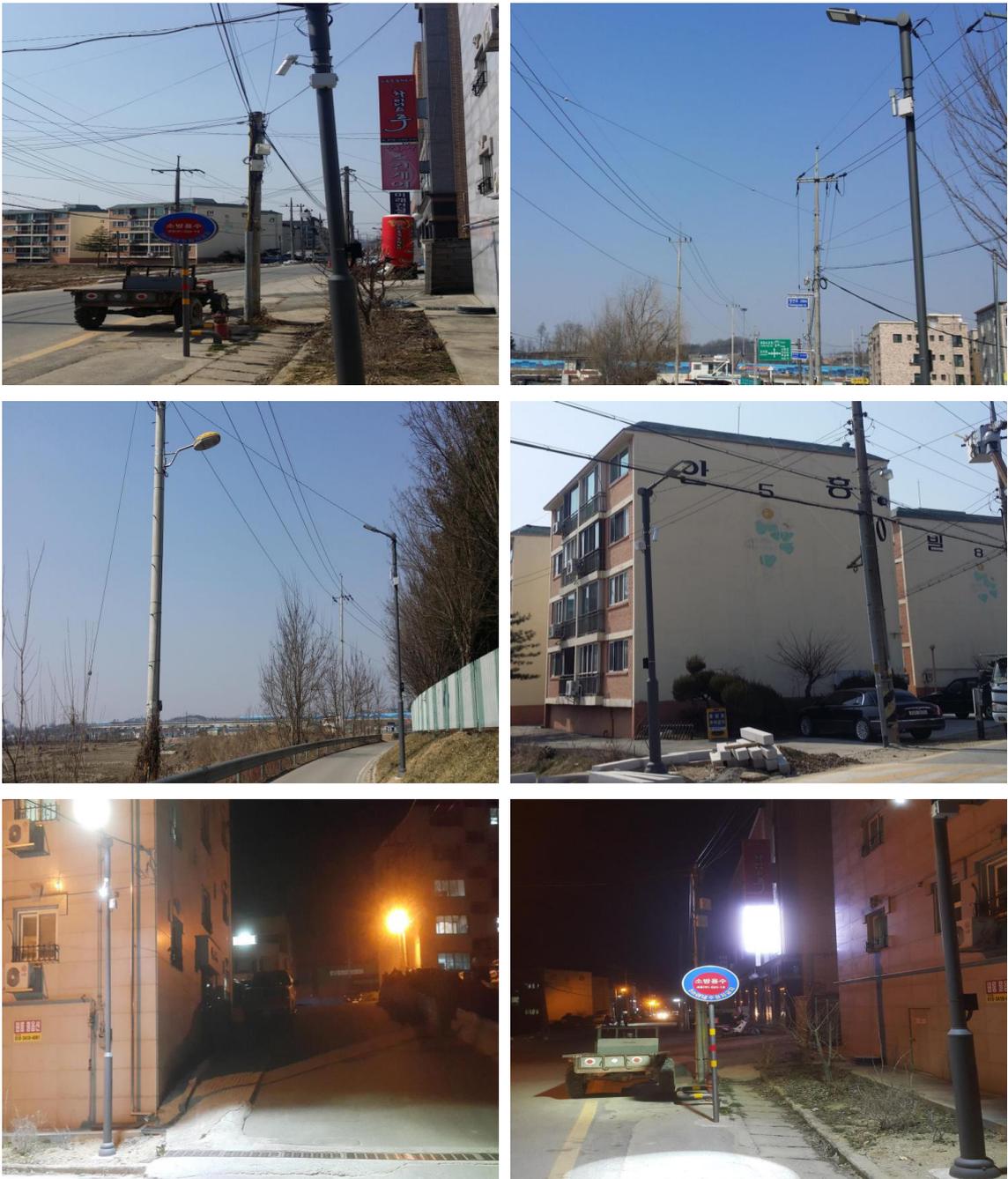
[그림 4-2] 보안등 시공

- (철제가림막 철거) 부강역 앞 노후 철제가림막 철거



[그림 4-3] 철제가림막 철거 및 목재가림막 설치

- (보안등+고보조명 11개소 신설) 주민들의 산책로인 퇴미로, 부강신대길, 부강3길에 중점적으로 설치
- 주요 결절지점 또는 범죄불안감이 높은 지점에 고보조명을 설치하여 야간 보행안전 개선과 동시에 위험 감지시 고보조명을 통해 범죄로부터 개인의 안전 보장



[그림 4-4] 보안등+고보조명 시공



[그림 4-5] 시설물 시공 위치

■ 시공결과 종합

• 주민들의 협의를 통해 우선순위 및 위치 선정 후 시공

-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기본계획안 내용 중 일부만 2016년에 시공하며 2017년에 추가사업을 추진 계획
-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된 방범시설물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였으며, 기본계획안에서 제안한 시설물 위치를 기반으로 범죄불안감이 높은 지점을 우선적으로 설치

• 다양한 전략 적용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

- 2016년에 우선적으로 나눔주차장 1개소, 주민공동공간 1개소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건물 및 토지 소유주의 미동의로 불발됨
- 기본계획안에서 제안한 공·폐가 및 나대지를 활용한 나눔주차장, 텃밭, 주민공동공간 조성 등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통해서만 추진 가능

2) 사업 시행 전·후 지역주민 설문조사 비교분석

■ 설문조사 개요

- (조사목적) 주민들의 범죄와 안전에 대한 인식변화와 사업 지원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지역주민 대상의 설문조사 계획 및 실시
- (조사기간) 사전 : 2016년 6월(약1개월), 사후 : 2017년 1월(약 1개월)
- (표본 수) 사전 97부, 사후 94부
- (설문항목) 이웃관계 및 동네사람에 대한 인식, 지역환경에 대한 인식, 범죄에 대한 두려움, 범죄피해경험, 지역의 경찰활동,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 및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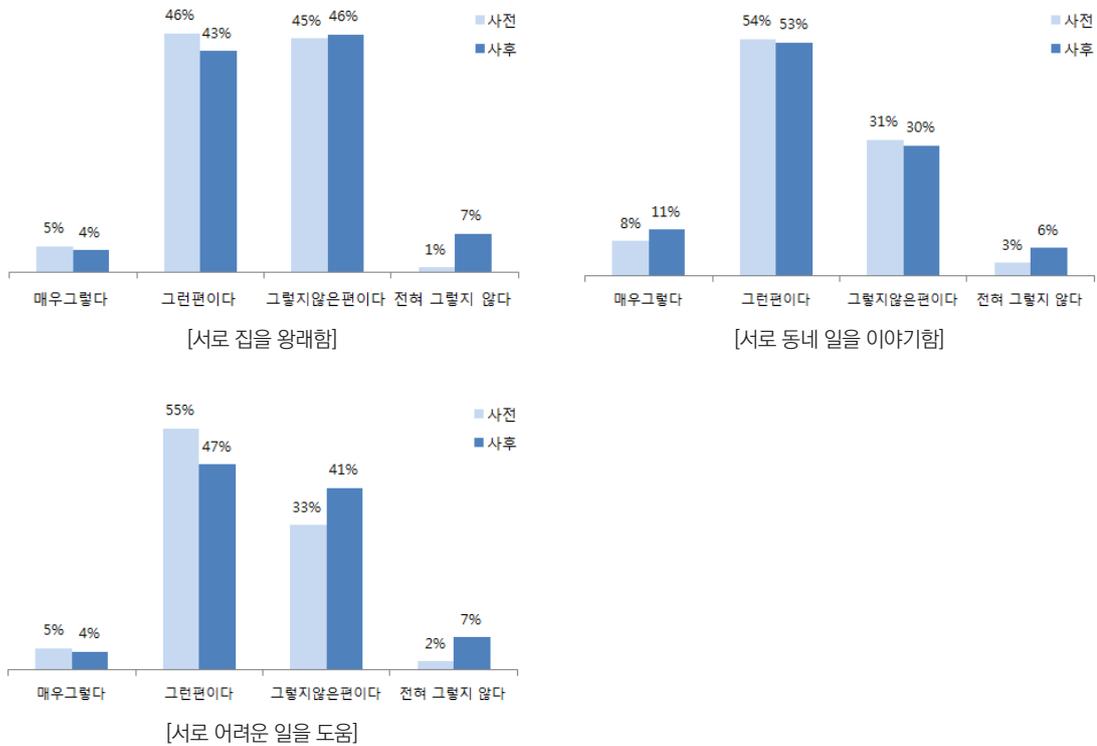
[표 4-1] 주민 설문조사 항목 및 내용

구분	설문내용
선정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나이/거주기간/가족 구성원 수/거주지 주소(읍/면/리)
Part 1. 이웃관계 및 동네사람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에 대한 인식 • 주변 위험 및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응답자 본인과 동네 사람들의 개입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네에 불량스럽게 보이는 학생들이 모여서 담배를 피우거나 시끄럽게 함 - 집 앞에 낯선 사람이 돌아다님 - 집 앞에서 누군가가 괴롭힘을 당하거나 맞고 있음
Part 2. 지역환경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만족도 •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 • 거주하고 있는 동네의 주변환경에 대한 인식 • 거주하고 있는 동네의 범죄를 유발하는 심각한 환경이나 시설
Part 3. 범죄에 대한 두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범죄안전에 대한 인식 • 범죄두려움을 느끼는 장소 • 범죄두려움을 느끼는 상황
Part 4. 범죄피해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이내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범죄피해 경험여부 • 1년 이내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재산피해 경험여부
Part 5. 지역의 경찰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의 경찰관과 접촉한 경험 • 현재 지역에 거주한 이후 경찰서나 지구대에 신고한 경험여부
Part 6.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 및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네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여러 대책 중 우선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의 자율방범활동 강화 -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 운영 - 길거리를 단정하고 깨끗하게 유지 - 길거리와 공공장소에 경찰순찰 강화 - 길거리와 공공장소에 비상벨 설치 - 길거리와 공공장소에 디자인을 통한 환경개선(벽화, 도색) - 지역 환경개선 및 개발에 지역주민 참여 증대 - 지역 내 유해시설 및 환경 정비 - 공공장소 CCTV 설치 -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나 레저시설 마련 - 길거리 조명을 밝게 유지 - 경찰 방법초소 설치
응답자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형태/소유형태/결혼여부 및 결혼상태/최종학력/월평균 소득/직업/고용상태

설문조사 비교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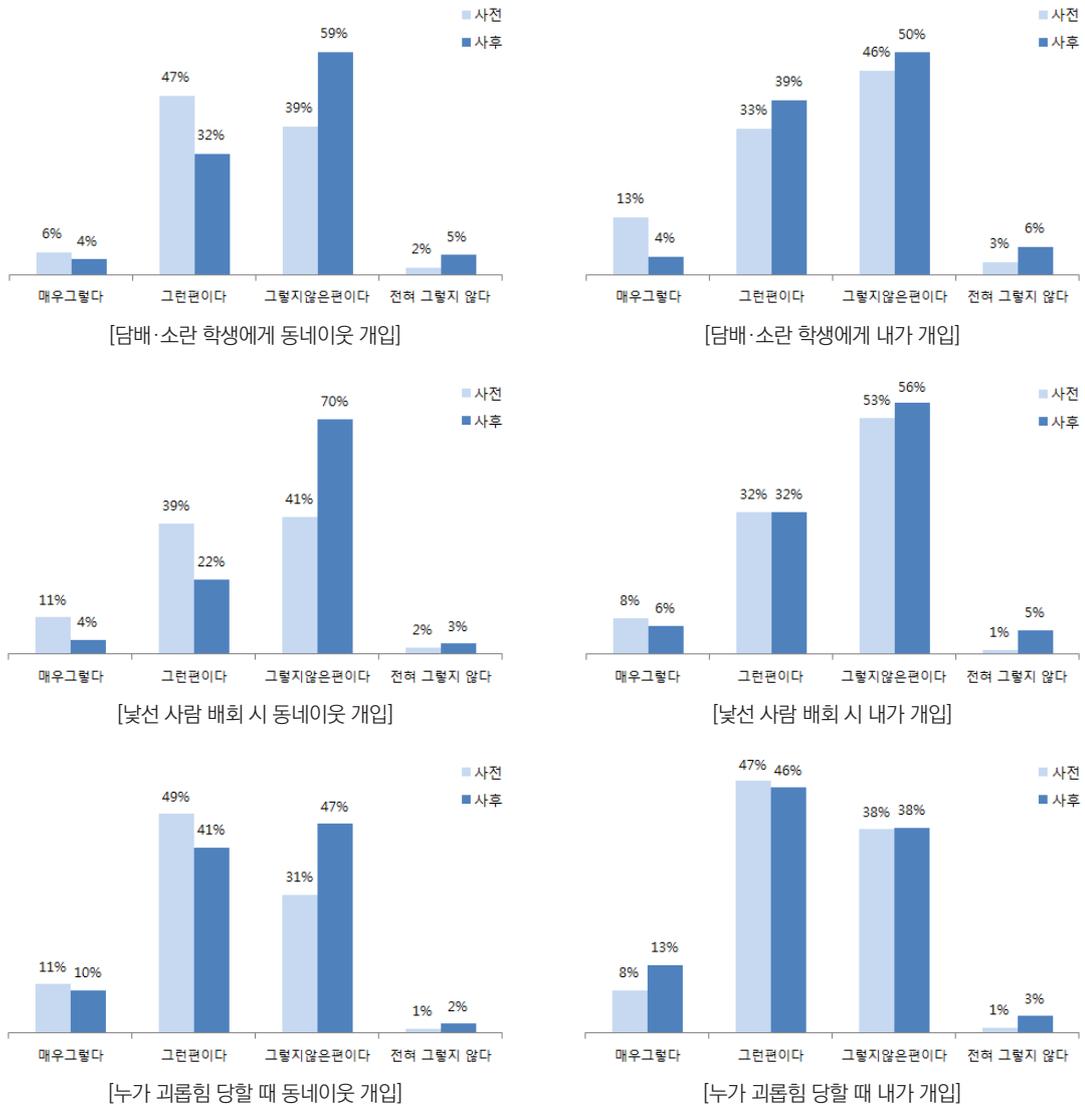
• Part 1. 이웃관계 및 동네사람에 대한 인식

- (이웃과의 유대) 응답자의 50~60%에 해당하는 인원이 사업 시행 여부에 관계없이 동네 사람들과 서로 잘 알고 지내며, 집을 왕래하거나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어려운 일을 돕는 것으로 나타남
- 사업 시행 여부가 이웃과의 유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사업 시행 전과 후의 응답 비율에 근소한 차이만 있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 4-6] 이웃과의 유대를 느끼고 실천하는 정도

- (주변 위험 및 위급한 상황에 대한 개입) 위급 상황 개입에 대한 조사에서는 사업 시행 전과 후에 큰 차이가 없으며 낯선 사람이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누군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개입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동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중 '불량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소란스럽게 한다', '낯선 사람이 배회한다', '누군가 괴롭힘을 당한다'면 동네 이웃이 개입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사업 전·후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본인이 개입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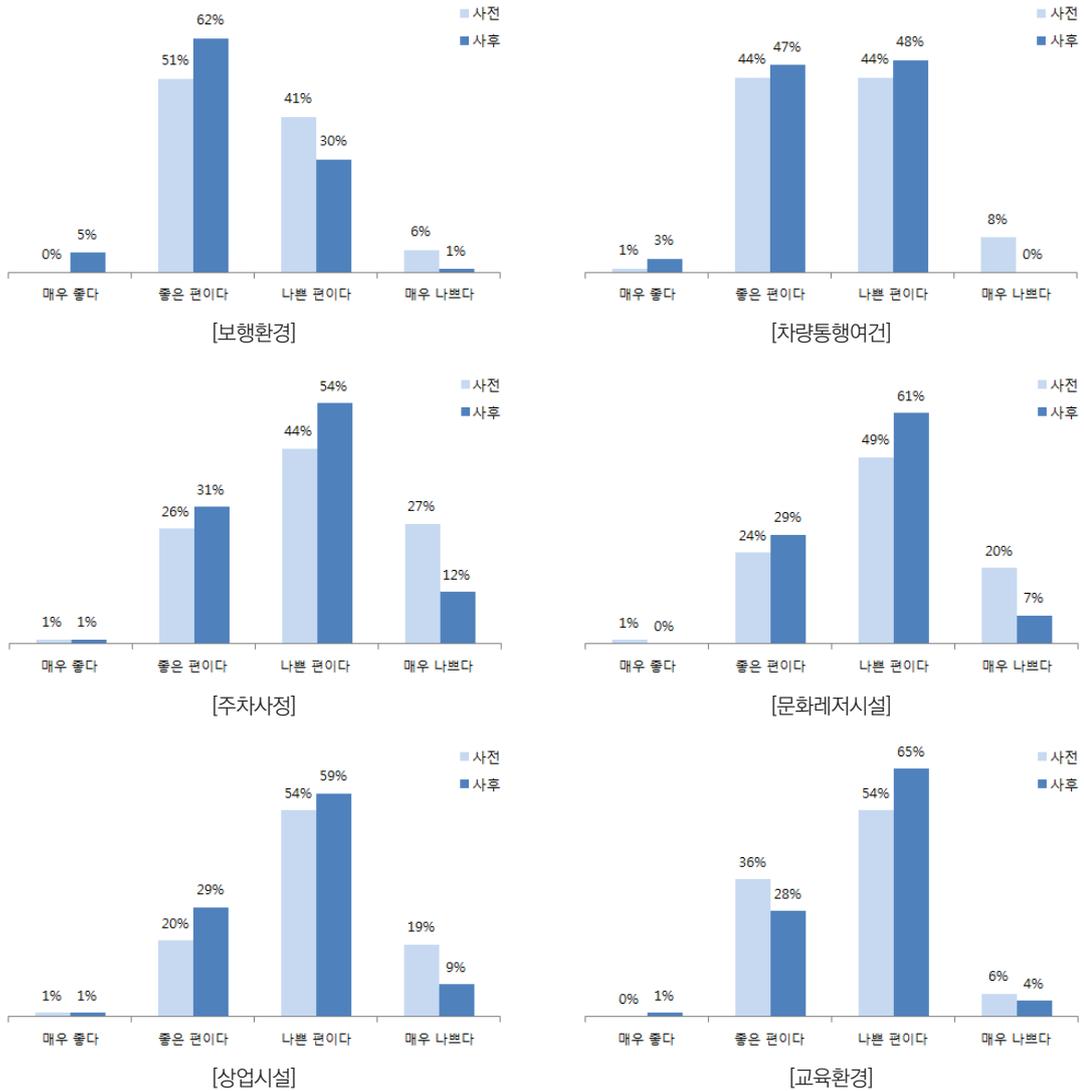


[그림 4-7] 주변 위험 및 위급한 상황에 대한 개입

• Part 2. 지역환경에 대한 인식

- (거주지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 거주지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 조사에서는 사업 시행 전 ‘만족하는 편’ (매우 만족 포함)의 응답이 약 55%로 나타났으나 사업 시행 후 약 80%로 증가하여 사업 시행 여부가 지역 주민들의 거주지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됨
- (근린환경에 대한 평가) 보행환경은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사업 시행 전보다 16% 증가하여 ‘나쁜 편’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차량통행여건과 주차사정은 ‘나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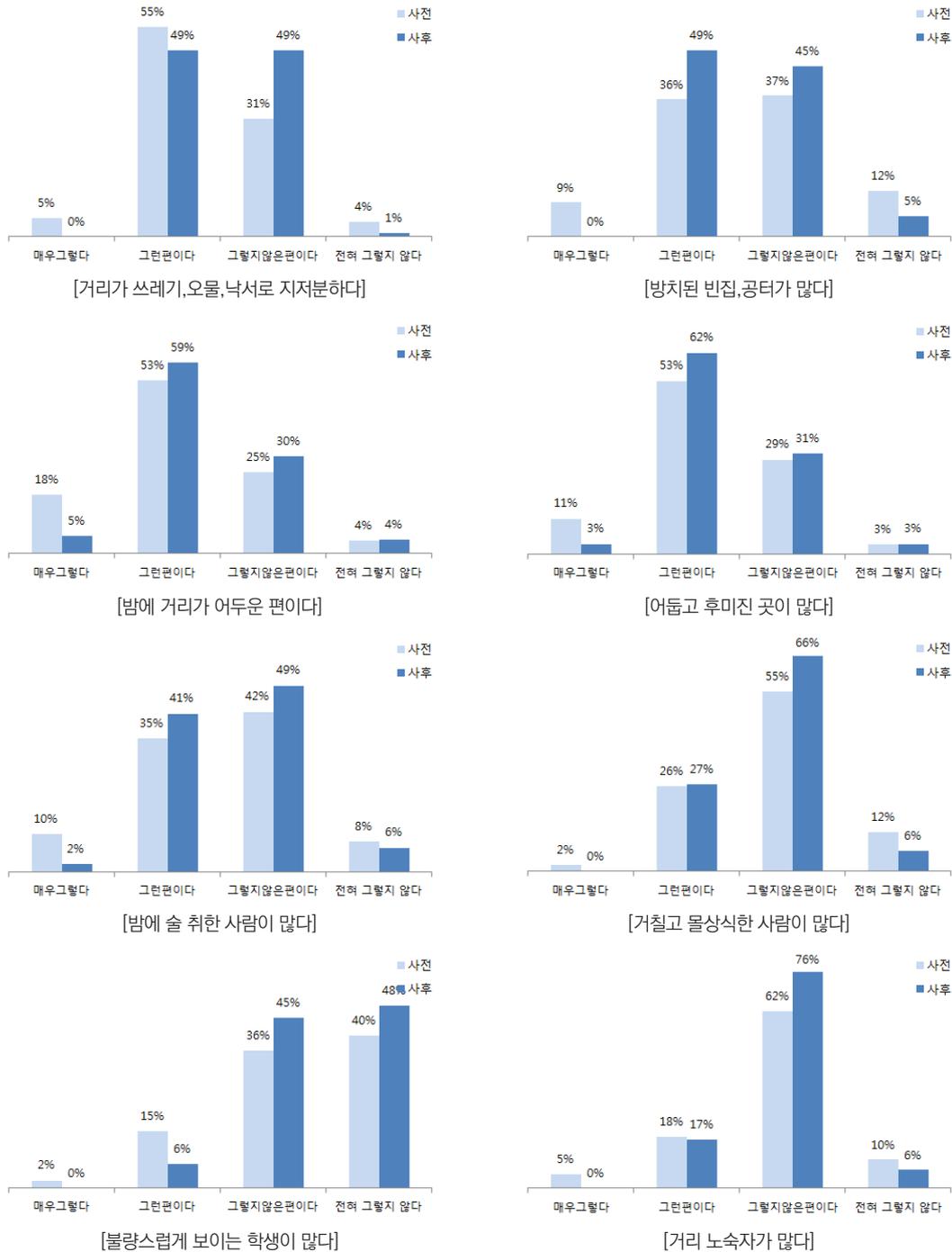
- 주차사정, 문화레저시설, 상업시설, 교육환경이 '나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사업 시행 전 각각 71%, 69%, 63%, 60%로 높게 나타났으며 사업 시행 후 주차사정과 문화시설은 각각 5%, 1%의 비율이 근소하게 낮아진 것에 비해 상업시설과 교육환경은 사업 시행 후에 '나쁜 편'의 응답이 5%, 9%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4-8] 근린환경에 대한 평가

- (주변환경에 대한 평가) 길거리가 지저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사업 전 60%에서 사업 후 40%로 감소하였고 밤에 거리가 어둡다고 응답한 비율이 71%에서 64%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 시행 후 범죄에 취약한 물리적 공간의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됨
- 반면 동네에 관리되지 않는 빈집이나 공터가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45%에서 49%로 소폭 상승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사업을 시행하면서부터 지역 주민들의 빈집, 공터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밤에 술취한 사람이 많다’, ‘불량학생이 많다’, ‘거칠고 몰상식한 사람이 많다’, ‘거리 노숙자가 많다’ 항목에서는 대체적으로 많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업 시행 전·후 비교했을 때 소폭 상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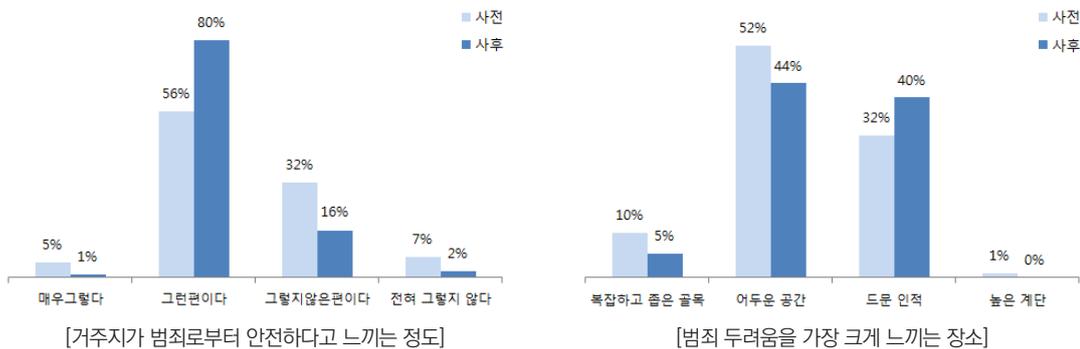


[그림 4-9] 주변 환경에 대한 평가

- (범죄유발 환경/시설에 대한 의견) 동네에서 범죄를 유발하는 환경/시설 1순위로 '술집(15%)'이 가장 많이 지목되었고, 그 다음으로 공터(14%)와 공사장(11%) 순으로 언급
- 이는 사전설문시 1순위로 지목한 '공터'(30%)의 비율이 절반이상 낮아졌으며, 술집 및 공사장의 비율은 변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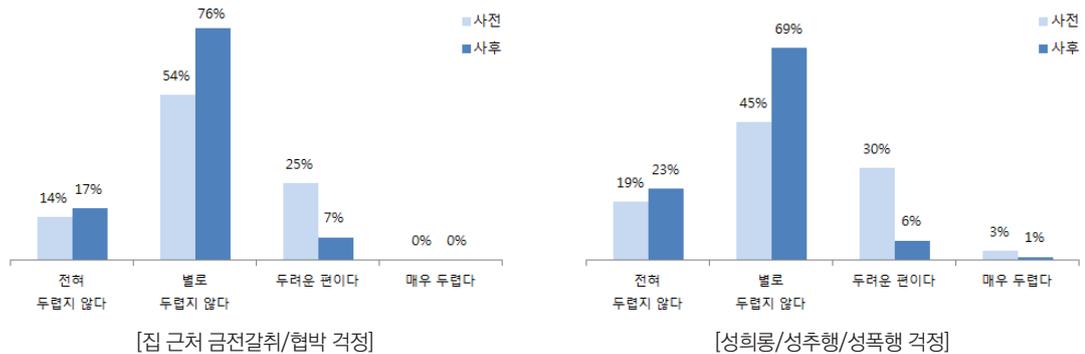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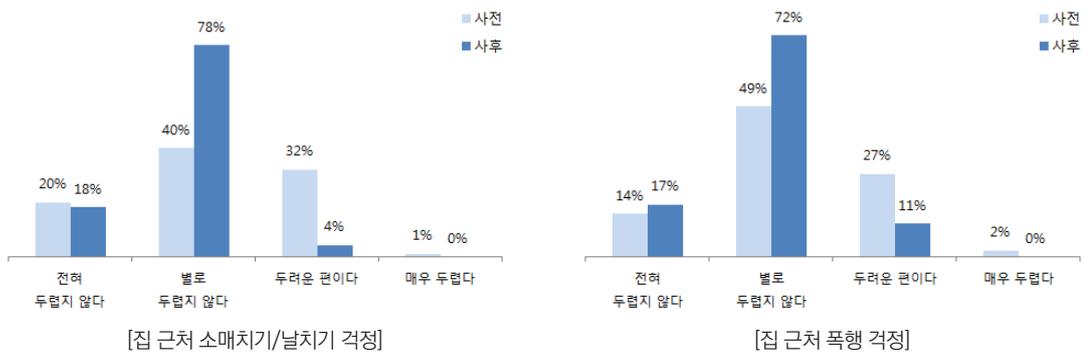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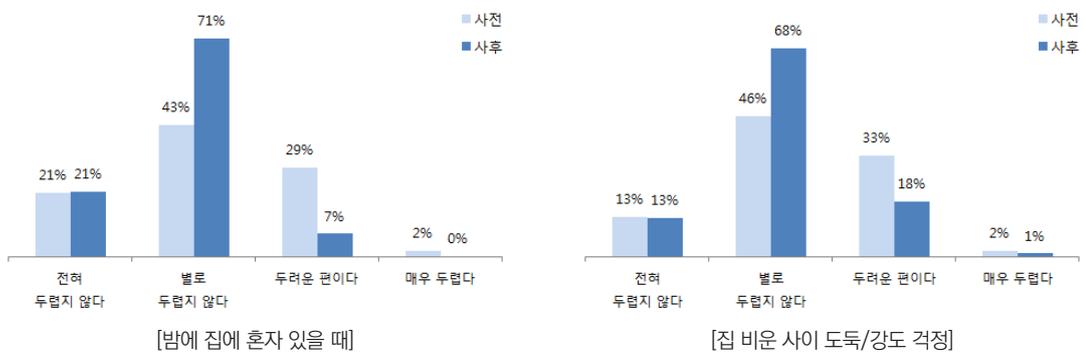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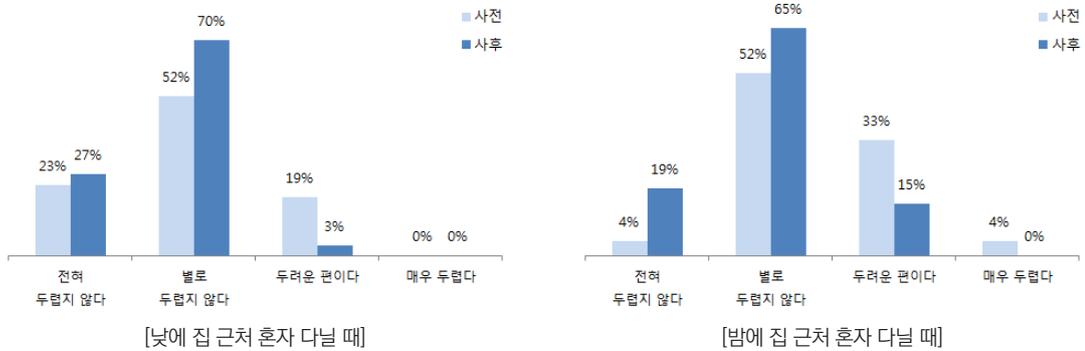
• Part 3. 범죄에 대한 두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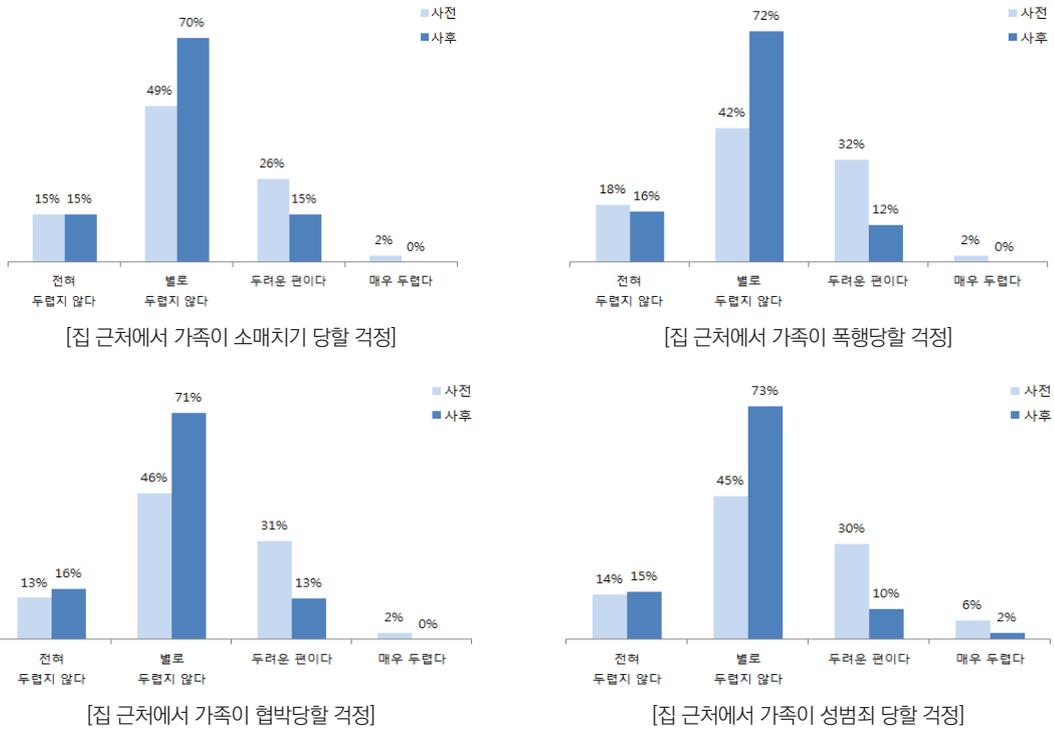
- (범죄로부터 안전감 정도) 거주지역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사전 설문조사 61%에서 사후 81%로 대폭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사업 시행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파악
-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장 크게 느끼는 장소로는 사전·사후 응답자의 대부분이 어두운 공간을 선택하였고, 그 다음으로 인적이 드문 장소가 40%로 소폭 상승하였으며 복잡하고 좁은 골목은 5%로 감소함



[그림 4-10] 범죄로부터의 안전감(左), 두려움 유발 장소(右)

- (예상되는 범죄상황에 대한 두려움 정도) 집 근처에서 본인이나 가족이 당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는지에 대한 인식은 사전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두렵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적으로 23.5% 증가하였으며 최대 38%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낮에 집 근처를 혼자 다닐 때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두렵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 사전 75%에서 사후 97%로 상승하였으며 밤에는 사전 56%에서 사후 84%로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밤에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사전 대비 절반 이상 줄어든 15%로 사업 시행 후 야간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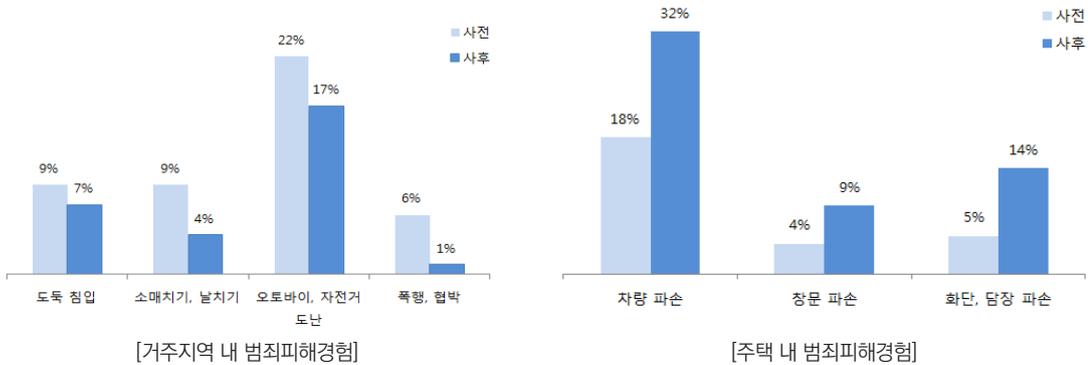




[그림 4-11] 예상되는 범죄상황에 대한 두려움 정도

• Part 4. 범죄피해경험

- (거주지역 내 범죄피해경험) 사업 시행 전 조사되었던 범죄피해 경험이 사업 시행 후에 높은 수준은 아니나, 전체적으로 5% 정도 감소한 것을 확인
-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범죄를 억압하는 효과를 발생시켜 주민들의 실제 범죄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주택 내 범죄피해경험) 대물범죄 피해에 관하여는 차량이 누군가에 의해 파손된 경험이 있는 응답자 비율이 32%로, 다른 대물범죄 피해에 비해 많은 것으로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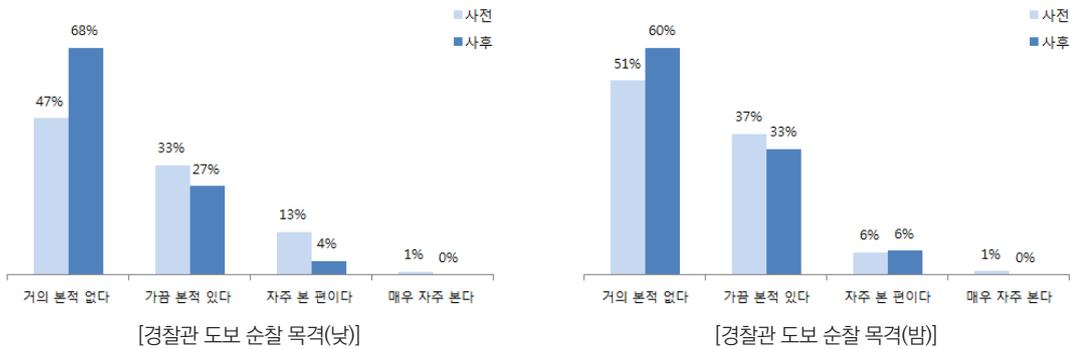


[그림 4-12] 거주지역 / 주택 내 범죄피해경험

• Part 5. 지역의 경찰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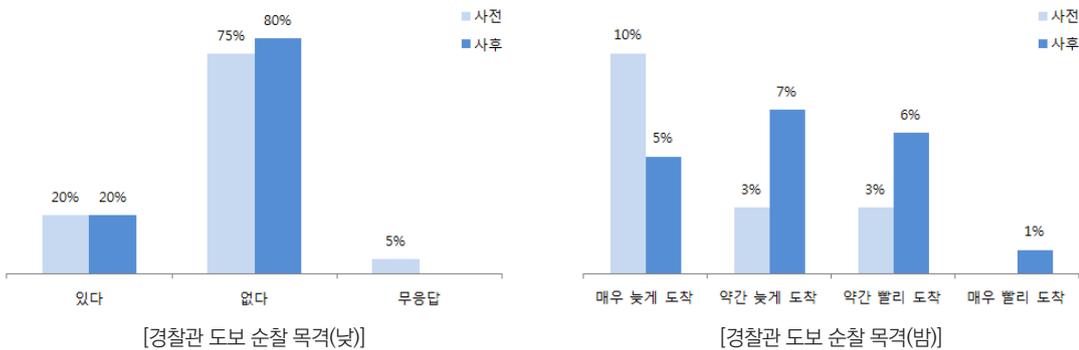
- (경찰관 접촉경험) 경찰이 차량으로 순찰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응답은 사업 시행 전·후 80~90%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보 순찰은 목격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동네에서 경찰관이 걸어서 순찰하는 것을 거의 본 적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의 경찰활동은 사업 시행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그림 4-13] 경찰관 도보순찰 목격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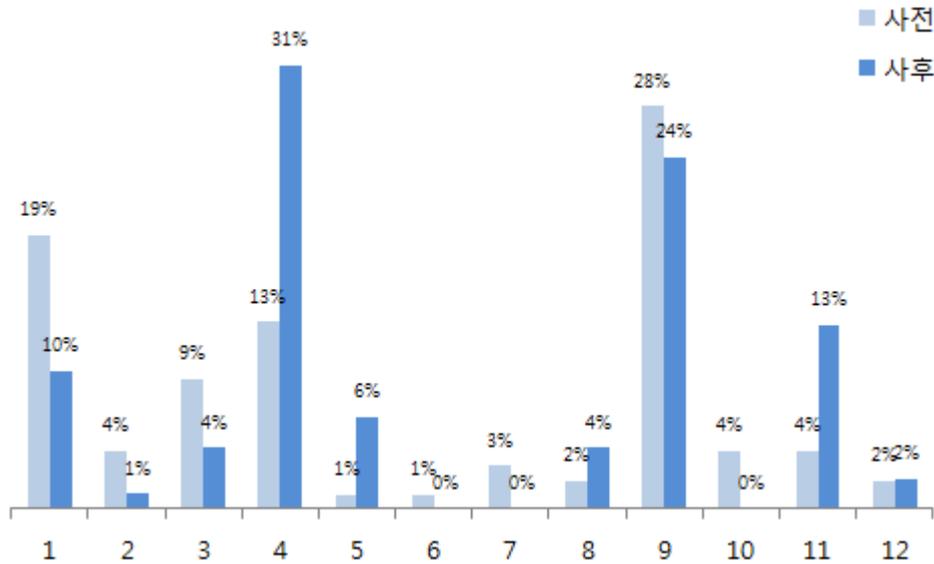
- (경찰서 및 지구대 신고경험) 경찰서나 지구대에 신고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 비율이 20%로, 신고를 했을 때 경찰이 약간 늦게 도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0%로 높았으나, 출동한 경찰의 대응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14] 경찰서 및 지구대 신고 경험

• Part 6.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 및 활동

- (지역안전을 위해 필요한 범죄예방대책) 응답자가 생각하는 지역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범죄예방대책 1순위로 응답한 대책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길거리와 공공장소에 경찰 순찰강화(31%)'였으며 2순위는 '공공장소 CCTV 설치(24%)', 3순위는 '지역주민의 자율방범활동 강화'로 나타남
- 사전 응답에 비해 '경찰 순찰 강화'와 '길거리 조명을 밝게 유지'하는 항목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CCTV 설치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찰 순찰강화, CCTV 설치, 자율방범활동 강화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 범죄예방에 감시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됨



[그림 4-15] 지역안전을 위해 필요한 범죄예방대책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 및 활동 항목

- ① 지역주민의 자율방범활동 강화
- ②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 운영
- ③ 길거리를 단정하고 깨끗하게 유지
- ④ 길거리와 공공장소에 경찰 순찰 강화
- ⑤ 길거리와 공공장소에 비상벨 설치
- ⑥ 길거리와 공공장소에 디자인을 통한 환경개선(벽화, 도색)
- ⑦ 지역 환경개선 및 개발에 지역주민 참여 증대
- ⑧ 지역 내 유해시설 및 환경 정비
- ⑨ 공공장소 CCTV 설치
- ⑩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나 레저시설 마련
- ⑪ 길거리 조명을 밝게 유지
- ⑫ 경찰 방법초소 설치

■ 비교결과 종합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리의 CPTED 사업 전후 실시한 사전·사후 설문조사를 비교분석한 결과, 사업시행이 해당지역에 영향을 미친부분과 영향을 미치지 않은 부분으로 구분되어짐
- 이웃관계 및 동네사람에 대한 인식
 - 우선 해당지역의 CPTED 사업은 이웃관계 및 동네사람에 대한 인식부분에서 사업전·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애착도에 큰 변화가 없음을 의미함
 - 또한 범죄예방 환경조성이 이웃간의 유대관계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나, 도농복합지역의 농촌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에 기반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지역환경에 대한 인식
 - 거주지에 대한 종합적 만족도는 사업시행 전 55%에서 시행 후 80%의 비율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보행환경을 제외한 기타 근린환경에 대한 평가는 사업 전·후 변화가 없음
 - 주변환경 평가에서는 '불량학생이 많다' 응답이 사전 17%에서 사후 6%로 감소, '취객이 많다'는 사전 45%에서 사후 43%로 감소, '노숙자가 많다'는 사전 23%에서 사후 1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이, 밤거리에 대한 안전도 및 주민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요인들의 비율이 대체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의 밤거리 안전도 상승 및 대인 불안감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범죄에 대한 두려움
 - CPTED사업 시행을 통해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 주민의 응답이 사전 61%에서 사후 8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의 범죄불안감이 대폭 감소하였음
 - 특히 CCTV, 보안등 및 고보조명의 설치를 통해 밤거리에 대한 범죄두려움이 감소한 것은 CPTED 사업의 목표가 명확하게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음
- 범죄피해 경험 및 지역의 경찰활동
 - 범죄피해 경험 및 지역의 경찰활동에 있어 CPTED사업 전·후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절대적 범죄발생 건수가 적은 것과 사전·사후 설문조사 기간의 계절적 특성이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으므로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분석이 필요함

-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 및 활동

- 범죄예방 대책으로 '경찰 순찰 강화' 항목이 사전 13%에서 사후 31%로 증가하였고, '길거리 조명 밝게 유지' 항목이 사전 4%에서 사후 13%로 높은 비율로 상승한 이유는 조명을 밝게 유지하는 것이 주민들의 범죄불안감을 낮추고, 경찰의 도보순찰이 이러한 효과를 더욱 극대화 시켜주기 때문임
- 또한 사전·사후 설문조사시 CCTV의 응답 비율이 각각 24%, 28%로 높게 나타난 것은 주민들이 CCTV의 범죄예방 효과가 높다는 인식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2. 도농복합형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의 향후 과제

- 지역 주민 및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장기적 계획 수립 필요

- 본 사업은 단기간에 진행된 사업으로 계획 과정에서 지역 주민 및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계획수립이 어려웠음
- 다만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CPTED사업을 통해 사업의 효과가 명확히 드러난 만큼, 향후 CPTED 장기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주민 및 관계자의 의견 개선이 꾸준히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주민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병행을 통해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효과 극대화

- 본 CPTED의 경우 관련 집행할 수 있는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시설물 설치를 중심으로 진행
- 지역주민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교육 및 사업홍보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사업효과 증대 예상

- 공간 단위의 범죄예방 환경조성 대책 마련 필요

- 개별 시설물의 설치 및 성능 향상 중심으로 사업이 이루어져 전체적인 시너지 효과 한계 노출
- 중·장기계획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공간단위의 계획안이 실현·연계되어 방법환경이 구현되는 대책 마련 필요

• CPTED 사업과 연계한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이웃 간 신뢰구축 및 자체적 범죄대응능력 강화 필요

- 마을회관, 노인정 및 마을정자 등 마을 거점공간을 활용하여 주민교류 기회 증대
-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 자율방범대를 조직·운영할 수 있는 인력 및 재정 지원

• 상위 도시계획 및 관련 사업과의 연계 필요

- CPTED 사업은 단일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범죄 문제 해결에 있어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음
- 초기 계획단계에서 지역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상위 도시계획 및 관련 사업과 연계된 체계적인 장기 계획수립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

•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인 사업성과 분석 필요

- 시범사업으로 인한 범죄예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기간별 범죄유형 및 발생 건수 등 사업성과 분석 필요
- 이를 위해 사업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계획안 제시 필요

•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 사업 전·후에 실시하는 지역주민 설문조사 및 중·장기 계획의 실현 등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관계자들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중요
- 지자체·사업시행자·주민·관계자와 효율적인 업무 분담을 통해 사업효과 증대

• 사후 시설물 유지·관리 방안 수립

- 유지·관리가 용이한 방향으로 시설물을 설치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 및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계획이 미흡한 상태
- 예를 들어 비상벨의 경우, 유지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계획은 있었으나 시공되지 않음
- 이를 예방하고 사업효과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시설물의 유지·관리 방안 수립 필요

•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설문조사 실시 필요

- 짧은 일정동안 사전·사후 설문조사가 이루어져 사업의 성과 및 주민들이 느끼는 효과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
- 지역별 특성 및 사업 시행단계별·주기별에 따라 차별화된 설문조사 문항 도출 필요

- 타 부서 및 관련기관 사이에 공유할 수 있는 범죄 정보 시스템 구축 필요

- 행정적인 이유로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지점 선정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범죄 정보 구축 불가
- 범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효과적으로 범죄취약지역을 선정·계획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지역특성에 맞게 적용시킬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 솔루션 필요

-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실무자들을 위해 지역 유형별로 범죄예방 가이드라인 및 단위별 디자인 솔루션을 개발
 - 이를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보급하여 사업 활성화 도모
 - 더불어 범죄와 연관된 사회적 현상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CPTED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실증적 디자인 솔루션 개발 필요
-

참고문헌

- 경찰청(2006),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방안」, 경찰청, pp.16
- 권선택(1994), “도·농 통합 이후의 지방행정의 과제 : 도·농 통합 추진상황과 향후추진계획”, 「대한지방행정공제회」, 43(491), pp. 21~38
- 김광식(1995), “특집:논문 - 주제 : 도·농 통합에 따른 지역발전의 방향과 과제 : 시군통합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9(4). pp.4001~4019
- 김대원(1999), “통합시의 생산성 증대효과 분석 : 공공 산출물의 측정모형의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3(3), pp.327~344
- 김선희, 서태성, 이지원(2010), 「그랜드비전 2050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미래변화 전망 분석」, 국토연구원, pp.26~27
- 김재홍(2000), “도농통합 행정구역 개편이 지방정부의 효율성 변화에 미친 영향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9(2), pp.47~67
- 김정호, 김창길, 송미령, 한석호, 장도환(2010), 「농업·농촌 2030/2050 비전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주숙, 김은영(2003), “특집 : 한국 농촌의 미래 ; 도·농 복합시 농촌주민의 갈등요인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구미, 익산, 안성시를 중심으로-”, 「한국농촌사회학회」, 13(1), pp.85~115
- 김창현, 변필성(2011),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농촌활성화 전략 연구」, 국토연구원
- 김현중(2011), “농촌의 범죄다발지역과 범죄발생 요인 분석”, 「대학원생 논문대회 우수논문집」. 제7권, pp.101~126
- 농림축산식품부(2015),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귀농귀촌종합센터」, <http://www.returnfarm.com>.
- 농촌진흥청(2015), 「농촌지표조사」,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2012), 「농촌생활지표조사」, 농촌진흥청
- 대검찰청(2006), 「2006 범죄분석」, 대검찰청
- 대검찰청(2015), 「2015 범죄분석」, 대검찰청
- 박희정(1994), “도·농 통합 이후의 지방행정의 과제 : 도·농 통합 이후의 지역발전과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지방행정, 43(491), pp.50~63

- 배은석, 박해금(2016), “도농복합지역의 주민의 공동체의식이 지역사회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도시와 농촌 지역주민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v(58), pp.173~199
- 배인명, 이명석, 최재송(2000), “정책연구논문, 시 군통합의 성과 평가 : 재정적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9(1), pp.139~162
- 법무부(2015),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표준 매뉴얼』, 법무부, pp.27~28
- 국민안전처(2016), 『2016년 보행안전 국제세미나』, 국민안전처, pp.146~147
- 서울특별시(2014), 『공공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 서울특별시(2013), 『주민중심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 pp.6
- 세종특별자치시(2016), 『세종시 인구현황』, 『세종통계』, <http://sejong.go.kr>.
- 성주인, 김성아(2012), 『도시민의 귀농·귀촌 실태와 정책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p.239~263
- 신영선(2012), 『농촌마을 주민 공동체의식 연구 : 공동체의식 측정항목 도출 및 형성요인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영석, 이곤수.(2006), “삶의 질 관점에서 본 도농통합의 형평성 효과: 경주시 사례”,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0(4), pp.159~182
- 윤기찬, 장한나(2008), “도농 통합에 따른 효과에 관한 주민 인식의 차이에 관한 연구: 지역간 이질성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9(4), pp.87~107
- 위키백과(2016), “도농복합시”,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도농복합시#cite_ref-2,
- 이경훈(2008), “범죄로부터의 안전 - 도시주거의 새로운 가치”, 『건축』, 52(1), pp.49~52
- 이규환(1994), “도농통합시의 행정체계”, 『자치행정』, v(9), pp.15~28
- 이병철(1994),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연구 : 김영삼정부의 행정구역개편안을 중심으로”, 『울산대학교사회과학논집』, 4(2), pp.23~41
- 이세준, 이석정(2009), “가로공간 형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의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v(10), pp. 163~184
- 이수만(1995), “도농통합시의 향후 발전과제”, 『지방자치』, v(10), pp.61~64
- 이승철(2010), “도·농 복합시의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공공 인적자원과 정책』, v(3) p.117~157
- 이재기, 조석주(2000), “시·군통합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 행정비용절감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5(1), pp.113~142

- 이재원(1995), “다시 짚어보는 행정구역의 통합과 분리 : 행정구역개편과정에서 잇고 있는 논의들”, 「지방자치」, v(9), pp.97~103
- 이형하(2010),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활동 참여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2(3), pp.219~245
- 일본위키백과(2016), <http://ja.wikipedia.org>
- 임성일(1994), “도, 농통합행정과 계획행정 : 도, 농통합형 도시 행, 재정의 과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도시문제, 29(307), pp.44~60
- 임승달(1995), 특집: 통합시의 도시개발 과제와 방향 : 통합시의 도시개발 과제와 방향.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도시문제, 30(316), pp.33~50
- 장태옥(1994), “특집:도·농통합행정과 계획행정 : 도·농통합의 의의와 방향”,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도시문제, 29(307), pp.9~21
- 전석홍(1994), “도농통합 이후의 효율적인 지역개발전략”, 「지방행정」, v(9), pp.38~49
- 정기방, 강정운(2006), “한국 도농복합정책의 규모경제 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v18(4), pp.91~112
- 정진성, 박현호(2010), 「지역사회의 구조적 특성이 살인범죄에 미치는 영향-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음이향 회귀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조영진(2016), “공간분석을 활용한 범죄발생 위험지점 예측과 해석”, 「auri brief」, v.137, pp.1~8
- 최양부, 윤원근(1988), 도·농 통합적 시·군행정구역의 설정방안, 「지방행정연구」, 8(2), pp.87~88
- 최진수(2001), “시·군 통합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도시서비스 공급부문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10(1), p.55~83
- 최홍석, 정재진(2005), 도농통합의 재정적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19(4), pp.145~174
- 통계청(2005), 「2005 사회조사보고서」
- 통계청(2014), 「2014 사회조사보고서」
- 하지영(2011), 「도시블록에서 시작하는 우리시대의 집합주택」,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p.9~22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016), “도농통합”,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 한원택(1995), 「지방행정론 : 이론, 제도, 실제」, 서울 : 법문사
- 허경미(2011), 「농촌범죄학적 관점에서의 농촌범죄와 도시범죄의 비교」, 한국경찰연구, pp.145~168
- 허준영(2015), 「신도시 주민 간 통합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세종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 홍준현(1997), “시·군통합에 의한 행정구역개편의 효과분석”,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8(2), pp. 59~91
- 홍준현(2005), “시·군 통합이 지역 내 및 지역 간 균형성장에 미친 효과”,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1), pp.299~325
- 홍준현, 이상윤(2003), “정책논단 : 시·군통합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중앙행정논집, 17(1), pp.255~275
- A Better Brainerd(2013), “Neighborhoods First a Low Risk, High Return Strategy for a Better Brainerd”, <http://rural-design.org/resource/low-risk-high-return-neighborhood-approach>.
- Blair, J.P., Staley, S. P. & Zhang, Z(1996), The Central City Elasticity Hypothesis : A Critical Appraisal of Rusk’s Theory of Urban Development.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62(3), pp.345~53
- Carr, J. B. & Feiock, R. C(1999), Metropolitan Govern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Urban Affairs Review」, 34(3). pp.476~488
- DeGrove, J(1973), “The City of Jacksonville : Consolidation in Action”, in Advisory Commission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Regional Governance Promise and Performance, 「Substate Regionalism and the Federal System」, Vol.III, Washington, D.C.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Fleischmann, A, & Green, G(1991), Organizing Local Agencies to Promote Economic Development,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21(1), pp.1~15
- Horan, J. & Taylor, G. T(1977), 「Experiments in Metropolitan Government」. New York, NY : Praeger
- Ostrom, E(1972), Metropolitan Reform Propositions Derived from Two Traditions. 「Social Science Quarterly」, v.53, pp.474~493
- Queensland Police(2008), 「Rural Crime Prevention」, Queensland Police
- Rigos, P(1995), “Metropolitan Governance Policy : Forty Five Years of Experimentation,

Research and Ideological Conflict”, 「Souther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November, Atlanta, GA.

- Rusk, David(1993), 「Cities Without Suburbs. Washington, D.C」,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角館 政英(2010), 街路の光環境によって街はどう変わるか? (特集夜景観光のポテンシャル-光のまちづくりへ), 「観光文化」, 34(6),pp.14~17
- 農林水産省「2005年農林業センサス付「調査農村集落調査」
- 農林水産省農村振興局(2003), 農村整備について
- 본보리 빛 환경 계획(2016), http://www.bonbori.com/pj/1_u/onomura/index.html